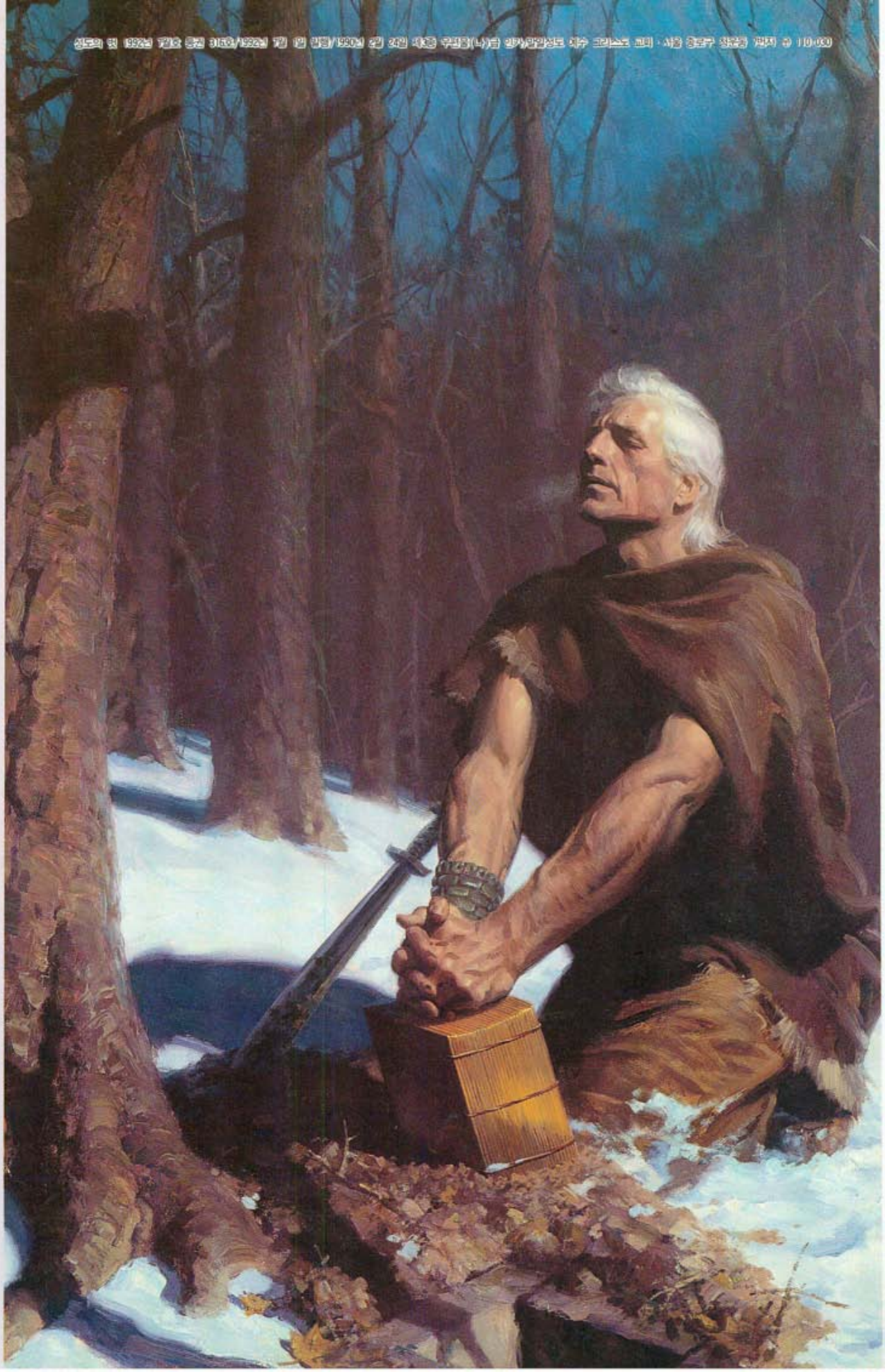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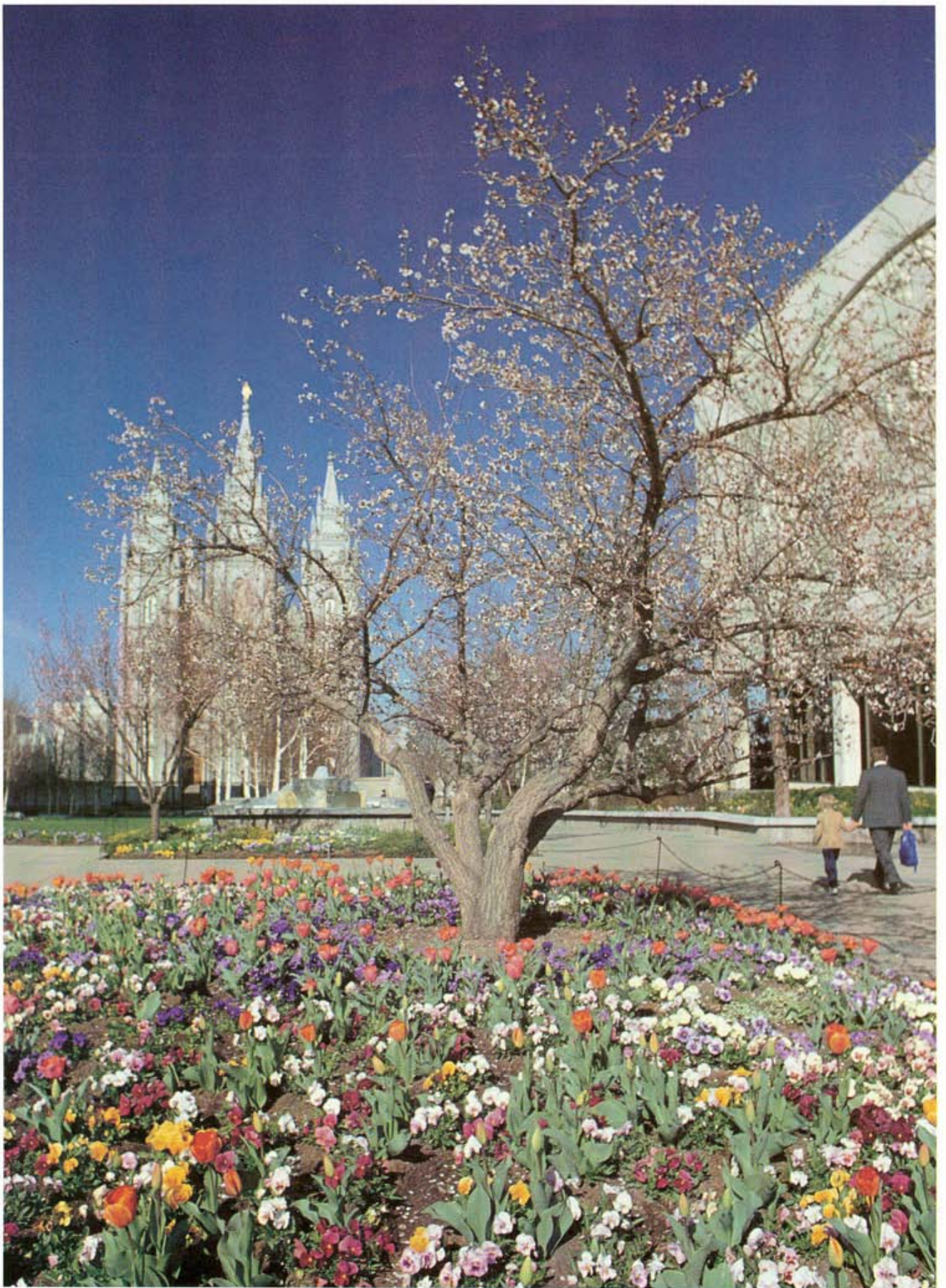


1992
성도의 삶 7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교회 본부 건물(오른쪽)에 핀 꽃들이 연차 대회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뒷편에 솔트레이크 성전 모습이 보인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2차

연차 대회 보고

1992년 4월 4~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 절차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이신 에프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바로 이 단에
서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대회를
개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벤슨 대관장님,
저희는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드리며 영감에 찬
대관장님의 지시에 따르기를
몹시 열망합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교회의 제162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개회 모임에서 말씀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이 아침에 벤슨
대관장님의 지명에 따라 그분을
대신하여 말씀드리면서 하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과 권고를
대부분 그분의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권고에는 부모를 위한 다음
제언이 포함되었다.

“1. 자녀가 여섯 살이든 열여섯
살이든 생애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시간을 내어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2. 시간을 내어 자녀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3. 시간을 내어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4.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기도하십시오.

“5. 매주마다 시간을 내어 의미깊은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가정의
밤을 가정의 훌륭한 전통이 되게
하십시오.

“6.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십시오.

“7. 매일 시간을 내어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8. 시간을 내어 온 가족이 함께
일하십시오.

“9. 시간을 내어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10. 진정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벤슨 대관장님은 대회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토요일 오전 모임과
일요일 오전 모임에 참석하셨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과 몬슨 부대관장이 대회
모임을 사회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취해진 행정
조치는 본부 청년 회장단 즉 아데스 지
캡 회장과 제1보좌인 제인 비 앨런
자매와 제2보좌인 재닛 시 헤일즈

자매가 해임된 것이었다.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단의
회장으로 재닛 시 헤일즈 자매가
지지받았으며,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가 제1보좌로,
패트리시아 피 피네가 자매가
제2보좌로 지지받았다.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벤슨 대관장님의 간증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벤슨 대관장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모든 덕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범과 교훈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 유일하고 확실한
길인 그 위대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헝클리 부대관장은 계속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이 우리의 예언자이시고
지도자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결국 저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심을 모범과 교훈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사명임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대회의 진행 과정은 북반구의
전지역에 영어와 기타 15개 언어로
방송되었으며 생중계 및 녹화 중계가
불가능한 지역의 단위 조직에 대회
비디오 테이프가 배부되었다. □

- 편집인 -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투투알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게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엘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다데이, 로버트 이 웰즈

봉 권: 제316권, 제29권, 제7호
등 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2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흥 무 풍

-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사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93 320

Printed in Korea 7/92

색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가정 토마스 에스 몬슨(상호부조회 대회)
 가족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전세계적인 자매애(상호부조회 대회) 엘레인 엘 잭(상호부조회 대회)
 간증 고든 비 힝클리, 신권 모임;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후 모임; 전세계적인 자매애(상호부조회 대회)
 감사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로버트 디 헤일즈; 한인상
 결혼 데이비드 비 헤이트; 보이드 케이 페커
 결혼 엠 러셀 벨라드
 경건 전세계적인 자매애(상호부조회 대회)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모임
 구원의 계획 러셀 엠 넬슨
 기도 로버트 디 헤일즈
 도덕적인 순결 보이드 케이 페커
 모범 칼로스 이 에이시; 스티븐 디 네이들드
 명교집 제임스 이 파우스트; 리차드 지 스크트
 보혜사 제임스 이 파우스트
 봉사 토마스 에스 몬슨, 토요일 오전 모임; 매리온 디 행스; 요시히코 기꾸찌; 엘 톰 페리; 본 제이 페더스톤;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제니트 헤일즈; 스티븐 디 네이들드; 샘 케이 시마부꾸로; 조셉 비 위스런; 지에코 옌 오카자끼(상호부조회 대회); 토마스 에스 몬슨(상호부조회 대회)
 부모 토마스 에스 몬슨, 토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모임
 부활 러셀 엠 넬슨
 비평 마빈 제이 에쉬튼
 사람 마빈 제이 에쉬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엘레인 엘 잭(상호부조회 대회),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상호부조회 대회), 지에코 옌 오카자끼(상호부조회 대회); 매리온 디 행스; 요시히코 기꾸찌; 본 제이 페더스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상호부조회 토마스 에스 몬슨, 토요일 오전 모임; 엘런 에이치 옥스; 엘레인 엘 잭(상호부조회 대회);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상호부조회 대회); 토마스 에스 몬슨(상호부조회 대회)
 선교 사업 요시히코 기꾸찌; 엘 톰 페리; 본 제이 페더스톤; 엘 알든 포터
 성약 아테스 지 캡
 성전 사업 데이비드 비 헤이트; 아테스 지 캡; 조셉 비 위스런
 성찬식 제임스 이 파우스트
 순선 지에코 옌 오카자끼(상호부조회 대회)
 순종 엠 러셀 벨라드; 샘 케이 시마부꾸로
 시간 관리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신권 델린 에이치 옥스; 칼로스 이 에이시;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신앙 안헬 아브레아; 아테스 지 캡; 스티븐 디 네이들드
 여성 델린 에이치 옥스;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상호부조회 대회); 전 세계적 자매애 역경 안헬 아브레아; 닐 에이 맥스웰
 영감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영성 알렉산더 비 모리슨;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엘레인 엘 잭(상호부조회 대회)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디 행스; 알렉산더 비 모리슨;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모임; 하워드 더블류 헌터; 로버트 디 헤일즈; 샘 케이 시마부꾸로;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후 모임
 예언자 토마스 에스 몬슨, 토요일 오전 모임; 닐 에이 맥스웰; 고든 비 힝클리, 신권 모임
 요셉 스미스 닐 에이 맥스웰

용서 마빈 제이 에쉬튼; 애드니 와이 고마프, 리차드 지 스크트
 우정 증진 애드니 와이 고마프
 의로운 칼로스 이 에이시;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모임; 조셉 비 위스런
 인쇄 안헬 아브레아
 자매애 엘레인 엘 잭(상호부조회 대회)
 재능 토마스 에스 몬슨(상호부조회 대회)
 재활동 촉진 애드니 와이 고마프
 전말 엘레인 엘 잭(상호부조회 대회)
 제자 한인상
 조직, 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주변 정리, 개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죽음 러셀 엠 넬슨
 지혜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신권 모임
 청소년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모임; 제니트 헤일즈, 일요일 오후 모임
 학대 리차드 지 스크트; 보이드 케이 페커
 합당성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엘 알든 포터
 행복 조셉 비 위스런
 회개 엘 알든 포터; 로버트 디 헤일즈; 보이드 케이 페커
 회복 닐 에이 맥스웰
 회생 엠 러셀 벨라드; 한인상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닐 에이 맥스웰
 델린 에이치 옥스
 데이비드 비 헤이트
 러셀 엠 넬슨
 로버트 디 헤일즈
 리차드 지 스크트
 마빈 제이 에쉬튼
 매리온 디 행스
 보이드 케이 페커
 본 제이 페더스톤
 샘 케이 시마부꾸로
 스티븐 디 네이들드
 아테스 지 캡
 안헬 아브레아
 알렉산더 비 모리슨
 애드니 와이 고마프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엘 알든 포터
 엘 톰 페리
 엘레인 엘 잭
 엠 러셀 벨라드
 요시히코 기꾸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제니트 시 헤일즈
 제임스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위스런
 지에코 옌 오카자끼
 칼로스 이 에이시
 토마스 에스 몬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한인상

목차

-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2차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어제의 추억이 오늘의 교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 영적인 병고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9 최고의 법
매리온 디 랭스 장로
- 11 하나님의 참된 사랑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 13 그리스도의 양떼를 양육함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 15 주님의 집으로 나아오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18 허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21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2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1991년도 통계 보고서
- 23 “일꾼은 적으니”
엘 톰 페리 장로
- 25 환난 중에 인내함
안헬 아브레아 장로
- 27 여러분의 생활을 정돈함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 29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 31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34 상호부조회와 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신권 모임

- 37 “나의 종 요셉”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40 사내다워지라!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 42 사랑의 포로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 4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엘 알든 포터 장로
- 47 배우고 행하며 되어서 할 사람이 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0 주의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54 감사하는 태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1 제일 좋은 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 63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 66 우리의 도덕 환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69 선택된 세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72 죽음의 문
러셀 엠 넬슨 장로
- 75 희생의 축복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78 의를 위한 위대한 힘
아테스 지 캡
- 79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재니트 시 헤일즈 회장
- 81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인상 장로
- 82 신앙과 선행
스티븐 디 네이들드 장로
- 84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 86 선을 추구함
조셉 비 위스린 장로
- 89 우리의 위대한 사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 대회

- 90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엘레인 엘 잭

- 92 상호부조회의 사명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 93 범세계적인 자매애
- 95 침과 진흙과 기가꾸꾸
지에고 엔 오가자기
- 97 위를 쳐다보고 전진함
엘레인 엘 잭
- 99 상호부조회의 정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102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 103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105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단이
부름받음
- 107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108 교회 소식 및 지역 소식

대회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 제드
에이 클라크, 웬던 앤더슨, 필
셔틀리프, 크레이그 다이어몬드, 존
루크, 멜라니 섬웨이, 매트 레이어.

대회 음악을 위해 참여한 합창단:
몰몬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로버트 시 보우트, 오르간
반주자-클레이 크리스찬슨(토요일
오전 모임); 릭스 대학 합창단,
케넬 닐슨 및 지휘자-제임스
브레이그, 오르간 반주자-클레이
크리스찬슨(토요일 오후 모임);
비와이유 남성 합창단, 지휘자-맥
윌버그와 로널드 스토우렐리,
오르간 반주자-리차드
엘리어트(신권 모임);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자-제럴드 오틀리,
오르간 반주자-존 룡거스트와
용거스트와
로버트 컨덕(일요일 오전 모임과
오후 모임)

어제의 추억이 오늘의 교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벤슨 대관장께서는 상호부조회 회원 두 분을 선정하시고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와 아내인 플로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바로 이 단에 서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워 하시겠습니까. 벤슨 대관장님, 저희는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드리며 영감에 찬 대관장님의 지시에 따르기를 몹시 열망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벤슨 대관장님의 지명에 따라 그분을 대신하여 말씀드리면서 하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과 권고를 대부분 그분의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는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은 그들의 조직이 이룬 과거의 업적들을 회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장차 이를 업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상호부조회에서 두 분을 선정하셔서 개인적인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친 두 분의 여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 분은 바로 저의 모친이시고, 또 한 분은 바로 저의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입니다. 이 분들이 인정과 자비라는 여성의 속성을 통하여 저의 생애와 후손들의 생애에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친은 작지만 굳건한 한 시골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부친께서 모친이 지명받아 하시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기억합니다.

“부친은 만이인 저에게 모친이 상호부조회 주례 모임에 가실 수 있도록 말에 마구를 채우고 마차를 준비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키가 작아서 담장이나 상자 위에 올라서지 않고서는 마구를 채우거나 고삐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곳간에서 밀 한 말을 가져다가 마차 뒤쪽에 실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밀 저장 창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와드 내의 병자를 방문하거나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어머니는 언제나 마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마차가 진흙탕 길을 지나갈 때면 마차가 사라진 뒤에도 바퀴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또한 저의 생애와 자비로운 봉사와 모범을 통해 그분이 축복해 주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상호부조회를 도와 장래의 기근을 대비하여 밀을 저장하던 소년 에스라 벤슨이 얼마 후에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유럽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밀과 기타 필수품들을 대량 배포하는 일을 지휘하는 사도 에스라 벤슨이 되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그의 반려자인 플로라에 대해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중한 제 아내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내의 사랑스런 헌신과 영감과 신앙과 충실한 지지를 통하여 저희는 어떤 일에서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그분의 모친과 사랑스러우며 충실한 아내의 모범에 감사하며, 어머니들께 소중한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 가지의 특별한 제언을 주셨습니다.

1. 자녀가 여섯 살이든 열 여섯 살이든 생애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시간을 내어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2. 시간을 내어 자녀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3. 시간을 내어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십시오. 다음 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부를 많이 누릴 수 있겠지요.

금, 보석 가득한 상자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큰 부자는 될 수 없어요.

내겐 책 읽어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4.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기도하십시오.
5. 매주마다 시간을 내어 의미깊은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가정의 밤을 가정의 훌륭한 전통이 되게 하십시오.
6.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십시오.
7. 매일 시간을 내어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8. 시간을 내어 온 가족이 함께 일하십시오.
9. 시간을 내어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10. 진정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러한 제언을 일차적으로 어머니들께 주셨지만, 그분은 성신권을 소유한 우리 남성들과 아버지들도 각자의 아들 딸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거룩한 목표를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해의 왕국에 거하는 것을 가정의 목표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조금만 더 지상의 천국이 되도록 노력하여 이 생이 끝난 뒤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 여기에 있구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
의자가 모두 찼구나,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왔구나,
우리 모두 여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병고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보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겸손히 이 연단에 서서 비통과 실의, 고뇌, 고통, 절망 등을 확실히 치유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편 147:3)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입니다. 고통은 인류 공동의 숙명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의 아픔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상처를 보고 놀려대겠지”(로미오와 줄리엣, 2막 2장 1절)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도전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짐이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즐겨 쓰시던 치료 요법 중에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움직여 일하거나 땅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요구, 다양한 주장들, 애원하는 식의 판촉 수법, 저를듯한 소음,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대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제 기능을 다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평화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무모하리만치 시간에 쫓겨 바빠 살다보니 정신적인 안정은 취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존 경쟁의 압력이 대단히 큼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유욕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힘이 자꾸 증가되어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이 스며듭니다.

우리 사회가 영적인 질병을 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거나 그것에 신경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의주의나 돈과 재화의 획득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음, 부정직, 폭력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악에 대항해 오고 있는 몇몇 소수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아니나를 떠나서, 그저 아름답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쫓는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영혼에 위안을 가져다 주는 치유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이 유행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생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체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압력을 상쇄해줄 수 있을 만큼 큰 위안은 하나님의 영광 더욱 더 친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영적인 치유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에 대한 사례가 애리조나의 리 도선장에서 초기 뱃사공으로 일했던 워렌 엠 존슨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66년 여름에 젊은이 워렌 존슨은 금을 캐서 행운을 잡겠다고 서부로 왔습니다. 그는 매우 아프게 되었으며, 그의 동료들은 그를 바운티폴의 어느 집 마당에 있는

나무 아래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집의 딸이 그를 발견하고는 마당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친절한 가족은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를 집안으로 데려가 회복할 때까지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리 도선장의 뱃사공이 되었습니다.

1891년 워렌 존슨 가족은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디프테리아로 네 자녀를 잃은 것입니다. 네 자녀가 나란히 묻혔습니다. 1891년 7월 29일자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워렌은 이렇게 썼습니다.

“존경하는 형제님...

“1891년 5월에 투바 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유타 주 리치필드에서 이곳으로 와 친구들을 방문하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팽기취에서 한 자녀를 묻었으며, 집으로 돌아와 마차나 자신들을 소독하지도 않고 죽은 아이의 옷을 세탁하지도 않은 채 어린 자녀들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병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저희에게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이곳에 왔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앙이 있었으며,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가족 기도를 하는 등등의 종교적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만 만에(제일 큰 사내 아이가) 제 팔에 안긴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아이가 또 그 병으로 쓰러졌으며 저희는 이 곳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24시간 금식하고, 저 혼자서 48시간 금식을 한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없이 어린 두 딸들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지 일주일쯤 뒤에 열 다섯 살 된 딸인 멜린다마저 쓰러졌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였지만, 그 아이도 이내 자기 남매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사랑스런 세 딸과 아들 하나가 우리 곁에서 떠나갔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 열 아홉 살 된 제 큰 딸 아이가 지금 그 병으로 누워 있고 저희는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하여 형제님의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가운데 저희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축복을 다시 받기 위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안에서의 형제,

“워렌 엠 존슨(피터 릴리 “워렌 마셜 존슨, 잊혀진 성도” *유타 역사 계간지*, 1971년 겨울호, 19쪽)

1891년 8월 16일자로 친구인 워렌 콧에게 쓴 다음 편지에서 존슨 형제는 영적인 평안을 찾았노라며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분명 이 일이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긴 하지만 나는 구원을 향한 길에 올랐으며, 어떤 고난을 겪든 쇠막대를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네. 나는 네 의무의 수행을 게을리 해 본 적이 없으며, 형제들의 신앙과 기도를 지니고 권능을 가진 자네가 내 머리에 부어 준... 축복을 소망하며 믿는 바이네.”(같은 책)

신앙개조 제6조는 영적인 은사 중에서 우리는 병고치는 은사를 믿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은사는 신체 뿐만 아니라 영의 병고침도 포함합니다. 영은 영혼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이 영적인 위안은 영적인 은사를 구함으로써 오는 것으로, 이 영적인 은사는 여러 방법으로 확인되고 증명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은사들이 매우 중만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간증을 겸손하고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옵니다. 또한 성별된 기름을 붓고 아픈 자를 축복함으로써 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로서 “그의 회복의 능력”(니파이서 25 : 13)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보혜사는 병고침의 매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병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상에 성전 사업을 회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원의 사업에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세상의 많은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성전은 평화와 평온의 장소입니다. 이 기록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편 147 : 3) 주십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온 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부대관장(중간)과 두 보좌, 고든 비 킨클리 부대관장(좌)과 토마스 에스 몬스 부대관장(우).

롭니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물몬경을 읽는다면, 이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스며들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경전의 영이 증대될 것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염려가 커갈 것입니다. 다툼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부모는 더욱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가르칠 것이며, 자녀는 그 가르침에 더욱 귀 기울여 따를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이 증대될 것입니다. 신앙,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자비가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 충만하여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0년 4월, 112~13쪽)

제가 어렸을 때는 담배, 알콜성 음료, 흥차, 커피를 금하는 것을 포함한 지혜의 말씀이 건강면에서 보여 주는 이점은 오늘날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 그러나 영적인 이득은 오랜 세월을 두고 증명되어 왔습니다. 지혜의 말씀에는 이 권고를 기억하여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교성과 성약 89 : 18)는 약속이 달려 있습니다.

골수는 오랫동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뼈에 골수를 이식하여 생명을 구하는 시대에서 “뼈에 골수를”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성약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 18~21)

우리는 살아 남으려면 오늘날 세상 일에서 많은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병고침은 커다란 세상 무대에서가 아니라 성찬식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고 성찬을 취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웃들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겸손한 영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때 위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훌륭한 신 감독님은 참석자들에게 복음 원리나 주제를 다루도록 지명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성신의 권세로 이야기하여 청중이 그 안에 담긴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또 이들은 겸손한 간증과 부드러운 권고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청중들은 진리의 영으로 가르친 것을 이해하고 간증을 갖게 됩니다.

성찬식은 경건하고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건전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음악과 노래를 통해 예배하는 것도 병고침의 한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름답고 경건한 찬송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노래를 통한 예배는 다른 영향력 중에서도 경건한 태도로 참석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단합시켜 주는 효력을 갖습니다.

영적인 병고침은 또한 겸손하게 간증을 드리고 들음으로써 옵니다. 회개의 영을 통해 드리는 간증,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순종은 우리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덜어 주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 교회의 성실한 회원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 교회의 기초인 "사도와 예언자"(에베소서 2:20)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도 완전한 영적 병고침을 이룰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언자들과 그들의 메시지가 세상에 의해 거부되어 온 오랜 역사에 근거할 때 이러한 일은 인기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인도하고 지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들을 지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궁극적인 영적 병고침은 자신을 잊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잘 살아 남은 사람들은 동료들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음식이나 물건들을 기꺼이 내주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단 수용소에서 살았던 우리는 막사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마지막 빵조각까지 내주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같은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이들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즉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최후의... 자유만은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 뉴욕: 사이먼 앤드 슈스터, 1963년 104쪽) 이에 대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누가복음 17:33)

위안을 찾기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는 아마도 기도가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신의 권세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배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우신 판단에 따라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영혼에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해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지만, 때로는 주께서 안된다는 대답을 주실 때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진리와 지혜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79쪽) 기도는 병고침의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치료 기술"로 고칠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치료는 연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일반적인 선한 의지와 다른 사람의 복리와 행복을 생각하는 동정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애정과 자비심으로

이루어 집니다"(복음 교리, 236쪽)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순종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너희 죄가 주홍같은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사야 1:18)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너무 늦어버린 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은...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0쪽)

충분히 회개하고 난 뒤의 치료 방법은 놀라우리만큼 간단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 하려느냐?"(나파이사서 9:13)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편 147:3)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구원하심이니라"(베드로전서 5:7)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치유가 가능케 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예레미야 31:13, 25) 또 해의 영광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요한계시록 21:4) 그때에는 신앙과 희망이 고통과 실의, 고뇌, 번민, 절망을 대신할 것이며, 엘마가 "온갖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었나니"(엘마서 31:38)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최고의 법

메리온 디 헝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의 것을 주며 희생하는 것은 성장하고 호흡하는 것과 같이 자연적인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앨 마서 4장에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영은 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앨마서 4:15)

1860년 이래로 대회를 위해 성도들이 모여 온 이 아름다운 태버네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에서는 넓고도 아름다운 2층 창문을 통하여 토발센의 그리스도 조각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원형을 본따 만든 것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것으로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조각상 아래에는 덴마크어로 *코머 킬 미그* 즉 “내게로 오라”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권유는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의 구원에 참여하며 그의 구속의 능력을 얻”(욘나이사서 26절)도록 하라는 경전상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길ियो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요한복음 14:6)음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지닌 독생자이시며 선한 목자요,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변호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요한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요한일서 4:14)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에서 원리와 행동이 훌륭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느낍니다. 구세주께서는 영적인 완전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셨으며, 그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실천하고 적용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권능을 가지고 자신을 일컬어 사람들이 따라야 할 빛ियो 모범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 너희는 본대로 행하라.”(니파이삼서 18:16, 24)

마태복음서의 훌륭한 다음 구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을 고치시니”(마태복음 4:23) 마태는 또한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거의 마쳐 가실 즈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양과 염소의 우화를 가르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우화는 앞으로 올 심판에서 주님이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국을 물려받게 될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렀고, 자기의 것을 주는 기쁨과 봉사함으로써 오는 만족감을 경험했으며, 배고프고 목마르며, 집없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려 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다음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반면에 “영벌”로 저주를 받을 사람들에게는 슬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5)

구세주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행위이자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셨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의 것을 주며 희생하는 것은 성장하고 호흡하는 것과 같이 자연적인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55년 전 바로 이 연단에서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 하신 훌륭한 말씀을 최근에 찾게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두 가지 위대한 사명을 안고 지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로서의 임무와 타락한 자들을 위한 속죄와 율법의 성취를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세상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자들에게 위의 두 가지 위대한 사명, 즉 인류의 병과 고통을 덜어 주는 일 및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게 해 줄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의 수행 임무를 유업으로 남기셨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대회 보고, 1937년 4월, 22쪽)

그분의 거룩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대회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우리 종교의 목표 곧 우리 생활의 목표입니다. 물론경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세울 기초가 되실 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반석이신 구세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기억할지이다”(힐라맨서 5:12)

예수님은 위대하고 영원한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속죄가 없없이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속죄는

우리가 예수께서 설명하신 방법대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마가복음 1:9)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은 성령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태복음 3: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성역을 시작하실 때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태복음 4:17) 그리스도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1~9절 참조)

그리스도의 복음 계획에는 자주 선포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경건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매우 잘 이해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강한 간증과 성령으로 마음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37)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평범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사도행전 2:38)

앞서 인용한 말씀에서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그리스도의 두번째 중요한 성역 즉 “인류의 병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비이기적인 일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일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다른 요소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산상수훈과 그 외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과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마태복음 7:24~27 참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지켜 왔던

고대 율법에 대해 거듭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심고자 하셨던 더 높고 더 거룩한 사랑의 율법에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옛 개념과 행위의 표준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자들이 고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고결하고 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마태복음 5:21, 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5:20)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마태복음 5:47)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마태복음 22:36)라며 논쟁을 벌이려는 투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면서 우리의 책임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마태복음 22:38)이며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르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40)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두번째 위대한 계명을 “최고한 법”(야고보서 2:8)이라고 불렀으며,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갈라디아서 5:14)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누가복음 10:29)라고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세 사람 중에 오직 사마리아 인만이 멈추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을 돕고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가운데 그 필요한 것을 도와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돕는 습관을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정이 많이 남아 있다는 증거를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청년 및 초등협회, 신권 정원회, 가정 복음 교사, 소년단 등이 행하는 인정이 넘치는 봉사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도 부름의 일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난민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젊은 대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 및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또 원하는 대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모사이아서 18:29)라고 하신 책임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순교당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과부를 돕고 고아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야겠습니다. 이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건 어떤 다른 교회에 속해 있건, 또는 어느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건 어디에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타임즈 앤드 시즌스, 1842년 3월 15일, 732쪽)

저희는 최근에 서 아프리카의 말리에서 온 젊고 온화한 교회 장로 한 분을 다시 저희 가정에 손님으로 맞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혼자 힘으로 우물을 어떻게 파고 정원에 물을 어떻게 사용하여 기적적으로 신선한 채소와 곡식을 기를 수 있는지 가르쳐온 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땅에서는 얼마 안되는 양의 수수 작물만을 힘들여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글도 가르치고 건강 프로그램도 소개하여 왔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서로 돕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행한 훌륭한 모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와이 제도의 몰로카이 섬에 있는 칼라우파파 나병 환자촌에서 교회 예배당을 헌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경험은 소중하고 감동적이며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지부 합창단의 음악 순서가 가장 감명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석에서 절름거리면서 앞으로 나왔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고 아담한 건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합창단 배열로 섰으며 어떤 이들은 서로가 완전히 기대고 섰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장님도 많았고 신체 불구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찬송가를 부르는 그들은 완전히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칼라우과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와 오므로 열 한 살 된 필립이라는 소년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필립은 다운스 병에 걸린 소년이었는데, 다른 여덟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반에 참석했습니다.

부활절 주일에 교사는 빈 플라스틱 달걀을 가지고 와서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들에게 교회 건물 바깥 들로 나가서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을 그 달걀속에 넣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두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달걀이 하나씩 열리자 모두들 그 안에 들어있는 나비, 나뭇가지, 꽃, 풀잎 등을 보고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걀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필립의 달걀이었는데,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필립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라고 필립이 말했습니다.

몇 달 후에 필립의 사망을 알리는 부음 기사가 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쯤 여덟 명의 아이들이 함께 걸어나가서 조그만 관 위에 큰 빈 달걀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달걀에 붙인 리본에는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요한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요한일서 4: 14)과 그분의 거룩한 사명이 갖는 주요 목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특별히 간증드립니다.

저는 기록하고 자비로우신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참된 사랑

요시하고 기쁘게 장로

칠십인 정원회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아내와 함께 하와이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조지 큐 캐넌 장로님과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님이 경험한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선교 이야기와 다른 선교사들의 아름답고 영적인 경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지 큐 캐넌, 나의 첫번째 사명, 2판, 솔트레이크 시티, 청소년 인스트러터 오피스, 1882년, 조셉 필딩 스미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 시티, 데저렛 뉴스 프레스, 1938년 참조) 저는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님의 선교 경험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분은 열 다섯 살에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그분은 다섯 살에 부친을 여의고 열 네 살에 모친마저 여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미스 장로님은 빅 아일랜드의 마우이와 코할라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 선교사로서 몰로카이 섬으로 전근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열 여섯 살이었습니다. 그는 동반자인 토마스 에이 도웰 장로와 함께 매일마다 몇몇 작은 부락 찾아가 사람들을 개심시키고 병자들을 치료하며 악령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경전과 구세주의 아름다운 가르침들을 읽었으며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교회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매우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두 동반자는 몰로카이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여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매일 30마일 정도를 여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스미스 장로의 동반자는 그 여행을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날 독일계의 마이어스씨 부부대에 당도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며칠 동안 식사와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마이어스씨는 몇 부락을 더 들 수 있도록 스미스 장로에게 훌륭한 말 한 필을 내주었습니다. 스미스 장로와 도웰 장로는 매일 매일 성령에 인도되어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개심시키기도 하고 또 수많은 비활동 회원들을 다시 활동화 시켰습니다.

어느 날 스미스 장로는 엄청난 고열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신권 축복을 받았으나 여전히 앓았습니다. 거의 절명할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3개월 동안 한 원주민 형제 부부가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젊은 선교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으며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등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결코 그 친절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을 모든 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훌륭한 하와이 여인 마 마누히이를 자신의 하와이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소년은 당시 관리 감독단의 일원이었으며 후에 대관장단의 일원이 되었던 찰스 더블류 니블리 감독과 함께 그 섬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호놀룰루 항구에 발을 딛자, 많은 원주민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화환과 하와이에서만 자생하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을 가져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온통 화환에 파묻히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그 젊은이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화환을 목에 걸었습니다. 규모가 큰 하와이 악단이 환영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으며 물론 음악도 연주했습니다.

니블리 감독은 자신의 일지에 그때 감명 받았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보여 준 깊은 사랑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90세쯤 돼 보이는 가난한 눈 먼 할머니 한 분이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할머니는 매우 먹음직스러운 바나나 몇 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갑자기 그 할머니는 ‘로세파! 로세파! [조셉, 조셉!]’ 하고 부르기 시작했다. 조셉 형제는 그 할머니를 보더니 뛰어가 꼭 껴안고는 몇 번이고 입을 맞추고 머리를 가볍게 부여대며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하는 것이었다. 그는 뺨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채로 나를 돌아보면서 ‘찰리’ 이분은 바로 제가 소년 선교사 시절에 병이 들어서 아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을 때 절 간호해 주셨던 분이랍니다. 이분이 저의 어머니가 되주셨답니다.!”

니블리 감독은 또 이렇게 계속 기록했습니다.

“아, 너무나 정말 너무나 감명깊은 광경이었다. 50년 전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친절을 기억하고 있는 위대하고 고귀한 영혼과, 사랑하는 로세파에게 주려고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인 바나나 몇 개를 가져 왔던 가난하고 연로한 영혼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85~86쪽)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로세파는 바로 교회의 제6대 대관장이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마누히 자매는 이 열 여섯

살의 옛된 소년이 훗날 교회 대관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다. 단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 주님의 선교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모로나이서 7:47) 이 하와이인 부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지니고 있었기에 선교사들을 주님의 사자로 대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보살폈습니다. 그러한 존경과 경건은 그녀가 운명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스미스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주님께 의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으며, 이 아름다운 하와이인 어머니에 의해 싹튼 그의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채로... ‘찰리, 이분이 바로 제가 소년 선교사 시절에 병이 들어서 아무도 돌봐 줄 사람이 없을 때 절 간호해 주셨던 분이랍니다. 이분이 저의 어머니가 되주셨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친절과 사려가 우리의 선교 사업과 재활동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니파이일서 11:22, 25)은 선교 사업의 정신이며 재활동화 사업의 정신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개심의 정신이며 교육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열고자 하는 것”(니파이일서 11:22)이며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니파이일서 11:23)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하와이인 어머니와 같이 고귀한 모범을 보여서 선교사들을 먹이고,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일부만이 회원인 가족이나 준활동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선교사들을 인도함으로써 이러한 사랑을 보여 줍시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랑에 감명받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는 구세주를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알겠나이다. 그 나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루 직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매”(니파이일서 11:22)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지니고 복음 선교사와 함께 노력을 결집하여 봉사할 때, 우리는 많은 개종자들을 얻을 수 있으며, 회원들을 재활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여러분의 모범을 보고 배울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와드와 스테이크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보인 모범대로 행할 것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매우 깨끗하고 온전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모든 선교부 규칙에 “분명하게”(앨마서 57:21) 복종하며 존경하여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님과 같이 경전을 열심히 탐구하여야 합니다.(니파이일서 11:25 참조) “굳건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앨마서 57:26) “하나님을 믿는”(앨마서 57:27 참조)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참된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인 “사랑...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서 7:47)을 키워야 합니다.

모로나이가 우리에게 약속하였듯이,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모로나이서 7:48) 우리 선교사들과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서로 합심하여 봉사할 때 주님은 헬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와 리하이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번영한지라 수천 명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가입하였고...”

“주의 사업이 크게 번성하여 수만의 영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재활동되어] 나아와 [내게] 단합하고...”

“주님께서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일컫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장차 믿게 될 모든 자에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임이라]”(헬라맨서 3:24, 26~28)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훌륭한 형제 자매들을 이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벤슨 대관장님은 그분의 예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그리스도의 양떼를 양육함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의 충실한 종들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양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니파이인 사회에서 계속되는 비극의 하나는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섭취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짐에 따라 영적인 영양 실조의 결과가 이내 나타났습니다. 모사이아서에는 상당히 강한 영적인 힘이 미치는 어느 시기에는 “... 나라가 (다시) 평화로워지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번성케 하시니...”(모사이아서 27:6~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에 교회는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마서 4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 치세 팔 년에 교회 회원들 간에 크게 분쟁이 일었으니, 시기와 불화와 원망과 박해와 교만이라, 저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하였느니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려 하는 데에 교회의 죄행은 큰 장애가 되었으며, 이로써 교회 발전은

크게 저지당하였느니라.”(엘마서 4:9~10)

그 교훈은 명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계속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이건 사회이건 곧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병고침을 주고 덕행을 고무하는 성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되는 심한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영양 실조로 허약해진 사람이 곧 전염병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도 영적으로 허약해진다면 쉽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앞잡이와 악마들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항상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모르는 그 여인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요한복음 4:25)

그때 예수님은 2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확신에 찬 힘있는 말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요한복음 4:26)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끊임없는 양식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수적인 영적 양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분의 훌륭한 설교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양육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름에서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목장의 양들과 우리 안의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아 그분의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현명한 종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신 신뢰에 항상 참되고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와 같은 성스러운 책임을 명예롭고도 기운차게 완수합니까? 경전은 충실한 종들이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들은 니파이인들 역사상의 “시온의 사회”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저들의 이름이 기억되나니”(모로나이어서 6:4)

주님의 충실한 종들은 경전을 사용하여 구원과 승영에 관한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원리를 배우며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데후서 3:16~17)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경전의 온사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 속히 이르시며 권세로 가득하시어 온갖 마귀의 간사와 교활과 간계를 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모두 주가 인도하시어 간악한 자를 위해 마련된 끝없는 고난의 심연을 건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좁은 길에 이르게 하시며,

“저들의 영... 을 하늘 나라 하나님 우편의 처소에 있게 하시어...”(힐라맨서 3:29~30)

그리스도는 경전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분은 경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 : 39)

진실로 모든 진리 즉 영적인 진리와 세속적인 진리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표적과 기사와 예표와 그림자들”(모사이아서 3 : 15) 올바르게 알아내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역사에 관한 모든 것, 과학에 관한 모든 것, 자연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온갖 지식이 주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와 빛, 생명과 사랑, 아름다움과 선하심의 완전한 본보기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행해진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세상 만민을 주 앞에 인도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이라”(니파이이서 26 : 24)

주님의 충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아버지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들에게 결속시켜 주는 성스러운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양육합니다. 1832년 4월 26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주목할 만한 계시에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성스럽고 엄숙한 협약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0)

주님의 현명한 종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대업을 이루는 일에서 결코

경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집에서 엄숙하게 맺은 성스러운 협약을 존중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권세를 지니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들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양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세주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훌륭한 비유에서 그 교훈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떼를 남겨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 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찌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누가복음 15 : 5~6)

그 한 마리에 기울인 관심에 얼마나 컸는가를 유의하십시오.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광야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분명히 귀찮은 일이었으며 또한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광야는 여행자가 부주의할 경우 심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하고 쓸쓸한 곳이기 쉽습니다. 또한 목자가 양들을 약탈자나 사고나 나쁜 날씨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목자도 없이 남겨 두고 온 양들을 생각했을 때 그가 틀림없이 가졌을 걱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튼 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양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쉽게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 소년으로서 수십 년 전에 양과 걱정거리인 항상 붙어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과 걱정거리도 종종 붙어다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과 보살핌의 노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개개인을 위한 구세주의 끊임없이 깊은 사랑을 상기하게 됩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이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찾은 뒤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다시 가정으로 데려올 때 구세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 : 10)

우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조차도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엘마가 가진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엘마가 배도한 조렘인들을 교화시키는 사명을 띠고 제이라헤물라 땅을 떠날 때, 그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우리로 되돌아 오길 바라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가 조렘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고귀하며, 그 대부분이 저희의 형제들이오니,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다시 당신께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엘마서 31 : 34~35)

주님의 참된 종들은 이기심 없는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바로 봉사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모순처럼 보이는 경전의 말씀에 해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현명한 종들은 봉사야말로 해의 왕국의 거실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베나민 왕과 함께, 주님의 영감받은 종들은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아서 2 : 17)이라고 외칩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모사이아서 18 : 9)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현명한 종들은 명성도 찬사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명예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미가 6 : 8) 행합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함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합니다.(모사이아서 3 : 19)

모든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도록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봉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주님의 집으로 나아오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합당하게 규칙적으로 성전에 오십시오. 죽은 자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약속된 계시를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아마 이 경륜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업 곧 살아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과 조상들에게 인봉시키는 사업을 행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편 참조)
캐나다 앨버타 성전 입구에 있는 동판에는 80년 전 사도 중의 한분이셨던 오스 에프 윌트니 장로님의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마음은 청결하여야 하네,

이 곳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네.

하나님이 마음껏 배부시기에 마음껏 취하세.

천국을 알려 주는 거룩한 환희를 맛보세.

여기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배우세
인간에게 왕국의 열쇠가 주어졌나니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가 합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완전히 이를 수
있다네.

이 부드러운 말씀은 성전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전 봉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청결하여야 하네.” 윌트니 장로님은 이 시의 구절을 통하여 성전 참여를 위해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참석하는 우리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윌트니 장로님이 말씀하신 잔치에 온전히 참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참여의 합당성을 매년 신권 지도자와 갖는 성전 추천 접견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와 신권 지도자의 서명이 있는 성전 추천서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감독님과 접견할 때 완전히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당성 여부에 관하여 감독님에게 덜 정직한 태도를 보인다면 고결한 성품을 해치게 되며 감추어진 죄의 심각성을 한층 더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를 성전 봉사자에게 보이면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추천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해결치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께서 산상 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다음 가르침에 순종하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헌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 23~24)

주님의 집에 가져다 드릴 예물이란 과거 선조들이 성전에 바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윌트니 형제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기 전에 일상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이 청결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데 필요한 회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형제 자매나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관계를 개선시킨 다음에 성전에 가야 합니다.

진실로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한 발 앞서서 이러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접하게 될 성스러운 분위기와 경험에 초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들은 노여움, 적개심, 두려움, 좌절, 성급함 등의 감정이나 성전 바깥 문제에 대한 애착 등이 성전 안에서 배풀어지는 잔치, 즉 영적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성전 밖에 버려 두고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은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권세가 부여되는 곳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큰 예지와 더 큰 효율성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1853년 4월 6일 솔트레이크 성전의 초석을 헌납하시면서 엔다우먼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엔다우먼트는 이 생을 떠난 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 파수꾼으로서 있는 천사들의 옆을 지나면서... 지상과 지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영원한 승영에 이르도록 해주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을 주님의 집에서 받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 31)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영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거룩한 의식에 정규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엔다우먼트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오스 에프 워트니 장로가 이야기한 잔치에 남들보다 더욱 온전하게 참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성전에서 사용하시는 가르침의 방법을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잘 준비된 마음과 정신으로 성전에 나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덜 이해하거나 성전 경험에서 다소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존 에이 워트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상징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남자나 여자도 성전에서 상징을 넘어서서 그 상징이 의미하는 힘있는 실체를 보지 못하는 한 바르게 엔다우먼트를 받고 나올 수 없습니다.”(“성전 예배”, *유타 계보 및 역사 잡지*, 1921년 4월, 62쪽)

만일 여러분께서 성전 경험에 대해 다소 혼동되거나 모호해지거나 염려가 된다면, 성전 경험을 거듭 거듭 되풀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재방문하실 때는 활짝 열린 마음과 구하고자 하는 상한 심령으로 와서, 영의 계시를 통해 그 상징들이 여러분과 그 상징이 나타내고 있는 영원한 현실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워트니 장로는 사려깊은 조언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계시를 받는 방법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계시를 어떻게 받으십니까?”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첫번째 계시인 첫번째 시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는 무엇인가를 소망했습니다. 인간의 번잡함이 없는 숲 속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해 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악마와 싸우면서도 간절히 기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에게 영원한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성전 예배”, 63쪽)

워트니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을 본 것은 바로 그의 소망의 힘과 최선의 노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엔다우먼트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계시를 받으려면 소망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워트니 장로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간구와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바르게 뜨고 상징과 성약에 유의하며 그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전에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며, 이 때 계시가 옵니다...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엔다우먼트는 계시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성전 예배”, 63쪽)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순수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마음과 열린 마음이 요구됩니다. 계시는 우리의 소망과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것이며 그때에야 우리는 “천국을 알려 주는 거룩한 환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더 자주 참석함에 따라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에도 축복을 주는 개인적인 계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엔사인》, 1987년 5월호, 85쪽)

합당하게 규칙적으로 성전에 오십시오. 죽은 자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권능, 지혜, 빛, 아름다움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진리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약속된 계시를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과 후손들은 영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축복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며 당신의 이름을 받들며 당신의 영광이 저들을 둘러싸며 당신의 천사가 저들을 지키게 하시며”(교성 1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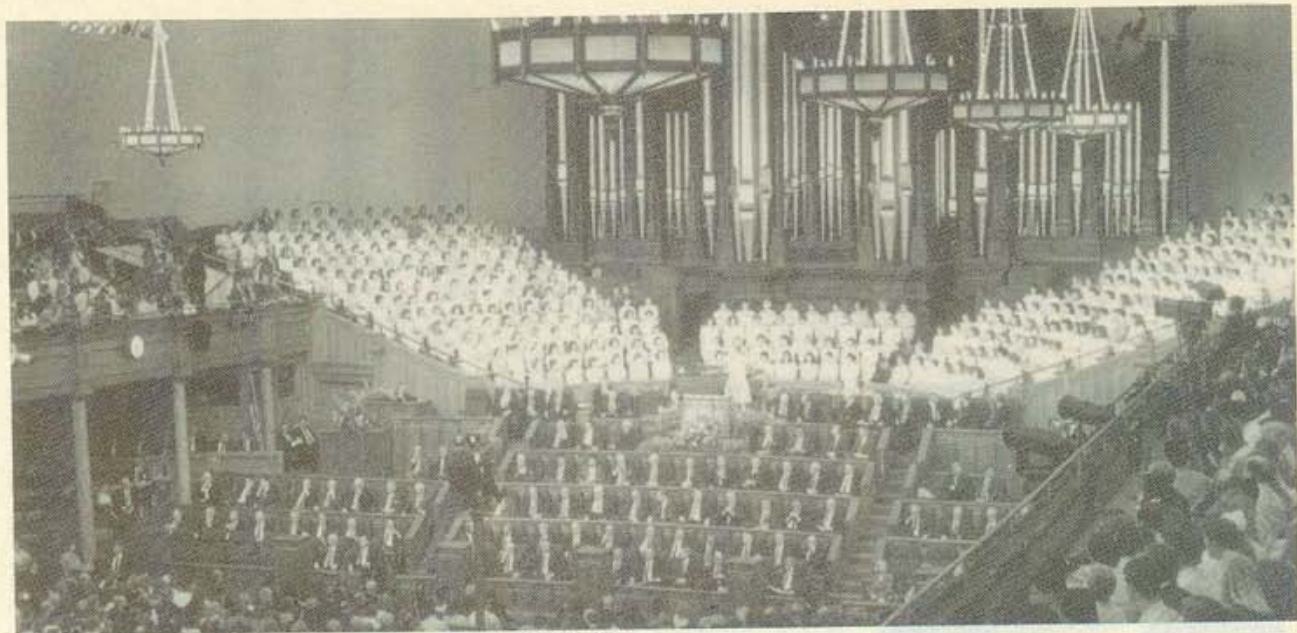
성전에서 돌아오면 여러분이 느낀 바를 가정에서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 주십시오. 성스러운 의식에 대하여 말해서는 안되며, 대신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과 권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욱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에서 경험한 바를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며 성전 축복을 받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는 유혹을 물리쳐야겠다는 자극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신권의 인봉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갖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주님께서 알려 주시는 그 이전까지”의 세대들이 축복사의 고리로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3:372)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신권의 권세로써 현재와 영원을 위해 결합될 때, 영원한 가족이 탄생됩니다. 이 가족은 영원히 존속 될 것입니다. 이 가족은 속성상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충실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에 충실함으로써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생존 여부에 관계 없이 배우자와 인봉 맺은 분들에게 성전의 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인봉을 맺었던 그 날을 잠시 회상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 의식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당시의 거룩한 느낌이나



총관리 역원들과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상호부조의 합창단과 회중.

영원을 두고 맺은 약속들이 어렵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관계를 맺어 준 그 권세를 다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를 사랑하신다는, 당시에는 뚜렷하게만 보이던 느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세월도 흐르고 일상 생활에도 얽매어 사느라고 인봉받을 당시의 느낌이나 경험에 대한 기억이 퇴색되었다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죽은 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그 똑 같은 인봉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영원한 반려자로 인봉될 당시에 맺었던 성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날 받았던 약속도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몇몇 분들에게는 덮어 묻어버리고 싶은 상처를 재발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기억에 쓴 맛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여러분이 보기에 매우 영광스럽고 믿음직하던 것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별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결혼은 불성실이나 배도로 인해 파괴되었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성약에 대한 무관심, 게으름,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식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충실한 배우자였으나, 지금은 본의 아니게 홀로 외롭게 남아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엔다우먼트와 인봉 성약에 충실할 때 약속받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저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불성실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무관심함으로써 여러분이 성약에 충실하게 되는 데 역효과를 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약에 충실할 때 약속된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여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우리의 구세주를 끊임없이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현재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부적합한 분들께 이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합당하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권 지도자들을 만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전에 참석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발전하고 깊어 감에 따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 보이시는 주님의 연민과, 여러분을 감싸서 그분의 면전으로 데리고 오실 주님의 권세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도움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여서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주께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속죄로 인해 우리에게 부여된 불사불멸과 영생에 대해 배웁니다. 중국에는 주님의 거룩한 면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성약과 의식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서두에 들려 드렸던 윌트니 장로님의 영감에 찬 시를 다시 한 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마음은
청결하여야 하네,
이 곳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네.
하나님이 마음껏 베푸시기에 마음껏
취하세
천국을 알려 주는 거룩한 환희를
맛보세
여기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배우세
인간에게 왕국의 열쇠가 주어졌나니
여기에서 과거와 현재가 합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완전케 이를 수
있다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규칙적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양육하고 사기를 높여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악한 말 금하세”라는 말이 찬송가 가사의 의미를 넘어 바람직한 삶의 방법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찬송가, 105장) 우리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라는 신앙개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훈계를 따른다면, 사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비난을 가하는 악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복수하거나 관심을 끌거나 이득을 취하거나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명성 그리고 자존심이 이같은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망치에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단순한 가르침과는 동떨어지게 벗어나서 너무나 자주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쁜 품행이나 나쁜 행동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이 상처를 입히거나 혹독하게 비난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요한복음 8:7 참조) 추악한 소식과 대화는 언제나 불결하고 충격적인 것을 퍼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찾아 내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확대시키기만

하면 파괴적인 것이 될수 있는 사건이나 특성을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선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인정하는 기본 원리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다시 강조하여, 건전한 대화와 가르침을 위한 도구나 기초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식구나 이웃이나 교사나 지도자를 혹독하게 비난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선하고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할 때 가족의 충실성은 나타나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심한 비난으로 자신을 과멸시키거나 개인의 발전이나 교회의 발전을 저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섯 분의 미합중국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버나드 바루치씨는 적대자의 공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무도 저에게 창피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을테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혹독히 비난하는 데 시간과 경력을 쏟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끈경에 처할 때 침묵을 지키도록 조용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이 혹독한 비난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혹독한 비난은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라.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좇으라...”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모로나이사서 7:46~47)

아마도 사랑이란 여러 가지로 오해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 왕은 자비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회 이는 창과 살이요 저회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시편 57:4)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혀를 날카로운 칼같이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나 일반 개인이 이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혀를 잘못 사용한다면 음모와 파멸이 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파괴적인 행동은 후려갈기기라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후려갈긴다는 말을 결정적인 강타를 날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가족을, 공무원을, 지역 사회를,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혹독하게 비난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보편적인 행동에 빠져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들이 자녀를 혹독히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의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병자를 방문하거나 궁핍한 자들에게 음식을 전하거나 덜 가진 자들과 우리의 남은 것들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참된 사랑은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남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고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의 미덕이 심어질 때, 여러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혹독한 비난자가 되는 것을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범주 속에 집어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노하기보다는 좋은 의도가 있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거나 조용히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약점과 단점을 수용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 화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혹독히 비난하거나 지적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지지해 주고, 인내심으로 가르치며,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믿는 가족, 친구, 고용주, 그리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성취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왜 서로를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사탄이 말일에 쓰는 책략의 하나가 사람들 가운데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임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우리 이웃의 결점을 갖고 놀려대거나 그것을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서로의 흠을 들추어 내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물론 경은 모든 분노와 악의, 탐욕과 증오가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밝혀 줍니다.

니파이는 말일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니파이서 28:20)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뉴스 매체에 묘사된 내용에 의하면 사탄은 활동을 썩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종종 탐욕, 강탈, 폭력적인 성범죄, 그리고 기업의 경쟁자들, 라이벌이 되는 운동 선수들, 또는 정적들 사이의 모욕에 관한 생생한

장면, 다시 말해 원색 그대로 묘사된 장면을 너무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을 통틀어 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산상 수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번째 설교였습니다. 구세주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러 면에서 그분에게로 나아오는 것에 관한 가장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이 주제는 사랑, 동정심, 용서, 오래 참음 등과 같은 미덕,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더 많은 인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이사도들에게 주신 구세주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봅시다. 그들과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고”(마태복음 5:24) “너를 숭상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며”(5:25)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하며 (우리를)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5:44, 영문 참조)는 훈계를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또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5:39) 대라는 명을 받았습니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부름받은 사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택한 첫번째 원리들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과 보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하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한 그룹의 성인 말일성도들과 가진 비공식 노년의 모임에서 말씀을 하던 지도자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45분 동안 참석자들은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였으며, 지도자는 주의 깊게 큰 칠판에다 그 대답을 하나 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니다. 모든 답변이 사려 깊고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 훌륭한 교사는 사기가 적은 것을 모두 받아들이길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가장 좋고, 가장 명확한 지표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잠시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친구를, 그리고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때때로 강조하는 매우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복음 원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지난 달 상호부조회는 창립 1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의 모토는 전세계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의 방법이 되어 왔습니니다. 만일 우리를 각자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며 위로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와드에서,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 또는 신권 정위원회와 보조 조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며 동시에 매우 도전적인 계획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 젊은 자매가 회장단 모임에서 화를 냈습니니다. 그 자매의 불쾌감의 원인은 현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중요한 임무에 대해 가정에서 심한 압력을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는데다 좌절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탈진해 있다는 사실에 더 관련이 깊었습니다. 잠시 후 그 자매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당황하였으며 즉시 자신의 감정을 폭발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장단에서 함께 일하는 그 자매의 동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으며 그 자매에게 격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매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본 이상, 자기를 낮추어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무렵에 현관의 벨이 울렸으며 그 현관에는 회장단의 다른 자매들이 음식을 갖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자매님이 화를 내셨을 때 틀림없이 지켜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음식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지요. 우리가 자매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매는 놀랐습니니다. 그날 아침 자신의 감정 폭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구들은 비판은 커녕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매를 혹독하게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육하고 사기를 높여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십시오. 사업이든, 운동이든, 또는 다른 어떤 분야이든 여러분의 경쟁자들에게 공경하십시오. 험박이나 음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케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에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외로운 사람들 또는 짐진 자들을 도와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우리 각자가 당면하는

독특한 문제를 이해한다면, 저는 우리가 더 큰 사랑과, 인내와 관용과 보살핌으로 훨씬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결점을 찾고 혹독하게 비판하며, 음해하거나, 비판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조롱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는 싸움에서 절반은 이긴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비록 이같은 행동이 중죄에 빠지는 것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이나 비판이나 다툼이나 혹독한 비난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없습니니다.

성경 시대에서조차 야고보는 우리에게 허를 다스릴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이와 같이 허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야고보서 3:5-6)

저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그분에게 헌신할 때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인내심, 친절, 부드러운 포용심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개심의 시작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들이며, 모두가 능력껏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혹독한 비난으로 파멸시키기 보다는 사랑과 격려가 담긴 조용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도록 합시다.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음 말을 상기시켜 줍니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8)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단체로나, 오늘뿐 아니라 언제나 혹독한 비난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길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데스 지 캡 자매님의 남편되시는 히버 비 캡 형제님이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캡 자매님을 본부 청녀 회장직에서 해임합니다. 또한 우리는 캡 자매님의 두 보좌인 제인 비 델런 자매님과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님과 본부 청녀 임원회의 모든 임원을 해임합니다.

이 자매님들에게 그들의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님을 본부 청녀 회장으로,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님을 제1보좌로, 패트리시아 피 피니거 자매님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로 모두 지지를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으로 새로 부름받은 자매님들은 지금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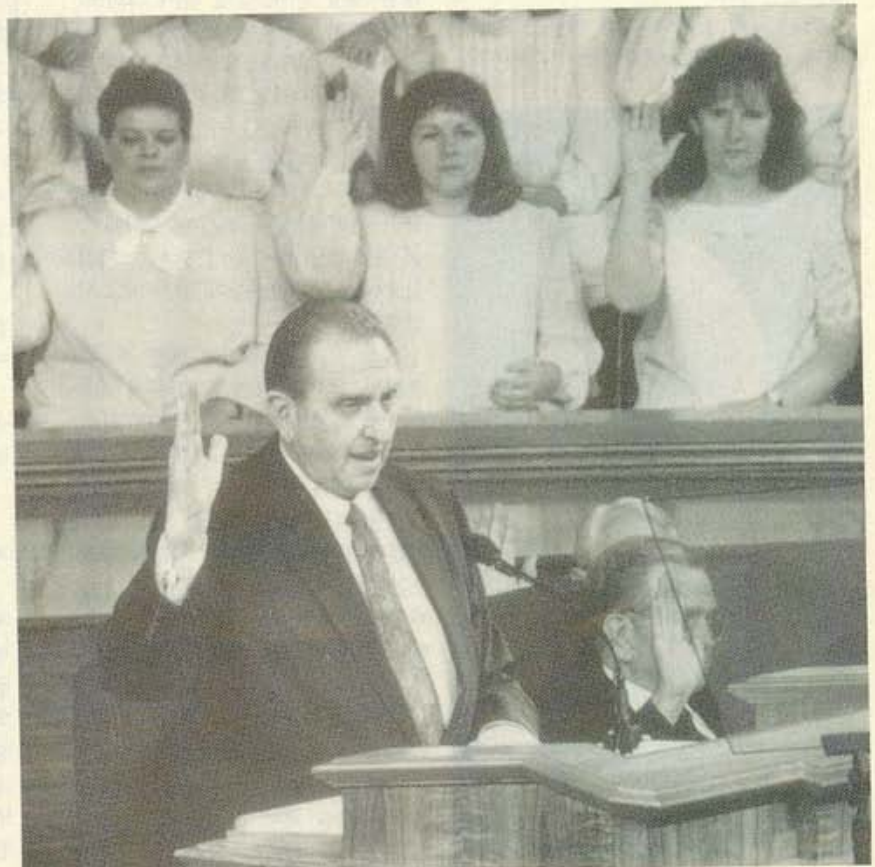
형 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보고자 : 테드 이 데이비스 교회 감사 위원회
수신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1991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감사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직원, 고용인 및 운영 기구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책임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입수해 왔습니다. 우리는 1991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간의 교회 예산, 회계 및 감사 체제, 이와 관련된 재정 결산 명세서를 포함하여 기금의 영수와 지출에 대한 관리의 합당성과 교회 및 교회 조직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연간 교회 기금에 대한 지출은 계시에 의해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출 위원회와 예산 위원회는 승인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요한 지출을 집행합니다.

감사부 직원은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와 이와 유사한 자격을 지닌 감사자로 구성되며,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감사부는 전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든 운영 기구에 대한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교회 재정 기록부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교회 소유 및 운영 재단 법인 사업체는 교회내의 감사자나 독립된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감사 기관이 감사합니다. 지역 단위 조직에 대한 감사는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지역 감사 절차가 제정되어 있으며, 교회 감사부가 감사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재정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우리의 조사와 감사 보고서 및 감사에 대한 회신에 의거하여 우리는 예산, 회계, 감사 및 관리 절차가 교회의 자산과 채무를 위해 합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간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모든 기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

여러분의 진실한,

교회 감사 위원회
데이비드 엠 케네디
매릴 제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1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통계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91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837
지방부 수	527
선교부 수	267
와드 및 지부 수	18,810
(본 통계는 1991년 한 해 동안 53개의 스테이크와 720개의 와드와 지부가 증가했음을 보여 줌)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와 지역의 수	138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 수	8,120,000
1991년 동안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75,000
1991년 동안 침례받은 개종자 수	297,770

선교사

복음 선교사	43,395
--------	--------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 조셉 앤더슨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 프랜시스 라루 카 룡든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보좌 역임. 심이사도 보조를 역임한 존 룡든 장로의 미망인 ; 레온 왓슨 독서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보좌 역임 ; 윌포드 지 에들링 형제,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일꾼은 적으니”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수년 전만 해도 꿈조차 꿀수 없었던 나라들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복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엘마서 4장에서 우리는 이 책에 담겨 있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판사 치세 팔년에 교회 회원들이 저들이 힘써 일해 얻은 엄청난 부와 값진 비단과 잘 짠 새마포와 풍성한 양떼와 가축과 온갖 금은 보화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러한 물건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 저들은 참으로 값진 의복으로 치장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러한 사태는 엘마와 엘마가 임명하여 교회를 돌보게 한 교사나 제사, 장로 등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들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매우 통탄해 하였느니라”(엘마서 4:6~7)

엘마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엘마는 대제사의 자격으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 했으며, 또한 재판사의 자격으로 그 땅의 법을 집행했으나, 백성들의 사악함이 더해지자 그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임무에 자신의

시간을 계속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결정에 관한 엘마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마는 교회의 장로 가운데서 현명한 사람 하나를 택하여, 저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제정한 법대로 백성의 악행과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백성들의 투표로 결정하여 부여하였으니, 그가 바로 니파이하라고 하는 자요, 재판사직에 올라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자였더라.

“이 때에 엘마는 니파이하에게 교회의 대제사직은 물려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대로 대제사 직분을 맡았으며, 백성들을 다스릴 판사 직분만을 니파이하에게 넘겨 주니라.

“엘마가 이같이 행함은 저의 백성, 곧 니파이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자만과 교활함과 불화를 막으려 하였으니, 이는 오직 순수한 간증으로써만 저들을 다스려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 (엘마서 4:16~19)

엘마는 인생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었으므로,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들지 않게 해줄 행동 강령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초에 주님은 지상의 첫 부모들을 위해서 계명과 성약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잘 준수한다면 슬픔과 불의에 찬 삶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류를 괴롭히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영적, 정서적 및 육체적 문제점으로 인해 비롯되는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죄로 인해 생겨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의 에스겔은 주님이 그분의 양을 먹이는 일을 돕지 않았던 자들을 나무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옛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에스겔서 34:6,8,11)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와 같은 탄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35~38)

예전에도 그랬듯이 주님의 포도원에는 일손이 모자랍니다. 근래에 들어 모든 합당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예언자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수천의 젊은이들이 예언자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숭고하고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전진해 왔습니다. 그들이 거둔 수확은 참으로 팔목할 만합니다.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 예언자의 부름은 또 한번 복음을 전파하도록 여러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게 했으며, 무리는 모두 성도들의 단합된 기도의 힘이 가져오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나라들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복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합당한 젊은이에게 예언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뿌리를 내려야 할 장본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다가올 영원의 세계에서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해지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최근 오클라호마 주 틀사 선교부 선교부장이 선교사부에 보낸 편지 가운데 몇 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귀환한 윌슨 씨 부부는 회원들을 재활동화시키는 데 대단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두 부부가 성전에 갈 수 있게 했고, 18번의 침례식을 가졌으며, 네바다 와드에서 봉사한 일년 동안 활동 회원의 수를 평균 136명에서 180명이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봉사 지역으로 온 그들은 새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이 차로 사만 육천 킬로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 부부는 진정으로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을 강화시키는 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귀환해서 세인트 조지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 시기에 또 한번 선교사업을 나가고자 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윌리엄스 형제님은 레바논 지부의 지부장입니다. 윌리엄스 지부장과 자매는 회원들을 재활동화시키고 마을에 계보 도서관을 설치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은 젊은 장로들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며, 장로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윌리엄스 지부장님은 장로들과 더불어 구도자들에게 복음 토론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새 도서관을 개원한 이래, 저는 회원 및 비회원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일에 몹시 분주했습니다. 지역 계보 도서관 협회(전원 비회원으로 구성되었음)는 우리 교회에서 매월 한번씩 만나 계보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새 도서관과 훌륭한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각 구성원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우리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지만 저는 언젠가는 귀환해야 하니까요!”

호주에서 봉사한 프라이어스 가족에게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요청을 드리며, 여러분의 감독과 지부장에게 모든 합당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아갈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당부드립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청녀들의 봉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청녀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들이 주님의 봉사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장로들에게 부여된 그것과는 다르지만, 그렇더라도 사심없는 희생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매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킴벌 대관장 말씀, 솔트레이크 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1, 30쪽)

이렇듯 용감한 청녀들은 선교 지역으로 나아가 주에 대한 굳건한 간증을 갖고 진실된 봉사를 하며 신앙과 확신으로 복음을 가르칩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해야 하는 것 외에도, 부부 선교사들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선교부를 방문할 때마다 선교부장들은 좀더 많은 부부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정 능력이 있고 강한 간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인격적으로 완성된 부부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면 선교사업이 훨씬 활발하게 행해질 것입니다.

봉사를 할 기회가 그처럼 많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을 도와 줄 경험이 풍부한 부부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잘 가꾸고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가라지가 성장해 좋은 식물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숙한 부부들은 교회의 와드 및 지부에서 수년간 공부하고 가르치며 관리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은 전세계적으로 유순한 새 식물들이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꺾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이 생애동안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튼튼한

“한참 성장기에 있고 변화하고 있는 손주들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교 사업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들과 어린 손주들이 매일 밤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매일 도움과 영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때 우리 가족의 유대는 결코 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 선교사 연령의 모든 독신 성인과 특별히 생의 원숙한 경지에 있는 부부 여러분께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역사의 장에 어떠한 행적을 기록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생의 기록을 세상에서 취득한 보트나, 여행시 취침 가능한 자동차나, 혹은 개인적 만족과 쾌락을 위한 여행과 오락 등에 관한 슬라이드 필름 및 비디오 등으로 장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구세주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느낀 기쁨을 개인 역사 가운데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열매가 그랬듯이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저들이 자신의 임무를 깨닫도록 하며, 저들 가운데 있는 교만과 교활한 마음 및 불화를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간증으로 저들을 다스려 돌아서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감독 및 지부장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부부 선교사를 한 쌍씩만 부름을 받게 한다면 세계적으로 8천명의 부부 선교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일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훌륭한 이름이 현세에서나 다가올 영원의 세계에서나 결코 잊혀지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부름에 응할 것을 권고드리며, 또한 발은 무르익어 추수할 때이므로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수의 일꾼을 보내시길 간구드립니다.(교리와 성약 4:4 참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환난중에 인내함

안셀 아브레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놓인 커다란 과제는 환난과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 조직된 교회에 핍박이 점점 심해지던 당시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24:8)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요한복음 16:33)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듯이 환난과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잠시 머물게 될 이 영원한 세계의 한 부분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놓인 커다란 과제는 환난과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내를 하나의 개인적 품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중에 사람은 이를 이해하게 되고 점차로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리버티 감옥에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돌발 사태가 생겼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많이 지라고 우리의 어깨를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5쪽)

우리는 영성을 저하시키는 불평이나 실망을 하지 않고 고통과 슬픔을 견디내기 위해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에 처해서도 인내해야 하며, 이에 관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았을 때와 똑같은 자세와 정신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너희 형제인 레이만인들에게로 가서 오래 참으며 고난을 견디며, 고통을 이기며, 고통을 이기면서 내가 가르친 훌륭한 모범을 저들에게 보여, 내 말을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 손의 도구로 삼아 많은 영육을 구원하리라.”(앨마서 17:11)

그처럼 위대한 목표를 향해 여행하는 동안 인내는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참고 견디라.”(교성 67:13)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치유되거나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능동적인 인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겠습니다. 그와 같은 인내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 참고 선을 행하여..."(로마서 2:7)라는 글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생활 속에서 인내를 실천하는 것에 관해 영원한 시각에서 가장 잘 정의한 것으로 베드로의 다음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베드로전서 2:20)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속시켜 나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그 인내에 관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굳게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말라기 기록한 다음 약속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라기 3:18)

충실한 어느 자매님의 아들이 선교 사업 도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님의 마음에 생겨나는 계속되는 의문과 믿지 않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선교사로 훌륭하게 봉사하던 착한 내 아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내 아들은 주님께 봉사하고 있었으며,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는데... 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아들을 잃은 그 자매님이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또한 그 해답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제 아들과 다시 만나서 함께 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이 자매님의 대답은 니파이로 하여금 "...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나이다."

(니파이일서 11:17)라고 말씀하도록 영감을 준 영과 똑같은 영에 의해 영감받아서 한계 아닐까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확신을 갖도록 하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모범적인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위협에 처해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 가운데 간증으로 가득한 인내를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감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린도후서 4:8~10, 14, 16~17)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크나큰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도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고 간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리스도는 어려운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인내하는 생의 표준과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빈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란 말로 기도를 끝맺습니까?

잔으로 상징될 수 있는 질병, 고통, 근심, 실직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과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들은 "...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생의 여로를 걷는 중에 때로 우리는

회의론자들의 비판, 누군가의 증오, 다른 사람들의 거부, 많은 이들의 성급함, 혹은 친구의 배신 등과 더불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변치않는 신앙과 간증을 통해 "... 그러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담대히 따르겠나이다."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833년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 환난과 핍박으로 상속의 땅에서 쫓겨난"(교리와 성약 101:1) 성도들을 다음과 같은 소망과 평안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 너희 마음을 놓을지어다. 모든 육체는 내 손 안에 있나니,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리와 성약 101:16)

말을 더디하며 커다란 환난의 때를 당한 예녹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져 내가 말하게 해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네 수중에 있어 내가 좋을 대로 행할 것임이니라."(모세서 6:32)

한편 시련의 순간에 있던 요셉 스미스에게는 그의 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 네 길을 계속하라... 저희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넘을 수 없음이라."(교리와 성약 122:9)

"모든 육체는 내 손 안에 있나니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좋을 대로 행할 것임이니라." "저희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넘을 수 없음이라." 등과 같은 이 중요한 권고의 말씀은 이들이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간증을 담고 있으며 또한 그 자체가 간증이라 할 수 있는 원리에 기초를 둔 이러한 말씀들은 시련을 겪을 때에 참용성과 인내심을 키우도록 동기를 심어 줄 것입니다.

구세주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요한복음 17:3 참조)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지식과 그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6쪽)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함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맥콩키

여러분의 생활을 정돈함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철심인 정원희

장로님은 이에 대해 “...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하며, 그분이 느끼시는대로 느껴야 하는 것” (신약전서 교리 주해서, 3권,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73년, 1:762) 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삶의 시련을 인내로써 견딜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니파이의 표현대로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다고(니파이일서 4:1 참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고 또한 간증할 수 있으며, 리하이와 같이 “...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로 이루어졌”(니파이이서 2:24)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한 굳건한 간증과 더불어 그와 같은 지식에 입각하여 충실한 말일성도는 자신이 정한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스스로 세운 시간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당면한 난관들을 잠재우기 위한 위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각에 따라 약속이 성취되기를 인내로써 기다립니다. 주님은 “... 인간들에게 정해진 시간을 모두 알고”(엘마서 40:10) 계십니다. 충실한 말일성도는 “...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교리와 성약 88:68)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요셉 스미스의 간증, 히브리서 11:1) 신앙을 행사하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여러분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시기에 있을지라도 신앙 안에서 참을성 있게 견딘다면, 소망과 평안의 축복이 찾아올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암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던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스미스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좀더 굳건히 서서 좀더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치른 고통과 환난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73쪽)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호트러진 삶이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스스로를 내맡겨 버림으로써... 그것들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현 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서신 왕래가 빈번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딸 아이 하나가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단락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간호원이 다 되었습니다. 여섯 아이들 중에서 네 명이 독감을 앓고 있으니까요. 제 꿈은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데서 간호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족 가운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없지만, 저희 모두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말이지 싫습니다.” 그런 다음 딸은 굵은 글씨로,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다 읽고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한 미소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희 자녀 모두는 숨쉴 틈조차 없이 바쁘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인생의 “고속 차선”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어요” 라는 마지막 글귀가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그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해 갔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다가 저는

생활을 잘 정돈하는 것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귀가한 그는 현관에 서서 매우 어수선한 집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소년은, “엄마 집에 계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기 어딘가에 계시잖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잖나”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일만 아니라면 우습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호트러진 삶은 큰 슬픔과 비통함을 자아내며 상심하여 눈물을 짓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소위 인생의 “고속 차선”을 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려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호트러진 삶이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스스로를 맡겨버림으로써 그것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좀먹고 여러분을 통제하여 여러분의 행복과 영원한 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인해 호트러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 즉 우리가 수집하는 물건 같은 것들은 명확히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저는 물질적인 것에 우선 순위를 정립하는 방법, 즉 그것들을 선별하여 그 가운데 일부는 버리고 나머지는 잘 정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면서 저는 물건들을 이 상자에서 저 상자로 옮겨놓고 어떤 것들은 이곳 저곳에 쌓아 두는 일을 하는 데 9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해냈을 때 저는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실제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

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의 제가 어떤 것들을 처분하기 전에 최소한 그것들을 100번 정도는 이리 저리로 옮겨야만 하는 잠재적인 규칙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보다 더 낮게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은, 우리도 자신의 주변을 물질적인 것들로 둘러싸이게 한 나머지 영적인 것들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는 여러가지 멋지고 재미있는 유희 기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호트리지게 하며 시간을 소모시켜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다 복잡 미묘하고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곧 우리를 장악하고 맙니다.

저는 어떤 미묘한 것,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우리를 혼란시키거나 또는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의심치 않는 어떤 감추어진 미묘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탄이 빠르게 그의 일을 추진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무언의 동반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이 만족스러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묘한 수단을 써서 사탄이 우리의 무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쳐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일에 삶을 바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며,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바치는 일에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해결의 관건이 일들을 분류하여 보다 잘 정리하는 데

있다는 생각으로 산적되어 있는 일들을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생활을 정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일을 보다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복리와 행복 및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일들의 기본적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복음의 양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를 성결하고 완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과 단지 원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를 영감을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단함으로써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와 욕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것에 대해서 보다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고속 차선에서 머물려고 하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즉, 일, 야망, 대인 관계, 기타 우리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습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의 최상부에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개개인의 물질적, 영적 복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 시간도 내고 생활의 균형도 맞추어야 하겠지만 가족 구성원의 영적, 물질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노력을 해야 하는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일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본보기이며 교회와 사회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자신의 신성한 역할을 소홀히 해서 안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흥미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활동이라도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돌보아 주는 데 방해가 되는 활동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직함은 이 생이 지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 모든 칭호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활을 호트러 뜨리며,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얻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은 흥미를 유발하고 유희적인 일들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분향으로 돌아가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하등의 가치도 없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혹은 무엇에 있든지간에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랬든지 혹은 무엇이 그렇게 했든지간에 가족이 분열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가족이 분열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의 동기, 감정, 생각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내게는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뜻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곳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지나가면서 그분께 단순히 손을 한 번 흔들어 보이는 것과 같이 가끔씩 하면서 중언 부언 하는 데다 서둘러 끝맺어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 여러분이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즉,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오는" 진지하고 정직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절차가 포함되는 개인적인 기도으로써 시간을 갖고 명상하면서 응답이 오길 기다리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면서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나는 경전을 공부하는가?"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리하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쇠막대를 보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11:1-23 참조)
쇠막대를 잡아 언제나 이를 하나의 안내자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안개 속을 무사히 헤쳐나가 나무에

이러리 그 영화로운 열매를 취했습니다.
(니파이일서 8: 19, 30 참조)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공부하십니까?” 저는 성스런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께 엄숙히 간증합니다. 끊임없이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쇠막대를 굳게 잡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은 여러분을 생명 나무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인생을 돌려 받고 싶어요”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생명 나무로 나아가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정돈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달의 왕국의 일들을 행하느라 너무 바빠서 해의 왕국의 일들을 행할 시간이 없게 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원리의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율법은 순종하는 이에게는 자동적으로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불순종하는 이에게는 자동적으로 형벌과 불행을 안겨다 주는 율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생활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정리하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력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도적질해 가며 하나님의 행복과 승영의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 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앗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 자유의지로 다스리십시오. 인생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므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사의 기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흐트러진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곧으며 성령에 의해 환히 밝혀진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사탄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서 밝고 청결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칠십인 정원희

“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동안 제한되는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따뜻한 손길과 열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1985년 12월 대관장단에서 하신 권고의 말씀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탄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이 교회의 회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오는 축복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며 아울러 모든 지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심심한 사의와 사랑을 표합니다.

“우리는 비활동된 회원들과, 비판적이거나 남의 허물을 캐는 경향이 있는 이들과, 심각한 죄로 인해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파문이 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영으로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 10)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이들을 용서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교회 활동이 저조하시거나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 된 분들에게 우리는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와 주님의 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성도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우정 증진이라는 달콤하고 보람있는 열매를 취하십시오’(돌아오라는 권유, 처치 뉴스, 1985년 12월 22일, 3쪽)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교회 활동을 주로 재미있는 게임 등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상 이 활동에는 피상적인 인식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선도 조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외감과 고독함을 실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만 그 선도 조치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파문의 경우 소외감과 고독감은 단순한 느낌 이상의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 사람의 이름이 교회 회원 기록부로부터 삭제되고 침례 및 안수시에 주어졌던 성신의 은사가 철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하면서 소외감과 고독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도시나 공항, 기차역, 혹은 그와 유사한 곳에서 수백, 심지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가정에서 특별히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자녀로서, 심대의 청소년으로서, 혹은 성인으로서 다른 식구들과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고 느끼신 적은 있으십니까? 교회 모임이나 학교 수업 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에도 고독이나 쓸쓸함을 느껴 보셨습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활동이 저조한 이들을 참여케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활동이 개인을 인정해 주며 형제에 및 자매애의 안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완전한 자격을 갖추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회복될 날을 고대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까?

다양한 가족, 신권회, 상호부조회 혹은 워드 및 스테이크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우리 모두가 세상이 제시하고 조장하는 여러 육욕적이고 저속한 활동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2. 개인과 그룹을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나이, 사회적 신분, 교회 부름 등에 관계없이 모두를 참여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3. 활동 회원, 활동이 저조한 회원, 혹은 완전한 회원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

4. 사람들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을 느낄 때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지나간 허물을 잊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나 남의 허물을 잊지 않을 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신다, "옛날에 있던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기회를 노리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이 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한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 : 8~9)

자신을 돌보아 주는 이의 사랑과 친절과 용서에 힘입어 교회의 완전한 회원으로 되돌아올 때 느끼는 기쁨은 거의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정도에 대해서는 물몬경에서 엘마가 암몬을 만나기로 약속한 곳에서 기쁨에 넘친 대면을 했을 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암몬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넘치는지라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기쁨으로 인해 힘이 다하여 또다시 땅에 쓰러졌으니,

"이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 보라 이것이 바로 진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소속감을 갖거나 또는 우정 증진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우에 있어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이나 소속감은 누군가가 우리들을 그들의 교우 관계와 활동의 테두리로 초청할 때 오는 것입니다. 활동은 단순한 흥미와 게임의 범주를 훨씬 뛰어 넘어서 최소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증진시키는 지극히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때 활동은 사랑과 자비, 친절, 용서, 봉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시키는 하나의 또다른 방편이 됩니다. 앰울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애롭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제하는 자가 쓸모가 없어 털어 내버리는 찌꺼기와 같으리니."(엘마서 34 : 29)

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 동안 제한되는 사람들은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자신을 감싸 주는 따뜻한 손길과 열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의 밤이나 저녁 식사, 사교 모임,

합창단, 노년의 밤, 연극 발표회, 이익 단체, 스포츠, 가사 활동, 가족 야유회, 워드 소풍, 재회 모임 등에서 따뜻하게 환영받을 때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었던 기간 동안 느꼈던 그들의 고통은 경감될 것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개인은 소속감 내지 누군가가 자신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정원회, 상호부조회 혹은 워드의 소속 회원들과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 경우 교회 활동이 제약되었던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들의 고통은 또다시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그들의 방관자의 모습으로 예배와 공과에 참여해야 할 입장이라는 하지만,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안식일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몇 가지 중대한 사항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 여러분의 가정과 정원회 및 상호 부조회 혹은 교회 조직에서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다시 완전한 우정 증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을 구하는 자 외의 누구도 얻지 못할 기쁨이니라.”(엘마서 27:17~18)

활동은 단순한 흥미와 게임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일 수 있으며, 순간의 쾌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완전의 길로 이르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계획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를 실행할 때, 이 활동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해 오셨던 열 세분의 현대의 예언자들이 퍼신 행정 가운데, 활동은 말일성도 생활 방식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활동은 배타적이기보다는 포용하며, 방관하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며, 역경 가운데 기쁨의 순간을 발견하고, 소외나 반목보다는 융화와 단합을 증진시키며, 성도들 및 하나님의 권속들과 다시 우정을 증진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이고 비편파적인 의견을 제공해 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다음 대관장단 메시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면서도 어색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고 도움의 손길을 펴줄 사람들을 반드시 찾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절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 분들께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우리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며, 또한 사랑과 감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대관장단.”(“돌아오라는 권유”, 3쪽)

저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권고합니다. 돌아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맛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학대로 인한 비극적 상처를 치유함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은 여러분의 의사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이 행한 파괴적인 결과를 극복할 방법을 주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관계없이 학대라는 흉칙한 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아주 조심스레 다루어 할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성신이 저희를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잔인한 일들에 대해 주님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의해 치유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는 여러분께 심각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여러분은 그러한 학대 가운데 일부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공포심, 우울증, 죄, 자기 혐오, 자존심의 파괴 및 정상적이지 못한 대인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계속되는 학대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항, 분노, 그리고 증오의 감정이 강력하게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종종

자신이나 타인 또는 인생 자체,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항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불의에 저항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이는 마약 남용, 성적인 문란함, 가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비극적인 자살로 치닫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감정은 실의에 찬 삶,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혼 생활,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타인을 학대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무서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점차 타인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는 것으로 이는 치유에 장애가 됩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율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대는 여러분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은 자유의지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해를 입히려 하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여러분의 의사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이 행한 파괴적인 결과를 극복할 방법 즉 공의의 원리에 따라 보상하는 방법을 주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은 신권의 도움과 더불어 영원한 진리를 적용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파멸시키겠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과 고뇌와 심지어는 신체상의 해악까지도 겪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짧지만 중요한 이 지상 생활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가능성 만큼은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학대로 인해 생겨난 유해한

결과를 극복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생활에서의 선을 향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 하는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율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회를 탈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과 주님의 속죄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좌에 있거나 여러분을 지배하는 이에게 두려움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함정에 빠져 탈출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불의한 영향력이나 보복의 위협 혹은 여러분을 학대하는 가족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기리라는 공포등에 사로 잡히기를 원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야고보서 1:6, 이노서서 1:15, 모로나이서 7:26, 교리와 성약 8:10, 18:18)

다른 사람들의 폭행, 성도착 또는 근친상간 등의 행동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 여러분에게 심한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 책임이 없으시며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학대로 인한 상처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처를 영원히 남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영원한 그러한 상처들은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해야 할 바를 다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함

여러분이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학대를 받으셨다면 바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믿고 도움받을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신 여러분의 구세주께 먼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의 계명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권 지도자 즉, 감독이나 때로는 스테이크

부장단 등이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권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7쪽)

감독님께 여러분의 비밀을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써 쓰이도록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시킬 교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영감받을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권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지지해 줄 믿을 만한 친구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감과 자존심을 다시 갖게 해 줄 것입니다. 학대가 지나칠 경우에는 감독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구세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적절한 보호책과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원리

다음은 여러분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치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온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지상의 부모, 배우자 혹은 헌신적인 친구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여러분의 만행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으십시오. 니파이인들에게도 그러하셨듯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내가 너희를 가엾게 생각함으로, 나의 가슴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너희에게 병 고침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이 있음을 알았음이라.”(니파이삼서 17:7-8)

최선의 치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구세주의 사랑을 통해 마음이 온유해져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게 할 수 있는 학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경은 육체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고의로 자행되었을 지라도, 영원한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2:7)

피해자는 학대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공포 혹은 범죄자가 휘두르는 무력이나 권력에 불가항력이었기에 무고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이 겪은 학대에 대한 부분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평가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씨앗은 싹이 터서 못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편 전혀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학대에 동의함으로써 빚어진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치유력은 완전한 치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1-4 참조) 학대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앙개조 1:3 참조) 그런 연후에야 자존심과 자기 가치의 회복이 이뤄지며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여러분을 학대한 사람에게 복수나 보복을 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집중시키십시오. 범죄자의 징계는 사법 당국과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결국 죄인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학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 및 약탈 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해 물품 공급자와 비도덕적이고 타락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함으로써

자신의 부패된 생활을 정당화하는 약탈자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는 것이 나으니라.”(마태복음 18 : 6)

치유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복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개선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이는 더욱 빠르게 진척됩니다.

용서

대수술 후 오랜 회복기를 거치면서 환자는 다른 사람들의 병간호에 신뢰를 두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환자가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치료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회복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학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용서를 하기로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판을 자제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학대자들도 한 때는 무고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회개로 가는 길은 그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정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고통이 완화되고 있음을 느낄 때 가해자를 완전히 용서하기가 한층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미 행해진 일을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4 : 10 참조) 용서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처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미움이라는 독성분을 말끔히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복수심을 정화시킵니다. 용서는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을 자리잡게 해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꺾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니파이삼서 12 : 44)

비통해 하고 증오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파괴를 낳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열망하는 구원과 치유를 더디게 합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학대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라는 권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치유시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치유는 여러분을 축복할 영감과 권능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신권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

저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를 더 가져올지도 모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치료법에는 관여하지 마시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1.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 관해 세부 사항까지 지나치게 조사하는 것, 특히 그룹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
 2.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이 모든 학대자에게 있는 것 처럼 비난하는 것.
- 중요한 과거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치료 과정에 긴요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묻혀졌고 관용으로 잊은 채 기억하지 않던 과거 행적에 대해 거의 병적으로 파헤치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시 상처를 긁어 터뜨려서 이를 끄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은 피해자의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한 유도 질문은 실제적이기 보다는 상상적이거나 환상적인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범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치료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후일 허위로 관명된 바 있는 죄목으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기억, 특별히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성인들의 기억은 불완전한 수 있습니다. 허위 비난 역시 죄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좀더 간단한 말씀드려, 만일 누군가가 한 통의 오물을 고의로 여러분의 카펫에 부었다면, 여러분은 더러운 얼룩을 남긴 각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 얼룩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대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는 일은 신뢰받는 신권 지도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필요하다면 신권 지도자가 추천하는 유자격 전문가와 더불어 이뤄져야 합니다. 학대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만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더 많은 폭력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참됨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이는 사악한 학대로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충만한 삶을 부어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활용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 영원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만약 한가닥 희망만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가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 유지 장치를 설치하는, 주님을 향한 끊어질 수 없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하기를 그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더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모로나이서 7 : 26, 33 ; 물몬서 9 : 27) 지금 여러분의 감독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결정하십시오. 학대의 상처로 어두워진 안경을 통해 생활의 모든 경험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삶에는 아름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구세주의 사랑을 맞이하십시오. 지극히 고통스런 생각들이 되살아나면 구세주의 사랑과 치유의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낙심은 평화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뇌의 장을 덮고 행복이라는 새 책을 펼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상호부조회와 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모범과 봉사를 통해 축복 받았습니다.”



올 해 우리는 1842년 3월 17일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조직된 상호부조회의 창립 150주년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있었던 경축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대륙에 위성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고찰하고 상호부조회의 세계적인 자매애를 경축하는 서적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와드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는 각자 해당 지역 사회에서 봉사를 통해 경축하고 있습니다. 문명 퇴치를 피하기 위한 전반적 계획이 올해 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이 경축 행사를 지도하고 계시는 엘레인 엘 잭 상호부조회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 및 역원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이전의 지도자들과 역원들의 노고와 업적에 감사를 표합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모범과 봉사를 통해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네 세대에 걸쳐 상호부조회의 봉사를 통해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즉 제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들이 이곳에서

봉사했거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가운데 가장 생생한 것은 할머니께서 옷을 단장하시고 농장을 떠나 시내로 가서서 결의에 차 기꺼이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하시던 모습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비와이유 스테이크 산하의 한 상호부조회 지도자로서 평생 동안 가족과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준비를 하던 수 백 명의 젊은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곳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러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저와 자녀들은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저의 아내인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사랑과 봉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후 비와이유에서, 저희는 딸들이 비와이유 지부의 상호부조회 지도자와 역원으로 부름을 받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희 온 가족은 상호부조회 봉사를 통해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창립 이래 줄곧 자선 봉사의 선봉이 되어 왔습니다. 첫 모임에서 엠마 스미스 회장은 “각 회원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 회의록”, 1842년 3월 17일, 13쪽, 앤사인, 1992년 3월 4쪽, 이후 인용부는 원본에서 발췌하여 회의록이라고 명명함)

이 초창기 모임에 관한 기록에는 자매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어떻게 얻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 주었으며, 그러한 이들에게 음식과 집과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 어떻게 기부했는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부를 떠난 지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상호부조회 원리로 훈련받은 자매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회의 한 모임에서 브리감 영 대관님장은 두 대의 손수레에 타고 있던 성도들이

와이오밍의 산악 지대에 내린 때이른 눈으로 꼼짝 못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즉시 구출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으며, 구조대가 태버내클을 떠나기 전에 많은 자매들은 산악 지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옷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스 에이 가드프리 편, *여성의 음성: 말일성도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 1830~1900년*, 솔트레이크 시티: 테저렛 출판사, 1982년, 269쪽 참조)

그 첫번째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해야 한다.”(회의록, 1842년 6월 9일, 63쪽, *교회 정사*, 5:25)고 가르쳤습니다. 후일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상호부조회를 조직한 목적의 하나는 여성들이 이 체제를 통해 종교적인 주제나 교회 교리 및 관리에 관해 연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단의 지시하에 자선 및 구호 사업을 펴는 것이 그들의 활동적인 일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여성들의 신앙의 발전과, 문학적, 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향상을 도외시하거나 바람직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6권,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75, 5:217)

후에 존 에이 윗소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인간의 활동과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 즉 가난, 질병, 의심, 무지의 극복 및 여성의 기쁨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기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임무입니까!”(존 에이 윗소, *증거와 화합*,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87년, 308쪽)

그 임무 가운데는 가르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30년에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엠마 스미스에게 예언자가 “경전의 말씀을 풀이하며 나의 영이 주는 것에 좇아서 교회 회원들 간곡히 권면할”(교리와 성약 25:7)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후에 그녀가 상호부조회를 인도하도록 선택받았을 때, 예언자이자 그녀의 남편인 요셉은 엠마 스미스가 “모두에게 경전의 말씀을 풀이해 줄” 것이며 “지역

사회의 여성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이 계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엠마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그와 똑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회의록, 1842년 3월 17일, 8쪽)

교회의 역대 대관장님들은 이 중요한
 가르치는 임무에 대해 재차 강조해
 오셨으며,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대단히 훌륭하게 이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나부 여성들의 발의로
 조직되었습니다. 자매들 간에 사랑을
 향상시키고 자선 봉사를 할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일단의 여성들이 엘리자
 알 스노우에게 규정과 부칙의 초안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요셉 스미스는 “서면으로 작성된
 법칙과 원리보다 더 훌륭한 것”을
 그들에게 줄 목적으로 자매들을 다함께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자매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회고 했습니다. “나는
 신권 조직의 형태에 따라 신권의
 관리하여 여성들을 조직할 것입니다.”
 (사라 엠 김볼, “자서전”, *여성의 규범*,
 1883년 9월 1일, 51쪽)

상호부조회가 발족한 후 첫 2년 간의
 모임 기록이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회의록으로부터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새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게 준
 지침의 근본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맞는 올해는 예언자의
 가르침을 회고해 보고 재강조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생 조직에게 준 첫번째
 공식적인 지침에서 예언자는
 “[상호부조회]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지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지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도 고대
 신권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회의록,
 1842년 3월 30일, 22쪽)

예언자는 주님께서 새로이 조직된
 대관장단에게 주신 초창기 계시의
 유익을 이 신생 조직에게도 주기 위해
 이렇게 권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우)이 십이사도 정원의 앨 롭 패리 장로와 러셀 엠 넬슨 장로의
 인사를 받고 있음.

“너희의 구원에 유익이 되도록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노라.”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9~10)
 상호부조회가 약속받은 축복은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주님이 정하신
 범위에 따라 행동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뒤 상호부조회 모임을 할 때 요셉
 스미스는 “자매들이 항상 신앙과
 기도에 열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존경하도록 택하셨고 교회를
 인도하도록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이들을 신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회의록, 1842년 4월
 28일, 37쪽) 물론 이러한 권고는
 신권에 관한 초기 계시에 그 지침을
 더한 것입니다. 그 계시는 모든 “권능
 또는 직분은 모두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있고” 이 신권은 “관리하는
 권한이 있나니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관리하는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다”(교리와 성약 107 : 5, 8)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호부조회와 그후 조직된 보조
 조직들은 항상 신권의 관리 권능의
 지시하에 그 임무를 수행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같은 모임에서 예언자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이 최근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호부조회의 ...
 현장”으로 규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앤서인, 1992년 3월호, 4쪽)

“이 상호부조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반차 즉 그분이 지도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통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회의록, 1842년 4월 28일)

여기서 예언자는 상호부조회가
 그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지침과 지시를 받아야
 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의 정의회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는 자치적이지만 독립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호부조회는
 전체 교회 조직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이지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예언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쇠를
 넘겨 드립니다. 이 상호부조회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이제부터는
 하늘로부터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상호부조회에 더욱
 훌륭한 날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의록, 1842년 4월 28일, 40쪽)

“열쇠를 넘겨 주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여성들에게는 곧
 이어 시행된 성전 의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언자는 그들의 자선 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특권에 따라 생활한다면 천사들은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록, 1842년 4월 28일, 38쪽)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예언자의 그러한 조치는 여성들에게 “특히 교회의 여성들을 위해 지시하고 다스리는 데 어느 정도의 신성한 권능을”(상호부교회지, 1965년 1월, 5쪽)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능과 신권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주님의 집에서 하는 일과 같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어떤 자매가 다른 여성에게 권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호부교회지, 1959년 1월, 4쪽)

권능에 관한 스미스 대관장의 가르침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상호부교회를 “신권 조직 형태에 따라 신권의 관리하에” 조직했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상호부교회 역원 및 교사들이 행사하는 권능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의 조직적인 연관을 통하여, 그리고 부름을 받은

신권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성별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권의 열쇠도 상호부교회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여됩니다. 신권의 권능과 신권의 지시하에 행해지는 관련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통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권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신권의 열쇠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주어졌습니다. (색인, 신권, -의 열쇠 참조)

감독의 신권의 권능하에 와드 상호부교회 회장은 와드 내 상호부교회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시합니다. 스테이크 상호부교회 회장은 자신이 부름받은 임무에 대해 이를 관리하고 권능을 행사합니다. 기타 보조 조직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성은 권능을 갖고 나아가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며,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여성은 그들이 부름받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능을 받습니다. 모든 일은 책임받은 지역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지시하도록 신권 열쇠를 부여받은 신권 지도자의 지시하에 진행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초기의 자매들에게 서면으로 쓰인 규정보다 더욱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권 권능하에 조직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적인 권세의 개념을 배척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를 구해야 했습니다.

초대 상호부교회에 주신 예언자의 지침을 숙지하면서 우리는 교회 역사상 그 초기에 더 오게 될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는 자매들이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 손을 얹는 일의 적합성 여부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 합당한 반차로 자리잡힐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직 합당한 반차에 따라 조직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뤄질 수 없습니다.” (회의록 1842년 4월 28일, 36쪽) 그 후 100년 동안, 성전이 거의 모든 회원들에게 개방되면서, 모든 성스런 의식은 “합당한 반차”에 따라

성전 내에서만 행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상호부교회의 관심사에 관해 특별히 강조하고 더불어 아버지와 어머니 및 신권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한 몇 가지 권고를 드림으로써 제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수 차례에 걸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앨사인, 1972년 2월호, 51쪽) 그러한 가르침은 여성들에게도 적용되며, 상호부교회 자매들은 그들의 가족을 가장 훌륭히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일성도 가정의 교사이자 봉사자이며 동시에 표준의 설정자이기도 한 어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그들이 영생을 향해 이 지상의 생을 살아가갈 때 절대적 영향을 미칠 최초의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이 모든 인류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신권을 가진 형제들을 “신권 소유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신권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거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및 어린 아이 등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남성은 신권과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여성보다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권 및 교회 행정,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9년, 83쪽) 예를 들면, 우리의 청년들은 청년들과 똑같이 신권 지도자로부터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의 적용을 소홀히 했습니다. 혹자는 교회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정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 신권 지도자들에게 행정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자매님들은 너무 지나친

에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매로서 우리와 똑같이 존경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성들에 관한 교회 교리나 가르침에 의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 우리들의 행동에 좀 모호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앤사인, 1979년 11월, 49쪽)

신권 지도자들은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가까운 동반자 관계로 서로 조화하는 가운데 일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보조 조직 지도자가 신권 지도자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달성할 때 주님의 지상 왕국은 번성할 것이며 개인의 삶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멜기세덱 신권 지도자 지침서, 1990년, 2쪽)

단합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 27)고 말씀하신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큰 기능 중의 하나는 신권 정원회가 남성들에게 형제애를 부여해 주는 것과 같이 여성들에게 자매애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자매애나 형제애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협동심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매애와 형제애에 대한 가장 지고한 표현은 남녀간의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관계만이 승영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 11) 그러므로, 우리 신권 정원회의 형제애와 상호부조회의 자매애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남녀가 함께 성스러운 결혼과 가족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 7)인 영생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신 구세주와, 필수적인 의식들을 집행하는 그 분의 신권의 권능과 하나님께 의로운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권 모임

“나의 종 요셉”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애언자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참아 내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되풀이하여 “나의 종 요셉”(교성 5: 7)이라고 다정하게 부르신 그 위대한 분을 중심으로 하여 몇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1820년에 요셉 스미스가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생명과 심지어는 우주에 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작은 숲 속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시작하였으나, 어린 요셉이 거룩한 신권과 엔다우먼트와 인봉의 권세 및 그에 따른 모든 열쇠를 회복받기 위해 그 성스러운 숲을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여러 교회 중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될지만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개인적인 인도만을 간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만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영원한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멀지 않아 그를 집어 삼키어 마침내는 순교하도록 만드는

꿈임없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그가 숲 속으로 들어갔었겠습니까?

요셉이 지닌 특성 중의 하나는 용기였습니다. 만일 이 용기가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를 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7살쯤에 한쪽 다리에 심한 염증이 생겨 절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보였지만, 새로운 의과 기술로 수술을 받을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시라는 권유를 거절했으며, 사려깊은 이 소년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아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지 않도록 방에서 나가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요셉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의사가 놀랍게도 수마일 밖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트머스 의과 대학 창시자이자 이 앞선 기술 분야의 개척자인 나단 스미스 박사가 바로 그였습니다.(리 로이 에스 위슬린, *브리검 영 대학교 학술지*, “요셉 스미스가 소년 시절에 받은 수술: 1813년의 의과 수술 성공담”, 21권, 1981년 봄, 제2권, 131~154쪽 참조, 또한 앤사인, 1978년 3월호, 59~60쪽 참조) 그는 수술팀을 지휘하여 요셉의 다리를 고쳤으며, 이로 인해 후일 요셉은 힘들기는 하였지만 시은 진영에 속해 행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서 은혜를 입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종종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질병과 두려움이 나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나를 폭도들에게 남겨 두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나를 구하기 위해 곤경에 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후자를 선택하고 그의 굵은 두 팔로 나를 들어 올렸으며, 습지와 어두운 지역을 지나면서 수시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우리는 안전한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요셉의 용기가 나를 구했던 것입니다.(뉴 이라, 1973년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 또한 그의 용기 못지 않았습니니다. “때가 지나”(모세서 7: 21 참조) 일어나게 된 회복이 이를 요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방문이 있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뒤따랐습니니다. 예를 들면, 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인 금관이 주어졌으며 뒤이어 수많은 어려움이 수반된 번역 과정이 있었습니니다. 성스러운 사도 직분의 열쇠가 회복되었으나 시온 진영의 의로운 자와 반기를 든 자들을 분별해 내는 행진과 그 후 십이사도가 부름을 받기 훨씬 전의 일이었으며, 역시 중요한 사건의 하나인 엘리야의 방문도 회복된 인봉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시온의 백성들과 성전이 준비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니다.

그렇습니니다. 요셉은 놀라운 많은 것들을 회복받았으며, 반면에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니다. 예를 들면, 하늘로부터 온 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폭도들도 자주 그를 괴롭혔습니니다.

요셉은 하늘 나라의 명사들과 친구가 되는 반면에 지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는 그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니다. 하늘로부터 열쇠와 은사를 받았는가 하면, 열 한 자녀 중 여섯을 잃기도 하였습니니다. 또한 지평선 저 너머에 있는 첫째 지체와 세째 지체를 엿볼 수 있는 계시가 주어졌으나, 이러한 정기적인 영광도 요셉이 둘째 지체를 어렵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어졌습니니다.

요셉은 많은 것을 헌신적으로 주었으나, 어떤 때에는 그에 대해 돌아오는 것이 너무도 작습니니다. 이에 대해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애석한 마음을 밝히셨습니니다. “요셉은 교회 형제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자 이들은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니다. 요셉이 순교한 후 그들은, ‘만일 요셉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의 혼계를 따를텐데’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니다.” (설교집, 10 : 222쪽)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기록을 읽다가 커틀랜드에서 심한 배도가 일고 있던 당시 요셉이 한 형제의 손을 잡고 한동안 놓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니다. 당시 친구가 별로 없었던 예언자는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친구라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니다.

요셉은 선견자로서, 고대 기록을 번역하는 은사를 부여 받았는데 (교회 정사, 1:238쪽 참조), 이 “선견자는 예언자보다도 뛰어난 자”(모사이사서 8: 13~17)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은 참으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사야 29: 14)이었으며,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기이한 기적”이었습니니다.

학자들은 번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1829년 당시 요셉은 하루 평균 오늘날 인쇄 분량으로 약 8~13페이지에 해당하는 양을 번역했다고 추정합니다. (존 더블류 웰쉬 팀 레스본 공저, “물론경 번역: 기초 역사 자료”, 예비 보고, F.A.R.M.S., 유타, 프로보, 1986년, 38~39쪽) 한 유능한 번역자는 최근 저에게 자신은 하루 한 쪽을 번역하면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 계산해 보셨듯이, 요셉은 신학을 배우지 않은 번역가로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경전을 번역하였습니니다.

게시자 요셉은 또한 달변가이기도 하였습니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예언자 요셉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예지의 물결을 하나로 웅집시켜 종종 단 한 마디의 말로써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암흑 속에 빛을 던져 주고는 하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9 : 310쪽)

형제 여러분, 요셉 스미스는 인생을 높은 차원에서 조명해 주어 우리가, “만물을 사실대로... 장차 이를대로”(야곱서 4: 13)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경륜의 시대에 관해 주어진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모든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모세서 5: 58~59 참조)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께서 절정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몸소 전도하시던 때에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혼란이 일어 그 결과 자연히 이와 비슷한 여러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발표하셨듯이 우리는 “기독교의 잔재를 경전과는 관계없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설교집, 15: 325쪽)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일성도들은

주님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행하신 업적을 보여 주는 새로운 기록이 발견될 때마다 놀라워하는 대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갑니다. (엘마서 29: 8)

1834년 커틀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태버나클이 아닌 작은 통나무 집에서 모였을 때, 요셉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 언젠가는 북미와 남미는 물론 온 세상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니다. (윌포드 우드립, 밀레니얼 스타, 1982년 9월 19일 605쪽; 대회 보고, 1898년 4월호 57쪽 참조) 그런데 오늘밤 3,000여 명이 넘는 집회소에서 약 십 육만 이천 명의 성인 형제님들과 청남들이 이 모임을 생중계로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권 모임은 후에 47개 국가에서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만이 넘는 형제들이 비디오로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손자들처럼 오늘 밤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청남 여러분은 요셉이 “땅 끝에 있는 자도 요셉의 이름을 물을 것이요”(교성 122: 1)라고 대답하게 밝힌 예언이 더욱 더 성취되는 것을 도울 것이며, 앞으로 여러분이 전혀 들어 보지도 못했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부름에 응할 것입니다.

비극적인 남북 전쟁이 발발하기 약 30년 전에 주어진 또 다른 놀라운 예언에는 그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많은 사람을 죽임과 비참으로 몰아넣은 다음 끝나게 되리니”(교성 87: 1)라고 밝혔습니니다. 오늘날까지 남북 전쟁은 미국에서 있었던 다른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니다.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교성 45: 31)와 같은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니다.

요셉은 브리감 영과 처음 만났을 때, 브리감 영이 언젠가는 교회의 대관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니다. (밀레니얼 스타, 25: 139쪽 참조)

브리감 영은 아무에게나 쉽사리 감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요셉 스미스를 알고난 뒤에는 언제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니다!

(*설교집*, 3:51쪽 참조) 브리감 영이 임종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요셉! 요셉! 요셉!”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사랑하는 요셉과 이제 곧 다시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레오나드 제이 애링턴, *브리감 영: 미국의 모세*, 뉴욕: 알프레드 에이 노프, 1985년, 399쪽)

만일 요셉이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라스터스 스노우 장로님은 우리가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이 되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멀어지게 되며”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설교집*, 7:352쪽)

어느 복합 모임이 끝나갈 때쯤, 요셉은 십이 사도들에게 권능과 의식의 열쇠를 부여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그때에 계시자의 “얼굴은 호박처럼 깨끗하고 이제까지 사람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권세로 덮여 있었다.” (윌포드 우드럽, *역사 일지*, 1897년 3월 12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 대관장님도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는 얼굴에 특이한 깨끗함과 광채가 깃드는 것을 보고 그가 계시의 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교집*, 9:89쪽)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드러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요셉이 “사로잡혀 묶이는 것을 미리 느꼈다”고 했으며 (*설교집*, 10:147~148쪽), 허버 시 킴블은 요셉이 가끔 “자신이 마치 무엇인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몸을 펼 만한 자리 하나 없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을 받아들일 만한 자리가 없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했습니다. (*설교집* 10:233쪽)

예언자 요셉은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큰 죄나 증오할 만한 범죄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스스로 “나는 천성적으로 그러한 죄를 범할 성질을 결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듯이 악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집*, 10:233쪽) 요셉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내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오류라고는 추호도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2쪽)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이 과거의 예언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의 산에서 일라이어스에 의해 신권을 받았듯이, 예언자 요셉은 일라이어스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기타 많은 천사들로부터 신권을 받았습니. 1834년 12월에 요셉의 아버지 스미스는 애급에 있었던 고대 요셉이 “...말일에 태어날 그의 후손을 보살폈으며... 누가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열심히 찾던중 그의 눈이 너, 나의 아들 [요셉 스미스 2세]에게 머물자 마음으로 기뻐했으며 영혼이 만족했다.” (*축복사의 축복*, 1:3쪽)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네 마음이 넓어지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그렇게 해서 마음이 넓어진 요셉은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전보다 내 마음이 항상 더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느낌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 스미스 개인 일지*, 단 시 계시 편집, 솔트레이크 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4년, 387쪽)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 (*교성* 122:7)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자 요셉을 통해 예석하게도 오늘날 극히 적은 숫자만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영광스러운 속죄의 실체를 전에 없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확인한 계시와 번역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속죄는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심이 되는 행위였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인류를 해방시키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겪은 구체적인 고통에 관한 직접 주어진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이 순간에 있었던 일에 관한 거의 모든 귀중한 말씀은 예언자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왔으며, 고통으로 인하여 몸을 떠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영이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이 속죄를 수행하기를 두려워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준비를 마치시고는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함께” (*모사이야서* 15:7) 하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개인적으로는 승리를 이루는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은 전세에서 한 약속에 충실하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셨습니다. (*교성* 19:18~19, *모세서* 4:2 참조)

이렇게 하여 이 예언자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참아 내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바쳐 복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완전히 바쳐 헌신했으며 따라서 “영적으로 점차 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교회 정사*, 6:317쪽) 형제 여러분, 우리도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에게 입으로 전하는 간증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하는 간증을 통해 요셉 스미스처럼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착하기는 하지만 공회에서 추방을 당할까봐 두려워 들어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는 못하는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42~43)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교회 회원 중에는 자신의 위치를 잃기 싫어서 모험을 회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이 얼마만큼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결정하며, 또한 매일 “누가 주의 편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형제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역사상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힐라맨서* 7:6 참조) 주님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팔을 드러 내” (*교성* 133:3)할 때에 이 날들이 어떤 날이 될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일을 “서두르실” 것이며 (*교성* 88:73), 또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환난의 날을 짧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22, *요셉 스미스서* 2:20) 그 밖에도 “만물이 요동할 것” (*교성* 88:91)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만이 영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으로 나아”가며,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으시다!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내다워지라!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칠십인 회장단

“진정한 남자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같은 미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집 사 나이쫓 되는 어느 청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들로부터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치라는 등의 압력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 저에게 그런 일을 강요하면서,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가 여자 같은 아이라는 등 쫓겨나는 녀석이라는 등 놀려댑니다. 저는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만 해도 싫은데 친한 친구인 스티브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케빈, 넌 바보, 겁쟁이 녀석이야’라고 놀려댑니다.”(제이 샌트록, 청소년기, 뉴욕: 윌리엄 시 브라운, 1987년) 18세인 한 제사 신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로부터 주말 여행을 함께 떠나자는 제의를 받았습시다. 그들은 그러면서 관광, 점심, 영화 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날의 계획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활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모두 제가 말일성도이며... 교회의 도덕 표준을 철저히 지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행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우리는 유적지를 한

두 곳 돌아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간 일행이 술집과 사창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되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친구들이 약속을 깨뜨린 데 대해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을 떠나오는데... 그들은 큰 소리로, ‘넌 도대체 언제나 어른이 되겠니?’ ‘언제쯤이나 암전베는 태도를 버리고 그 광신적인 종교에서 헤어나올래?’ 라며 놀려댑니다.”(칼로스 이 에이시, 주님께 봉사하면서, 솔트레이크 시티: 데저렛 출판사, 1990년, 46쪽)

누가 진정한 남자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끔 친구들로부터 성인이라는 미명하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심지어는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부도덕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종종 놀림을 받고 또한 계집애, 짓내나는 아이, 바보, 겁쟁이, 암전이, 광신자 등의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동료들은 남자다운 사람이란 술도 마실 줄 알고 입과 코로 담배 연기도 내뿜을 줄 알며 동물들처럼 길에서 실례도 좀 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을 어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광고판과 잡지 및 텔레비전 화면에서 담배, 술 및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을 부추기는 원색적인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며,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만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손에 담배나 술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라는 생각을 심어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파괴적인 물질에 노예가 된 인간일 뿐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남자라고 믿게 하려 하는데, 그러한 사람 역시 성품이 “온화하고 정숙하며... 우아한”(야곱서 2:7)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거칠게 행동하며 화를 자제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며 지저분한 외모를 한 사람이 진짜 남자라고 믿게 하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람은 남자다운과는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며, 남자답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야만적인 음성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까.(고린도전서 14:8~11 참조)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 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인간들은 자신의 표정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창세기 1:27; 또한 엘마서 5:14, 19 참조) 시편의 저자는 “사람이 무엇이관대”라고 질문하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편 8:4~6)라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관을 영화롭게 쓰는 것이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청년 여러분, 특히 “택하신 세대”이며 “왕 같은 신권 소유자”인 청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영의 아버지를 경외하고 내적인 힘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남자답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베드로전서 2:9, 사도행전 17:28, 히브리서 12:9 참조)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가?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가?” 이 유명한 맥주 광고에 암시된 의미는 맥주를 마시는 남자가 남자답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약물을 취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육신을 더럽혀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3:16~17 참조)

그렇다면 진정으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명예 나오는 리하이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리하이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티끌에서 일어서라... 사내다워지며..."(니파이서 1:21)

"깊은 잠 곧 지옥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너희가 묶여 있는... 사슬을 풀어 버리기 바라노라."(13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범사에 하나로 뭉쳐..."(21절)

"의의 갑옷을 두르라... 어둠에서 뛰쳐나와... 대항하지 말라."(23~24절)

"티끌에서 일어서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성격과 생활을 파괴시키는 악한 행위를 떨쳐 버리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통제해야 하겠습니다.

"깊은 잠 곧 지옥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을 암시합니다. 무지의 잠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잠은 없습니다.

"너희가 묶여 있는 사슬을 풀어 버리기 바라노라"라는 말씀은 좋지 못한 습관,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듯한 습관이라도 점점 자라 지옥의 강한 사슬이 될 습관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니파이서 26:22, 엘마서 5:7 참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범사에 하나로 뭉쳐"라는 말씀은 의를 행하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의의 갑옷을 두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을 집어 들며, 신앙의 방패를 사용하고 주님의 전신갑옷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에베소서 6:11~18 참조)

"어둠에서 뛰쳐 나와"라는 말씀은 선을 행하는 데 모범이 되며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참된 남성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즐거운 살아 있는 빛의 샘입니다.(토마스 카알라일: 교정 103:9~10 참조)

"대항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계명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는 쓸데없는 힘의 낭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악한 거짓말

말일성도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사악한 거짓말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아닌 "잘 조화된 사람"이란 너무 의롭게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한쪽 발을 바빌론에 얹고 다른 쪽 발을 시온에 놓은 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성공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야고보서 1:8 참조)

저는 어떤 수도원에서 수학을 하고 있던 두 젊은이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청년은 호기심에 수도원 밖으로 나갔는데, 둘 중에 좀더 의로운 청년은 그들이 그날 아침에 기도드리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덜 의로운 청년은 "이보게 친구, 나는 지난 두 달 동안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려서... 좀 지나치게 기도를 드려 왔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첫번째 청년이 "사람이 어찌 지나치게 많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신앙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며, 사람이 하루 하루를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잠만 자는 생활을 한다면 금수에 지나지 않는다네. 사람이 진정으로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지로부터 깨어나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불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라네"라고 말했습니다.(에이 코난 도일, "백인 친구", 코난 도일 전집, 뉴욕:코스모폴리탄 북 코퍼레이션, 1988년, 58~59쪽)

사람이 지나치게 의로워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소위 "잘 조화된 사람"이 선과 악의 들보 사이를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성령의 지시에 따르며 그리스도와 같은 미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성령이 삶의 길을 인도하고 울동을 맞추어 주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욱욕에 사로잡힘에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에 영생임을 기억"(니파이서 9:39)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다음의 예

1959년 10월 1일, 한 그리스도인이

크레플린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어느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약 1,500명의 회중 앞에 서서 용감하게 예수는 위대한 구속주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감격 어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조금도 의심없이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때에 힘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보이지 않는 권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서로 사랑하고 또한 온 인류를 사랑하며 평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진리는 끝까지 견딥니다. 시간은 진리의 편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자 포화: 아이젠하워와의 8년간, 가든시티, 뉴욕: 더블데이 출판사 1962년, 458~488쪽 참조)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려 했던 기자들조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군 출신의 한 기자는 그때 경험했던 일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영적이며 기억에 남을 두 가지 사건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특별한 날에 러시아의 한 성당에 계셨던 분은 지금은 이 교회의 대관장이시며 예언자가 되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십니다.

팔리 피 프랫은 미주리주 리치몬드에서 요셉 스미스와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진정한 남자에 대해 잘 설명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던 어느 끔찍한 날 밤에 프랫 형제와 그의 동료들은 간수들이 마치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물몬들을 강간하고 살인하며, 강탈하는 등 죄악을 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참고 듣지를 못하고 일어서서 마치 천둥과 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용하십시오, 그대 악마와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들을 꾸짖으며, 명하노니 잠잠히들 있으시오. 더 이상 그같은 말을 참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대들이 말을 멈추지 않으면 이 순간에 당신들이나 나 둘 중에 누군가가 죽을 것이오."

프랫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영국 법정에서 법관의 의복을 갖추어 입고 앉아 있는 사법관들도 보아 왔고, 엄숙한 모임에 참석하고

사랑의 포로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잘 준비하는 다른 방법이 또 있었습니까?”

있는 국회의원들도 보아 왔으며,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모여 있는 국왕들과 황제들의 모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한 위엄과 권위는 단 한 번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미주리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감옥에서 한밤중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서였습니다.”(팔리피 프렛 자서전, 솔트레이크 데저렛 출판사, 1985년, 179~180쪽)

진정한 남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이름은 회복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진정한 남자 중의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누가복음 2:52)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영에 복종케 하셨으며 결코 유혹에 굴하지

않으셨으며(모사이야사 15:1~8 참조),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고(히브리서 5:8 참조), 은혜에 은혜가 더하여지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93:12~14 참조) 세익스피어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생은 온유하였고, 온갖 좋은 품성을 다 갖추어서 자연조차

세상 만방에 외쳐 “이 사람이 진정한 남자이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줄리어스 시저,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인용, 복음 이상, 솔트레이크 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353쪽)

따라서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 유일하게 죄없고 완전한 남자였던 예수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라고 말씀하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찌라”(열왕기상 2:2~3)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남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저는 오늘 밤 정년 퇴직 시기에 다가서고 있는 세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조국과 동료들을 위해 봉사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큰 일을 해낸 강하고 도덕적이며 헌신적인 세대였으나 또한 그 일들을 크게 거론하지 않는 지혜를 갖춘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과제는 바로 부부 선교 사업입니다.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에서 선교 사업의 과제를 부과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보존케 하려함이니라.”(요한복음 15:13)

많은 노부부들이 지상의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교회로 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암몬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형제 레이벤인들이 암흑, 참으로 지독한 암흑의 지옥에 머물러 있었으나 보라,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 위대한 사업을 이룩한 것이 우리에게 허가된 축복이리라.”(앨마서 26:3-6)

수천 명의 부부 선교사들이 앞으로 다가올 해에 더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될 어떤 일들을 금년에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추수 때가 된 들판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던져 버려지지 않도록 한데 모아놓고 마지막 날에 폭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앨마서 26:5-6 참조)

우리는 개척자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시험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적인 소유물과 집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두고 메마르고 황량하며 험악한 땅으로 가기 위해 대평원을 건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대평원을 건너는 동안 그들의 아기와 자녀와 배우자를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 슬프고 가련한 이야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사람들”의 희생의 아픔으로 인해 이 교회는 오늘날 지상에서 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부 선교사들은 가정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만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헌신적인 봉사로 말미암은 풍족한 수확을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부터 선교사의 힘이 발휘될 것이며 세상은 “평화를 공포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토록 아름다우고”라는 말씀을 진실로 인정할

것입니다.(모사이아서 12:21 참조)

개종자들을 지키는 일보다 더 그리스도다운 봉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부부 선교사들은 교회의 지부들로 파견되어 봉사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교회를 강화하며 처진 팔을 들어 올려 주고 필리핀, 아프리카, 노르웨이, 아이티, 폴리네시아 등 지구상 곳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집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처럼 먼 곳에 가서라도 성역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수정된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포로"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밤, 난 집에서 멀리 떠날거라네.
날 결박한 사슬을 끊을 힘이 내겐 없네.

네가 사랑의 포로임을 아는데,
축제는 필요없네.

지금 나는 지시를 기다리네.

내 운명의 주인으로부터.

달아나기엔 너무 늦었네.

난 바로 사랑의 포로라네.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남을 돌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랑의 포로가 아닌 이도 있지만
나는 그들의 형제가 되어야 하네.
깨어 있거나 잠잘 때나 그를
생각하네.

기도와 겸손으로 그에게 나아가네.
내 생명은 그의 보살핌 안에 있다네.
난 바로 그의 사랑의 포로라네.
난 사랑의 포로라네.

르네 드 차르딘은 "언젠가 우리가 바람과 파도와 조수, 그리고 중력과 같은 자연의 모든 힘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사랑의 에너지를 축적하게 된다면 인간은 인류 역사상 두번째로 다시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위대한 사업에 자원해서 부름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부부들도 역시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의 포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야구 해설가 요기 베라는 "교차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차로에 도달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바로 부름을 받아들이거나 부름을 자원할 때입니다.

어느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가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난 그쪽 나이를 맞힐 수 있어요."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못 맞힐거요."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맞힐 수 있다니까요. 가서 목욕하고 면도하고 머릿도 빗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셔츠에 넥타이도 매고 구두도 광을 내고 오세요. 그러면 말씀드리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약 한 시간 후에 말쑥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머리를 빗질하고 반짝거리는 구두에 양복까지 입고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자, 이제 벽쪽으로 가서 벽을 등지고 서 보시우."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맞춰 보슈"라고 할아버지가 응수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든 아홉이죠?"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아니, 맞긴 맞았는데 어떻게 아셨나?"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내게 말해

주셨잖우."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여인의 남편을 진찰한 후 의사는 "당신 남편의 용모가 마음에 안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약간 늙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차려 입으면 제법 멋있게 보입니다.

알래스카, 바르바도스, 아이티, 나이지리아, 마닐라, 스톡홀름 또는 테네시의 한 지부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축복이 될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부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개종자들의 삶을 축복하여 개종자들이 계속 선을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에서 오는 경험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합니다. 선교 사업 도중에 맞이하는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및 신년은 여느 때와 달리 보다 더 특별한 것이 됩니다. 장식도 조금밖에 달리지 않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 노래, 수수한 아파트,

아내와의 더할 수 없는 사랑 등을 상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그 작은 아파트를 마치 거룩한 성전처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얀 침례복을 챙겨,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한 가족이 물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교회 건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베들레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아닌, 겸손한 개종자의 눈 속에 있는 기적의 별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말도 필요없이 함께 기쁨을 만끽합니다.

십이 개월이나 십팔 개월이 짧은 기간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억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3:19)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함께 자문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야고보서 2:14)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봉사에 대한 열쇠를 줍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야고보서 5:20)

봉사하는 자들에게 바로 위와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현실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합당한 추종자가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한 가족의 일원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교리와 성약 31편 5절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낮절하라. 그리하면 네 죄사함을 받아 등에 곡식 다발을 지게 되리라. 무릇 일꾼이 자기의 싹을 받음은 마땅하니,

이로써 네 가족도 살리라.”

우리 세대는 남을 도와 주고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의 가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남을 도울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나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이로써 네 가족도 살리라.”라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말을 안듣거나 방황하는 자녀들, 심지어는 결혼하여 아이를 둔 자녀들에게까지도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과 한국전 그리고 월남전 등... 우리 세대는 침체기를 거처왔습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들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해 불경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마약, 낙태, 동성애를 적법화하려는 시도와 다른 타협적인 거짓 철학들을 봅니다.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 중 일부는 이러한 철학의 거대한 물결에 속아 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해 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와 이 교회와 우리 조국을 사랑하였으며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보살피어 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장 고결한 피의 일부를 자유를 지키는 데 흘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남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대의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하고 인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악을 견디... 후에도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위대한 대의는 한 세대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자 압도하는 반대 세력 앞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발전의 용기입니다. 그 신성한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합니다. 만약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만을 지닌 단순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율법과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복음 교리 :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설교와 기사, 발췌문, 111쪽)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뒤에는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부분이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도달할 즈음 우리는 성숙해진 영적인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종교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위대하고 중요하며 의미심장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깃발이 아닌 사랑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이 사랑의 깃발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 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잘 준비하는 다른 방법이 또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포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대열에 나와 위대하고 고귀한 일들을 수행합시다. 수천 명씩 열을 지어 포도원으로 나아가 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줍시다. 개종자들을 축복해 주고 보호해 줍시다. 우리의 곡식 다발을 폭풍과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 폭풍우가 밀어닥칠 수 없는 거룩한 장소인 창고에 모읍시다.

어느 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힘을 의심하는 그런 겸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들이 위대하지 않으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진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에서 신성함을 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바보스럽게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보살핌의 정신으로 형제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 지역으로 힘차게 나아오십시오.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선교 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강철같이 강화되어 왔습니까? 선교사의 대열이 부부 선교사로 인하여 늘어나며 그리하여 지상의 모든 곳에서 개종자들이 나오게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엘 알든 포터 장로
철십인 정원회

“주님은 그분의 추수밭에서 기꺼이 일할” 합당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버 시 킴블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인자 요셉은 나에게 와서 ‘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세계 “나의 종 허버를 영국에 보내어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도록 하라”고 속삭여 주셨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저는 말도 더듬고 그러한 일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학문과 지식과 신앙과 종교의 온상으로, 또 널리 알려진 그곳 사람들의 지성으로 온 기독교 국가에서 그토록 평판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다음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도 제가 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순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저를 도와 주시고 세계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어떠한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갈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울슨 에프 휘트니, 허버 시 킴블의 생애, 3판, 솔트레이크 시티, 북크래프트사, 1945년, 104쪽)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첫번시를 떠나던 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못 볼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떠나올 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리를 걸어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왔으며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문가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흐느껴 우는 것으로만 그들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주시하던 저는 그곳이 마치 성스러운 땅처럼 느껴져 모자를 벗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주님의

영이 세계 임하였으며 저는 그 나라 전체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들과 똑같았으며 그들에게 작별을 고한 후 몇 마일을 울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제 머리가 눈물의 샘이라고 생각했습니다.”(울슨 에프 휘트니, 187쪽)

주님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심을 가진 선교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참으로 유능한 선교사들은 훌륭한 다양한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갖추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은 그들의 결심을 확고하게 지키는 능력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이 하기로 동의한 것을 행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동반자나 구역 책임자나 또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교 부장님에게 매일 아침 복음 공부 계획표를 따르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침대에 앉아 경전을 무릎 위에 펼쳐 놓은 채로 마치 깊이 사고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조는 상태로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침례를 베풀며 그분의 이름으로 왕국을 세우도록 불렀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기쁘게 일합니다.

선교사들은 어디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선교 사업을 하러 나오기 오래 전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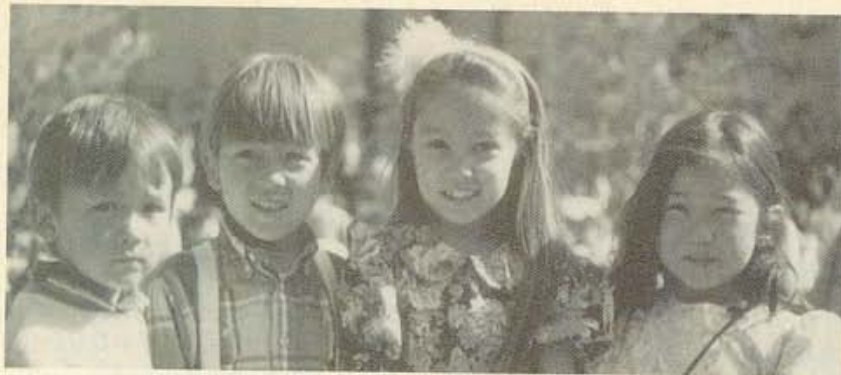
18개월 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신권 모임에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출판되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짧은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이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 전이나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기 전에 회개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같은 행위에 대한 회개란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죄는 너무도 심각해서 회원의 자격과 영생을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죄 중에는 성적인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8쪽)

저는 우리 청소년들 중 어떤 이들은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오랜 시간이 걸릴

엘 톨 페리 장로님은 오늘 오후에 회복된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복음 성약의 축복을 거부해 온 나라들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페리 장로님은 모든 합당한 젊은이에게 선교 사업을 하라고 외치는 주님의 권고를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명하고 절박한 메시지의 뜻을 결코 헤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초기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하신 때는 교회가 회복된 지 18개월도 채 안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니라”(교리와 성약 64 : 33~34)

선교 사업에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느낌을 기록한



것"임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청남 여러분, 만일 여러분보다 더 나이 든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예언자였던 베냐민 왕을 통해 주신 주님의 다음 말씀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가 배워 알고 난 후에 범법하며 전하여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여 너희들에게서 주의 영이 멀리하여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하며, 그리하여 너희가 축복받으며 번영하게 되고 보존케 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될진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렇게 행할진대 이는 드러내어 하나님을 거역함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즐겨 악령을 좇으며 모든 의로움의 원수가 되나니, 주님께서 이같은 자에게 거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성스럽지 않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심이라."(모사이야서 2 : 36~37)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 깨끗이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끗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겪으신 고통을 상기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고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고,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 : 15~18)

청남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의롭게 살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행할 때 주님의 영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영의 도움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교 사업에서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의 권고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성신의 권세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업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가르침, 솔트레이크 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8년, 313쪽)

주님이 그의 대표자들, 바로 이 세상에서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각자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배우지 못하였으며 세상에서 경멸받는 미약한

자들을 불러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라를 채찍질하게 하나니

"저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되며 나는 저들의 방패가 되어 저들의 허리를 동여 매어 주리라. 그리하면 저들은 남자답게 나를 위하여

싸우리니"(교리와 성약 35 : 13~14)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남자답게... 싸우"기 위해 영을 동반하여 동반자와 함께 팔과 팔을 끼고 이 장엄한 군대의 행진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신권 지도자 여러분, 젊은 선교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지닌 채로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투구나 칼이나 방패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의 불길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회개하고 자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이외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공은 선교사와 개종자 외에도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가올 세대에서 교회의 안정은 선교사 부름에 대한 우리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업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우리는 신체적인 제한이 없는 모든 젊은이들이 합당해지고 선교사 부름을 받기를 바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원리들", 성도의 빛, 1985년 10월호)

주님은 그분의 추수밭에서 기꺼이 일할 합당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예언자 몰몬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니파이삼서 5 : 13)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증거하도록 부르셨음을 깊이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남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꺼운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부름을 받아들일도록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배우고 행하며 되어야 할 사람이 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이 사업이 여러분과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부름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신권 소유자들이 오늘 저녁에 모였습니다. 템플 스키퍼에 있는 태버내클이 사람들로 넘쳐 흐르며 어셈블리 홀도 가득 차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 있는 교회도 그러합니다. 아마 이것이 신권 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부름에 대해 보여 주는 헌신은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무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소망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영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해줍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장들의 감원과 많은 사람들의 실직, 그리고 그로 인한 이사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거할 곳이 없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이 이러한 곤란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한다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일성도들에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교회의 재정 업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도 여러분의 십일조와 다른 헌금들이 희생 없이는 바쳐질 수 없는 신성한 기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의로움의 피난처, 기도의 처소,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올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합시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 그분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눌 신권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무관심과 비활농 상태로부터 들어올려 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권 부름을 수행하며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서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집어 삼키려 위협하고 있는 죄의 늪을 피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줄 귀중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젠서에 나온 다음 말씀은 이 신성한 사업에서 구세주를 따르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에스겔 36 : 26~28)

어떻게 이러한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따를 만한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려해 볼 세 가지 지침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대제사와 집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면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첫째 :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운다.

둘째 :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

셋째 :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된다.

이 주제들을 더 자세히 논해 본다면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운다.

사도 바울은 배움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립보서 3 : 13~14)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브리서 12 : 1~2)고 역설했습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종종 그것에 관계되는 말씀과 그의 철학을 상조했습니다. 그는 “보통으로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됩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정의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볼 때 저는 신권을 봉사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종종 ‘완전한 봉사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제게는 이 은사에 포함된 중대성과 생명력을 깨닫도록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능을 이용함으로써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봉사의 도구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 명백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교성 107 : 100)기 때문입니다.

“신권은 정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성임도 정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받은 성임에 대해 뽐내기만 할 뿐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위대하고 영원하신 심판관 앞에서 보고할 때 ‘저는 지상에 있을 때 대제사였습니다. 저는 대제사로서의 상을 받으려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듣게 될 응답을 추측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는 아마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로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너에게 준 이 위대한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으로 누구를 축복해 주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에 의거하여 그는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1914년 3월에 조셉 에프 스미스, 안톤 에이치 런던, 그리고 찰스 더블류 펜로우즈로 구성된 재판장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신권은 인간의 영예나 지위의 강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봉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신권의 여러 가지 부름 및 성임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롭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경건한 직분들은 인간이 만들어 낸 직분처럼 생각되거나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뽐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우월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주님의 사업을 위해 겸손히 봉사하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한 교사 중 한 분이었던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신권 소유자가 되면 그는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을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저하거나 부름을 받아들이기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여러분과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부름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요구받은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이나 교실 외의 다른 곳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것은 몇 년 전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아론 신권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가는 연례 소풍을 아주 기대하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144km 떨어져 있는 클락스톤 공동 묘지로 가서 물론경의 세 목격자 중의 한 사람인 마틴 해리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무덤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화장암 묘석을 둘러싸고서 당시 고등 평의원이었던 글렌 엘 러드 장로가 마틴 해리스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물론경에 나오는 마틴 해리스의 간증을 읽고 그 사실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들었으며 묘석을 만지고 또 그들이 들었던 말씀과 그들이 느꼈던 느낌을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로간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로간 성전의 잔디밭에 누워서 우뚝 솟은 성전의 첨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흰구름이 산들바람과 함께 첨탑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성약과 약속이 말씀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을 들어서기에 합당하고자 하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천국은 그들에게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웠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2.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 교리와 성약 107편으로 알려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신권에 대한 계시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교성107:99)는 구절을 읽어 보면 “배움”이 “행함”으로 이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신권 소유자는 제각기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으며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사업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책은 없습니다. 각 직분은 모두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무를 다했다더라면 구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인간의 영생을 지연시키는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그토록 큰 기쁨일진대 하나님의 자녀가 경고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대만함에 대한 후회도 엄청날 것입니다.”

옛말이 언제나 옳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신권 소유자가 베푸는 대부분의 봉사는 소리도 소문도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친절함, 웃음과 따뜻한 악수와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간증은 문자 그대로 삶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켜며 귀중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한 모범이 폴란드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던 유리어즈와 도로시 후섹 부부의 경우입니다. 후섹 형제님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폴란드 말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후섹 자매님은 영국인이며 폴란드와 폴란드 사람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조건은 충분치 못하였고 일은 외로웠으며 임무는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에는 선교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후섹 부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른 선교사들도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지부를 세우며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선교부가 조직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섹 부부는 그들에게 부과된 일의 막중함 때문에 낙담했을까요? 추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도움을 간구하였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 2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러셀 엠 넬슨 장로님과 한스 비링거 장로님은 후섹 장로님과 함께

폴란드 정부의 우파트카 총리를 만나서 총리로부터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선교사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폴란드에서 환영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총리는 주리어쯔 후색 장로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당신들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모범과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후색 부부와 같이 주님의 사업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함시다. 그러면 우리도 주리어쯔와 도로시 후색 부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편 121:2-4)

3.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된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부과된 임무에 대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성한 도움을 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모든 일에서 몸소 자신의 권고를 따르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지도력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찾을 것을 구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울이는 노력에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이러한 개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봉사에 대해 어떠한 모범을 세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누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1-15)

배워야 할 것을 배운다.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 되어야 할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봉사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주목하셨던 주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봉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러한 확신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경험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드윈 큐 캐넌 2세는 1938년에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충실하게 봉사하였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슬트레이크시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캐넌 형제가 제 사무실에 와서 그의 선교사 시절의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한 이래

보관해 온 슬라이드 가운데에는 그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매번 그가 슬라이드들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을 보관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독일의 슈테틴에서 봉사할 때 찍었던 것으로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성이 베르트라는 것만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한 지역 대표 이름이 베르트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사진에 나와 있는, 슈테틴에 살았던 그 베르트가의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슬라이드를 버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캐넌 형제에게 제가 얼마 후 지역 대표인 디터 베르트 형제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베를린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그에게 보여 주고 그들 중에 친척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그것들을 갖고 싶은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의 스테이크 부장인 디트마르 마테른과 결혼한 베르트 형제의 여동생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주의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주님은 이 사업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왕국이며,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없는 군대도 아닙니다.”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소리를 높여 간구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역대하 20:12) 그러자 래위 지파로 예언자인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15, 17절)

제가 베를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스위스 쥘리히에서 베를린행 비행기를 탔을 때 놀랍게도 디터 베른트 형제도 그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으며 저는 그에게 슈테틴의 베른트라는 가족의 오래된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것을 건네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쟁 중에 슈테틴에서 살았죠. 저의 아버지는 일하시던 공장에서 연합군의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후 러시아 군이 폴란드와 슈테틴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여동생과 저를 데리고 적이 쳐들어 오기 전에 피난가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사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속의 어린 소년이 바로 저고 이 어린 소녀가 제 여동생입니다. 이 두 분이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오늘날까지 제게는 슈테틴에서의 제 유년 시절이나 아버지에 관한 사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에게 그 슬라이드들은 그의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연차 대회 때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한 지역 대표 디터 베른트 장로는 에드윈 캐넌 부부를 찾아가서 그 귀중한 슬라이드들을 영감에 따라 40년 동안 보관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
신비로운 방법으로 움직이시네
바다를 디디고
폭풍우를 타시네...
여러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치 말게.

오직 은혜를 구하며 신뢰만 하게.
때로 엄하실지라도
미소가 얼굴에 숨어 있네.
(찬송가, 1948년판, 48장)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이 관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주님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영적인 가운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축복이 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간증을 전할 때 성령이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는 간증의 영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는 없으나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 및 그분들을 관찰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역대하 20장을 주제 성구로 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몹시도 불안한 시기로, 암몬 백성들과 모압 족속들이 유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숫자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이길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그러자 왕은 예언자의 말을 믿고,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20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구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교회 회원들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찬송가, 1985년, 6장)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즐겨 부릅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계셨던 모든 예언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못하였으며 요셉 스미스를 직접 만나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언자가 살아 계실 당시 어린 나이로 나무에 살고 계셨던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예언자 요셉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그분이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위대한

예언자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였던 첫번째 시현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분의 간증을 받게 되었으며, 요셉 스미스가 기도했던 그 숲속에 서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중,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요셉이 간증한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한 물문경을 읽고, 성신의 권세에 의해 그 기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증거를 읽고 또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문경은 요셉 스미스가 그의 능력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소유한 고대 예언자들이 요셉에게 직접 전해 준 신권의 권세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의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였으며, 또한 그가 죽음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최소한 여러분 앞에 서서 요셉 스미스는 이 위대한 사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하여 부름받고 성임된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간증드릴 만큼은 요셉 스미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리감 영이나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립, 로렌조 스노우 같은 분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읽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았다는 간증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상세한 부분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턱수염을 길게 기르셨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후로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읽었으며, 따라서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과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 스펜서 더블류 대관장님 그리고 예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았던 분들입니다. 저는 이들 한분 한분을 위해 일했고, 그분들 밑에서 봉사하면서 그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 각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모두 비범하고 뛰어난 분들로서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인격 도모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며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을 전해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훈련받고 단련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랜트 대관장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여러 번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저는 동생과 함께 태버나클로 와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자리가 남을 때에는 대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소년들에게는 누구나 그런 경향이 있듯이, 우리는 이 건물 맨 뒷쪽 끝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키가 훨씬하게 크신 그랜트 대관장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인상적이었으며, 어린 제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낭랑하신 목소리로 물문경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분이 그것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경우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담배를 피우므로써 야기되는 인간의 비극과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만일 그랜트 대관장님이 권고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을 술을 마시므로써 생긴 가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분은 십일조의 법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랜트 대관장님이 이 원리에 대해 하신던 훌륭한 간증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어렸을 적 기억으로 그분은 또한 금식 헌금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만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단순한 원리를 준수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복지 목적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빛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1929년 11월의 "암흑의 목요일"이 닥쳤습니다. 당시 저는 열 아홉 살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들에 의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으며 그 밖에도 가난의 상처와 삶의 압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사람들이 만일 개인적으로 부채를 지는 일에 관해 예언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뒤를 이어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 부름을 받았으며, 스미스 대관장님이 대관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그 끔찍했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대관장님은 해리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 유럽인들을 위해 식량과 의복을 수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트루만 대통령은 그와 같은 물자를 어디에서 모으겠냐고 물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교회에서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부조회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데 여기에서 밀을 비축해 놓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곡물 저장소 선반마다 가득 쌓여 있었고 기타 창고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예언적인 선견 지명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물자 수송을 약속했으며, 십이사도 평의회에 에스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이 독일로 보내진 물자를 배부하는 것을 돌보기 위해 유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복지 광장에서 물자를 기차에 실어 항구로 옮겨가 그곳에서 배로 바다를 건너 수송하는 일을 도운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스위스 성전 헌납식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 있는 많은 회원들이 방문을 하였는데, 저는 이들 중 몇몇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식량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리가 남지 말아야 할 선에 관해 말씀하시곤 하였는데, 그 선을 경계로 하여 한쪽은 주님의 편이며 다른 쪽은 적대자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경계로 주님의 편에 머무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종종,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뭉쳐진 분이었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뒤를 이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으셨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의욕적이고 건강하셨으며 잘생긴 외모에 남을 이끌 수 있는 위용을 갖추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름답고도 편안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언자답게 생기셨으며, 예언자답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자가 맥케이 대관장님과 인터뷰를 하러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기자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며 취재하는 데 있어서는 거칠고도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는 대관장님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맥케이 대관장님의 비서에게 “오늘 나는 예언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훌륭했으며, 개인적으로 의로워지며 가족을 강화하러시던 권고의 말씀은 참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정에 관해 말씀하신 “인생의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으며, 그 가르침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비극적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교회의 대관장님과 주님의 예언자가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마치 구약 시대의 예언자와 같이 거칠은 음조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회적인 표현 대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며, 반면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꺼려하는 것을 슬퍼하셨던 매우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하고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회중이 모인 곳에서 말씀하실 때나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진실하고 충실하도록 간청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를 따른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감미로운 열매를 맛보았으며, 그 권고를

비웃던 사람들은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야기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그 자리를 이으셨는데, 이분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대관장님으로 계시는 짧은 기간 동안 저는 그분과 함께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그때는 정말 행복한 때였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리 대관장님의 후임 동반자였는데, 그분은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넓은 들을 살살이 뒤져 아주 작은 것들을 가꾸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크고 포괄적으로 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1936년에 설립된 복지 프로그램의 초대 총 책임자를 역임하셨으며, 교회 전체에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저를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르시고 그 직책에 성별하셨는데, 그때 축복을 하시며 주신 말씀 가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고 상대기를 더디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기를 빨리 하길 바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 그 권고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권고는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주신 것입니다.

리 대관장님의 뒤를 이으신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에 대한 저의 사랑 또한 컸습니다. 이 친절하고 작은 분은 지나치리만치 근면하고 정력적이며 또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결의가 확고해서 심지어는 상한 목청마저도 그분의 재산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연단에 서시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블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의 감동적인 말씀을 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의 수준이 우리 자신이나 또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두 함께 기꺼이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반짝 하고 일시적으로 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일을 수행하고... 걸음의 폭도 넓힐 것을 조용히 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집, 솔트레이크 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174쪽)

걸음의 폭을 넓히려는 부름은 교회 전체에 전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더욱 큰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예언자다운 지도력을 발휘하셨던 이 친절한 예언자에게 여러분이나 저 모두가 참으로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돌아가시자 곧 이어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이 높고도 성스러운 직책에 성임되어 성별받으셨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이 책임을 수행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과 교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벤슨 대관장님은 이 지상의 많은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벤슨 대관장님은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에 관해 가슴속 깊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면서 사도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들에 관해 예언자답고 훌륭하게 말씀하셨으나, 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되풀이하신 말씀은 “물론경을 읽으십시오”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이 거룩한 간증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또한 우리에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자께서 주신 권고 가운데 이보다 더 시의 적절하게 주어진 권고가 있을까요? 외설적인 문학이나 영화, 비디오 카세트, 텔레비전 등의 형태로 온 세상을 휩쓸어 가고 있는 추악하고 썩은 모습을 보기만 하면 누구라도 의로움과는 역행하고 있는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여호사밧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를 시험하는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태복음 23 : 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상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이곳 유타 지역에서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1934년 유타 주 주민들이 자신의 권고와는 반대로 헌법 개정안 18조를 폐지시킨 것에 대한 슬픔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 전에 우리가 다른 시민들과 연대하여 주류 분배 단속 캠페인을 벌였던 또 다른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이 큰 혜택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MX 미사일을 이곳에 두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님의 지도력 아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으로 인하여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과 아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물론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공중 도덕에 관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복권, 경마 도박 등 여러 가지 놀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회 대관장님들은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소한 것들이라고는 하나 매우 심각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예언자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찌니라”(열왕기상 18 : 21)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일곱 분의 대관장님들과 함께 일을 했었다는 것을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분들도 모두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약점 때문에 제가 괴로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필멸의 인간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알아 오고 또 함께 일했던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열심으로 일했으며, 각자가 주어진 시기에 책임을 맡은 위대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교회의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함께 모이든지 이 말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언자가 계시을 감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그분께 충실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언자를 지지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는 이 연단에서 언젠가 만일 우리에게 예언자가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자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예언자가 계시며, 앞으로도 예언자를 모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언제까지라도 예언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업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왕국이며,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없는 군대도 아닙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진실하고 충실하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하고 충실해지도록 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언자로 지지한 분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권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

감사하는 태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마음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이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삶의 방향과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으며 봉사를 통한 축복을 몸소 실행해 보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손짓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7 : 11~17)

이들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잔인한 문둥병을 주님께 의해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들 중 돌아와 감사를 드린 한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감사함을 표하지 않은 아홉 사람은 주님께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과거에 문둥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역병이 있어서,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파멸시킵니다. 어디를 가나 이것들을 봅니다. 이 역병이 미칠 수 없는 곳은 없는 듯합니다. 그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들어 본다면 이기심, 탐욕, 방탕, 잔인성 및 범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에 중독된 사람들은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며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94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의 후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라.
긍정적인 것을 붙들고
이도저도 아닌 자와 어울리지 말라.

당시에는 훌륭한 충고가 되었듯이, 오늘날에도 훌륭한 충고가 됩니다.

지금은 지상 생활을 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무한한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는 반면에 가르침을 주는 교사와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들과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해주는 가정 생활과 희생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도움을 주는 친구 등 의로운 분들과

의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마음이 중한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태도는 가장 고결한 미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음 찬송가는 우리의 영을 고취시키고 신앙의 불을 당기며 영감을 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가 하신 일에 네가 놀라라.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시달리나 낙심말라 주는 능히 이기시리. 주가 주신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천사들이 네게 도움 위안을 너의 여행 끝날까지 주리라.”
(찬송가, 142장)

만일 우리가 각자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어머니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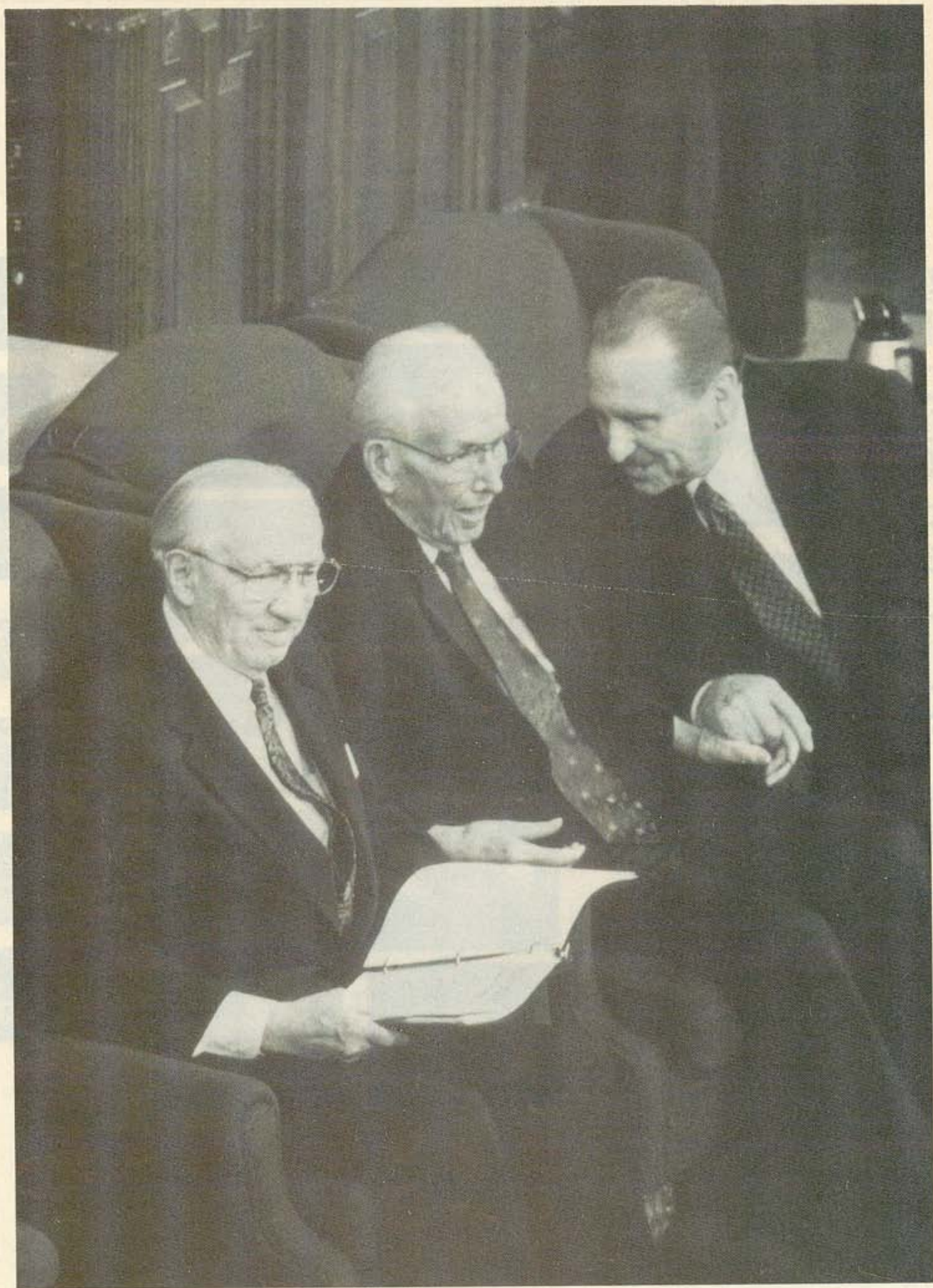
우리를 낳으셔서 세상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몸소 여행하시길 기꺼이 택하신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어느 작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요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당하시는 가운데,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 : 26~27)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표하는 이 얼마나 성스러운 본보기입니까?

저의 모친께서도 저에게 단순히 경전을 읽어 주시기 보다는 생활과 행동을 통해 그 “훌륭한 책”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돌보던 마치 극과도 같았던 하루 하루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회교 총관리 직원

대장관배



고트 비 윌리엄스 부대장관



윌리엄스 로버트 부대장관



토마스 에스 존스 부대장관

회심성 도시기역



하워드 다블류 헌터



포드스 케이 파커



마틴 제이 에건



윌리엄스 로버트



데이비드 비 화이트



제임스 이 피우스트



윌리엄스 이온



리처드 윌리엄스



제임스 이온



리처드 윌리엄스



조셉 비 윌리엄스



제임스 이온

회심성 회심성



토마스 이온



조셉 비 윌리엄스



리처드 윌리엄스



제임스 이온



리처드 윌리엄스



조셉 비 윌리엄스



제임스 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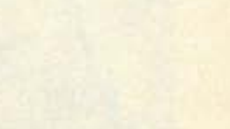
철심인 제일 정위원회



철심인 제이 정위원회



관리 감독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힘써 일하시고도 결코 불평하지 않으시며, 항상 가족의 복지를 염려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이 사랑과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은 시간이 변해도 한결같습니다.

가끔 저는 선교사로 나가는 아들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 옷가게로 들어가는 부모님들을 보아 왔습니다. 새로 산 옷은 몸에 잘 어울리고 새 구두에는 레이스가 달렸으며 셔츠와 넥타이도 꽤 많이 삽니다. 언젠가 만난 어느 아버지는 저에게 “문슨 형제님, 제 아들을 소개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런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 지갑은 텅텅 비었지만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분의 양복이 낡고 구두는 다 떨어진 것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으나, 그분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부친께서도 어쩌다 시간이 나실 때에는 불구자이신 아저씨와 연로하신 아주머니와 우리 가족을 돌보는 데 보내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셨는데,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길 좋아하셨으며, 주님처럼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결코 하지 않으셨으며, 평생 동안 노동의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저의 부친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우리 모두 선생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의 가능성과 포부를 형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와 자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큰 것을 기대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감이 커지고 능력이 향상되며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한 선생님에게는 다음과 같은 글이 어울립니다. “그 여인은 마치 요술을 부리듯 포근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가득하며 성장하고 배우며, 상상의 나라를 활짝 펴고 젊음의 영이 보장받는 교실 분위기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세 분의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저의 역사 선생님이셨던 지 호머 더럽으로, 그분은 저에게 “과거는 뒤에 있다. 그것으로부터 배워라.”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역사학을 좋아하셨으며, 또한 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 제 마음의 창이 열려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학 교수이셨던 오 프레스톤 로빈슨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미래는 앞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 서시면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회상해 보면 사랑으로 설득하시던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노력하도록 용기를 주셨으며,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밖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늘 기억에 남을 분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주일학교 회장이 선생님과 함께 오셔서 반원들에게 우리를 가르치고 싶다고 자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선생님이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시 게르츠였습니다. 선생님은 반원들에게 각자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신 다음 반원들의 생활 배경 등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유타 주 미드웨이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계곡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는 너무 생생하게 설명하셔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도록 해서 모두가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푸른 들판을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결코 언성을 높이지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이 너무 거칠고 시끄럽게 굴어서 선생님의 아름다운 공과를 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현실은 지금 이곳에 있으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경전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다윗, 야곱, 니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등에 대해 익숙해졌으며, 경전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였고 태도도 발전하였으며, 루시 게르츠 자매님에

대한 사랑도 한없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큰 파티를 열기 위해 동전을 모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르츠 자매님은 계획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소년 소녀였던 관계로 마음 속으로 모여진 돈을 빵과 과자와 파이, 아이스크림 등으로 환산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말 드문 기회였습니다. 전에는 어떤 선생님도 그와 같은 모임을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으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파티를 위한 목표도 성취되었고, 반원들도 발전했으며, 훌륭한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반원들 모두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반 한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발표하시던 1월의 그 슬픈 아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는 빌리 데본포츠가 당한 큰 슬픔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날 주일 공과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루시 게르츠 선생님은 잘 준비된 공과를 가르치신 후 끝에 빌리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당시는 경제 공황기였으며, 돈을 구하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은 한쪽 눈을 찡긋하시고 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티 기금을 가져다 우리의 사랑의 표시로 데본포츠 가족에게 주는 게 어떻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만장 일치로 동의했으며, 우리는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적은 무리가 세 블럭 떨어져 있는 시가지를 걸어가서 빌리의 집에 들어가 빌리와 그의 형과 누나들 그리고 빌리 아버지께 인사를 하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빌리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소중한 파다 기금이 든 하얀 봉투가 선생님의 섬세한 손에서 슬픔에 찬 빌리 아버지의 가난한 손으로 건네질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어리던 눈물 또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으며 기쁨이 충만하였고 이해력이 깊어졌습니다. 이 작은 친절한 행위로

인해 우리는 더욱 하나로 뭉쳐졌으며, 이 경험을 통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고, 옛날의 그 예배당은 산업 사회의 희생물이 되어 사라져 버렸지만, 영감받은 진리의 선생님의 인도 아래 배우고 웃고 성장했던 당시의 소년 소녀들은 선생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옛날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어서 오라 주일 아침 모든 근심 잊고서
안식의 날 기도의 날 어서 모두 모이라.
주일학교 참석하면 선생님이 반기고,
주의 황금을 가지고 수고하여 가르치네.
(찬송가, 150장)

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루시 게르츠 자매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루시를 사랑했고, 루시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번째로 친구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매일 친절과 존경을 보임으로써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이 유구한 세상은 오늘날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친구”라는 말을 경의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4)라고 하셨습니다.

참다운 친구는 우리의 유별난 점을 참아 주며, 우리의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난 스카우트 단원이었던 오스카 벤슨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니며 사형 인도를 받은 죄수와 인터뷰를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보고하기를 이들 중 125명은 예의바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저는 참다운 우정의 표현을 경험하였습니다. 잭 헤프워스와 저는 당시 10대 소년들로 이웃에 살았는데, 어느 날 오후 저는 잭이 보도를 따라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보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잭은 감정에 격해 선듯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면서 “탐,

공군에 있는 나의 형 조우가 공중전에서 전사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잭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즉시 나와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친구에게는 언제라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명예롭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른 그 큰 희생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한 느낌을 단지 현충일이나 군대의 행진 또는 무덤을 장식하는 것으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국 런던의 드루어리 레인에 위치한 왕립 극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진 아름답게 장식된 명판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마음속 깊이 감명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1914~1918

나라를 위해 삶을 마친 연극인,
음악가, 작가 및 무대 장치를 위해
수고한 영령들에게,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젊음을 바친 불멸의 사자 저
빛나는 위대한 영혼의 무리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그 이름이 영원히 남으리니,
이들은 자신의 뜻을 고귀하게 행하고,
신과 왕과 가정을 위한 부름에
응하였으며, 모든 것을 바쳤도다.
그대 행복찬 시간을 찾다 지나갔으니
그 소중한 시간들이 가져다 준 가치를
보라
여기 회상의 꽃향기 드리워진 속에서
침묵으로 드리는 감사함이어.

마지막 여섯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이 생이 끝나면 내 영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선교사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가라, 너희 영광의 사자
달려라, 너희 하늘의 대사

나가 기쁜 소식 전하라
영광의 천사 하늘을 날으니
크고 위대하여라, 크고 위대하여라
하늘 소식 가져온 영광의 천사
(영문 찬송가, 1985년, 262장)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및 죽음을 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담한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이처럼 홀로 서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고 한 제자는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옆구리를 찔렀고, 성난 군중들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저들을 동정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드린 기도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마도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누가복음 9:58)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주님이 배척당한 유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처음으로 쓰인 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불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맞이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이사야 53:3) 이분은 누구이며, “영광의 왕... 만군의 [주님]”(시편 25:10)이신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마태복음 4:19)라고 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라고 가르치셨으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한복음 14:15)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하는 가운데 감사의 미덕을 보일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제일 좋은 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희 회장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느낌을 순화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자신이 믿고 마음 속으로 느끼는 것과 자신의 행동과 모습이 일치되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예 언자 요셉 스미스는 비극적인 순교를 당하기 바로 1년 전 나부의 말일성도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친구는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논쟁하고 다투기를 그쳐야 하며, 서로 단합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정사, 5: 498~499)

이 말씀은 150년 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훌륭한 권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이든 먼 곳에 사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알게 될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온유하며 좀 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하기는 더디하고 돕는 것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의 손을 내밀되 보복의 손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곧 거짓없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며 필요하면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모임에서 우리는 종종 수잔 에반스 맥클라우드가 작사한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릅니다. 제가 그 찬송가의 가사를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세주여, 나 주 사랑하는 것 배우게 하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길 걸어가며
잠시 멈추어 다른 사람을 돕고 들어
올리게 하소서
제 힘보다 큰 힘 찾게 하소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나는 누구오니이까?
조용한 가슴 속에는
눈에 띄지 않는 슬픔이 숨었나이다...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리이다
다른 이를 안위할 방법을 배우리이다
상처받은 자 지친 자에게
부드러운 마음 보이고
내 형제 지키는 자 되리이다
주여, 청년 주를 따르리이다
(영문 찬송가, 1985년, 220장)

우리는 더 강한 결심과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다른 사람을 들어 올릴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힘보다 큰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를 안위할 방법”을 배우기 위해 더 노력한다면 “상처받은 자와 지친 자”를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더]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기 위해 그 방법을 사용할 기회가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 34~35) 우리가 인류라는 가족에 속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가지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니아서 7: 47 참조) 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과 희생을 암시해 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이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저희는 금년으로 150주년을 맞는 우리 여성들의 상호부조회 조직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를 모토로 삼아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모든 거룩한 미덕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원의 계획의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미덕이 실족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거룩한 성품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과부, 어린 아이, 농부와 어부, 낮은 사람과 외국인, 염소와 양을 치는 사람, 부유한 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 또한 비우호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불우한 자, 그리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셨으며,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이외의 지체 장애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이나 정서적 질병을 일으키게 한 귀신과 악령을 쫓아내셨으며,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을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으며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심 없는 봉사를 베푸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선하심을 취할 권세가 주어져 있음에, 금지 당한 자 없”(니파이서 26: 28)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그들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며 본보기입니다.

만일 전세계의 남녀가 친절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와 교만이 없는 사랑이며,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으므로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악이나 악의를 묵인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편협이나



중요나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롱이나 야비함이나 학대나 배척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 국적, 재정 상태, 교육 또는 문화에 관계없이 기독교인이 사랑으로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권장에 줍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며 또한 자신이 "사랑의 끈으로"(교성 88 : 125) 몸을 둘러 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느낌을 승화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자신이 믿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과 자신의 행동과 모습이 일치되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베른 크롤리 형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나부의 초기 성도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그들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친구는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교훈입니다.

부친이 병에 걸리자, 15세에 불과한 베른 크롤리는 집안 소유의 폐차 부속품점을 경영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가끔 어떤 고객들은 이 소년을 속이기도 했으며, 부속품이 밤 사이에 가게에서 없어지곤 했습니다.

베른은 화가 났으며 범인을 잡아서 본때를 보여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부친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후에 베른은 어느날 밤 마감 시간에 폐차 부속품점을 돌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날이 거의 어두웠습니다. 부속품점의 한쪽 먼 구석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큰 기계 하나를 뒷담을 향해 옮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육상 선수처럼 달려가 어린 도둑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주먹으로 그 도둑 소년을 주먹으로 한 방 쳐서 분을 푼 다음,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로 끌고가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을 잡았으니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베른의 부친이 나타나 그의 약한 손을 아들의 어깨에 올려 놓으며, "베른, 네가 약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물건을 훔치려 하던 소년에게 걸어가서 팔로 그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잠시 똑바로 그 소년을 쳐다 본 후 "애야, 왜 이런 짓을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친 크롤리씨는 그 소년의 어깨를 팔로 감싼 채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면서 소년의 자동차에 생긴 문제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부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클러치가 고장이구나. 그게 네 문제구나."

한편 베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개의 클러치에 신경쓰실 건 뭐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넘겨 주면 될텐데." 그러나 그의 부친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베른, 이 아이에게 클러치와 배어링을 주어라. 또 압력판도 주어라. 그러면 될 거야." 부친은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젊은이에게 모든 부속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라. 이 트랜스미션도 가져라. 훔쳐서는 안된다. 부탁을 하거라. 어떤 문제도 해결책이 있단다. 사람들은 기계이 돕기를 원한단다."

베른 크롤리 형제는 그날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에 관한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폐차장 부속품점으로 자주 왔습니다. 매달마다 빅 크롤리는 트랜스미션을 포함하여 모든 부속품 값을 치르고 그에게 스스로없이 부속품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베른에게 베른의 부친이 왜 자기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대했는지 물었습니다. 베른은 그에게 말일성도의 신조에 대해 약간 말했으며 부친이 주님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도둑질을 하려던 이 소년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 제가 가졌던 느낌과 제가 취했던 행동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또 제가 도둑을 잡았고요. 저는 가장 혹독한 벌을 주려했지요. 그러나 저의 부친은 제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방법, 더 차원이 높은 방법,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훈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진대 더욱 아름다운 처소에... 거하리라는 소망을 가지리라 하였으며...

"... 하나님의 아들의 은사로써 더욱 복된 길을 예비하셨으니..."(이더서 12 : 4, 11)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인생의 피상적인 것은 추구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복음의 이상, 솔트레이크 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39~40쪽)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어느 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35~40)

우리에게는 더 화평스러운 가족과 이웃과 지역 사회를 기초로 형성되는 더 평화스러운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평화를 얻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친구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더 좋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주며 진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우정의 손을 내밀 필요가 있으며,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더디 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 방침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라는 간증을 덧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단

“조용하게 행해지는 감사의 표현과 느낌은 정결하게 하거나 병고침을 주는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하마터면 이 세상을 하직할 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제가 심장 마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여럿이 함께 드리는 단결된 기도를 통해서 오는 병고침의 힘을 몸소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친절로 인해 저는 기운을 얻었으며 병고침을 얻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힘도 회복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하는 동안 거의 순간적으로 제 마음 속에 일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갈 수록 점점 더 강렬하게 되어 병을 앓고 있을 때나 병이 회복되는 동안에 저를 압도했으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느낌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속죄는 모든 복음 진리의 근거가 되는 기초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어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었”(니파이삼서 27 : 13~14)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케 하셨도다.

“또... 모든 자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도다”(교리와 성약 76 : 41~42)

저는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 계시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온 인류를 위한 속죄를 통해서 구속과 구원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 : 15)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의식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과 감사입니다. 감사는 또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초입니다.

속죄는 공의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회개를 통한 자비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회개의 교리에 대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회개는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고

불완전하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예언자 몰몬은 사람들이 회개란 슬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나의 기쁨이 헛된 것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회개하는 중에 슬퍼한 것이 아니요, 주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저들에게 행복을 용납치 아니하시매,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였음이라.”(몰몬서 2:13)

몰몬은 우리에게 죄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되지만 우리가 다만 마음이 상하거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또는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회개의 기초를 그분들의 용서하심과 선하심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시하는 예수님의 본보기가 기록되어 있는 경전에 대해 저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최후의 만찬 때, “...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고린도전서 11:23~24)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마가복음 14:23)

구세주처럼, 우리도 각자 자신을 준비하여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속죄의 회생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 고찰해보고 있는 저에게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오빠인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으며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불쌍히 여기시며,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요한복음 11:33)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34절)라고 물어보시고는 “눈물을 흘리”(35절)

셨습니다. 그 후 “뜰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한복음 11:41)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43절 참조)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4절에는 예수님과 떡 다섯 개와 두 마리의 생선에 관한 예수님의 훌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요한복음 6:11)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신이 임하기를 부지런히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친히 땅에 엎드리어 이르시기를

“아버지시여 내가 택한 자들에게 성신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은 나를 믿는 저들의 신앙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간구하옵기는 저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신을 내려 주옵소서”(니파이삼서 19:19~21)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실하고 단순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사와 재능에 대해 밤낮으로 감사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더 높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드리며 생활하라”(엘마서 34:38)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베나민 왕은 “오 너희가 하늘 왕께 감사드림이 어땠겠느냐?”라고 가르쳤습니다.(모사이아서 2:19)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저는 저의 부모님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들은 복음대로 생활하셨으며 경전을 공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계셨으며,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도 지니고 계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한 가족으로서 명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고 또한 영생의 실재에 관한 절대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부친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는 총관리 역원이 되는 것의 참된 의미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당시 80세가 넘으셨던 부친은 눈 내리는 어느 겨울 날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의 방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화가인 부친은 그 사도의 가정에 관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사도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림을 전달받지 않고 친히 오셔서 그림을 가져 가시며, 그 그림에 대해 부친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친이 곧 있을 방문을 위해 모든 것이 잘 준비되도록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부친이 계시는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체설기로 치운 눈더미가 때문에 이르는 보도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친은 보도 위의 눈을 삼으로 치우시고 나서 또 눈더미를 치우는 힘든 일을 하시고는 몹시 지쳐서 고통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였을 때 부친은 과로에다 긴장과 불안에서 오는 심장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저는 부친께 쓸데없이 힘든 일을 하셨다고 근심어린 책망을 하였습니다. 부친이라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부친은 간간히 숨을 짧게 쉬시며 “애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지? 보도를 깨끗이 해야 한단다. 사도님이 눈더미 속을 지나오시게 해서 안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손을 들어 올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주님의 사도들을 알고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특권임을 잊지 말고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저는 주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우리를 이끌도록 부름받았던 분들에 대한 간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보좌들께 감사드리며 칠십인과 교회의 모든 신권 지도자들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 그분들이 보여 주시는 충실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친께서 모친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 모범을 보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팔순의 연세에도 부친은 당신이 우리를 떠나시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모친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우리도 하늘에서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헌신하였으며 모범으로 가르치신 모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삼십년이 넘도록 상호부조회에서 헌신하셨던 모친의 봉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 여섯 살 때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부터 감독님을 도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차를 몰게 하셨으며 그 때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참되고 충실했던 한 분의 형님과 누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60여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준 그분들께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메리와 두 아들 스티브와 데이비드와 또 그들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인생에 가져다 준 모든 기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저의 한 동료가 저에게 저의 가장 귀중한 재산은 바로 제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며,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자신의 동반자들, 모친이나 부친을, 형제 자매를 또는 아들과 딸을 갖는 축복을 받으신 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생존해 있는 동안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드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너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라도 영으로 이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46 : 32)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힐러리 부대관장(우)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46 : 26)

관리 감독으로서 저는 십일조와 헌물을 통해서 또한 자선 봉사를 통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바치는 이 교회의 회원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 그들이 보여 주는 모범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교회의 젊은이들과 그들에 충실함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은 자녀 및 손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충성스러운 세대입니다.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며 강화시켜 주는 다른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나 봉사나 보살핌을 우리들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배운 망덕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협조하거나 도와 주었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태도이며 더 심한 경우에는 도움받은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용하게 행해지는 감사의 표현과 느낌은 정결하게 하거나 병고침을 주는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는 고요한 평안,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찌게 하지 않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매일 드리는 감사는 과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미래에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은사와 재능으로부터 도움과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는 신성한 원리입니다.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성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즉 온 생애 동안 일어나는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신앙에 보탬이 되는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도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진실로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참된 감사를 느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감사의 느낌을 기도로 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우리의 도덕 환경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죄악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모든 영혼들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총관리 역원으로 지내 왔으며 22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희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을 접견했으며 그들의 함당성과 슬픔과 행복에 대해 함께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우리가 심히 염려해 온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인 환경

저는 오늘 교회 회원들에게 환경 보호론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도덕적이고 영적인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을 검사해 보면 오염 지수가 나선형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문경은 “악마의 유혹”으로 정의하는 “어둠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묘사해 줍니다. (니파이일서 8: 23; 12: 17) 이 도덕적인 오염이 어찌나

심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길”로 따라가 “금단의 길로 떨어져 들어” 갔습니다. (니파이일서 8: 23~32)

생명의 원천에 대한 의도적인 오염이 이제는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을 흐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사와 다른 생명의 불을 켜는 능력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환경

가치관의 급속한 부패는 성에 대한 몰두, 심지어는 강박 관념으로까지 보일 특징을 갖습니다. 혼전 순결과 부부간의 정절은 공공연하게 조롱거리가 되며 결혼과 부모가 되는 것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으로써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품위있는 사람이나 품위있는 사회의 덕성이었던 정숙함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마

악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그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즉 그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쫓겨났으며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악마의 사자들은 심지어 돼지 몸 속이라도 거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8: 31 참조) 그리고 계시는 우리에게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고 알려 줍니다. (니파이일서 2: 27)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것은 거의 예외없이 성 행위를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이에 대한 검열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공식적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밀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일들이 옷을 벗고 중앙 무대에서 연기를 합니다. 무대 뒤의 그늘 속에는 탐닉,

춘화, 변태, 불륜, 낙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추악한 것인 근친상간과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성경에서 언급된 역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사회는 임신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육체적인 생식 과정을 가르쳐 주고 십대들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막아 주리라고 생각되는 기구를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는 저야 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교회 뿐만 아니라 문명 사회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려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라는 항의가 일어납니다.

선택의 자유

지구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은 통과시키면서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은 어떠한 것이라도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나의 미덕을 지나치게 또는 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다른 하나의 미덕을 거리낌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즉 악을 보호하기 위해 미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죄를 저지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그것들을 합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달리 지적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쾌락에 탐닉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는 인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순된 주장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이 주장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같은 논리라면 각 개인은 스스로 얼마만큼 위협에 가까이 갈 것인지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모든 교통 신호와 방책들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 의지가 아님

“자유 의지”라는 단어는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의지는 **도덕적 의지**인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 “내가 준 도덕적 양심에 따라...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01 : 7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에 유의함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내가 마련하여 놓은 것을 나의 이름을 받든다 스스로 칭하는 자들의 동의를 얻어 나의 원수에게 더럽혀 지지 않게 하라. 이는... 나와 나의 백성을 거스리는 매우 심각하고 무거운 죄니라.”(교성 101 : 97~98)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인간의 법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지키도록 배우고(신약개조 1 : 12 참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교성 58 : 21)라고 배웁니다.

담대히 말해야 할 권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은 분명 도덕적 문제입니다. 생명도 도덕적 문제입니다. 도덕이 관여되면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높일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게 됩니다. 교회는 도덕이 관여되지 않는 한 정치 문제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을 접견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회원들에게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이며 도덕적인 율법

인간이 파기할 수 없는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교성 130 : 20) 도덕적이자 물리적인 하늘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력의 법칙을 폐지하려는 투표가 과연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할 수 없는 것

모든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빼앗아



국가가 양육하도록 하는 법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법은 사악할지는 모르나 강제로 집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일 이내에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를 모두 끊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이 그 법률에 들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규정은 절대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형벌이 아무리 중하고 법 집행관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규정은 자연 법칙과 도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코 집행될 수 없습니다.

15주가 아니라 15개월이나 1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법은 결코 집행될 수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전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고전 15 : 39)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법을 인간의 어머니에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끊어 버리는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연에 위배되는 인간의 법률을 옹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힘 때문에 다른 모든

생물과는 다르다는 하늘의 진리보다 더 위대한 것이 계시된 적은 없습니다.(모세서 6 : 8~10, 22, 59 참조)

악마의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소산이 아니라 단지 진화된 짐승에 불과하며 따라서 모든 육육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보다 더 행복을 파괴시킨 개념이 없으며 이보다 더 많은 슬픔과 상실과 비참함을 만들어낸 철학도 없으며 이보다 더 많이 가정을 파괴시킨 사상도 없었습니다.

동물은 도덕률의 지배를 받지 않으나, 그것들의 교미 본능에서 보이는 반응이 대체로 난잡하긴 하나 동물들의 교미 의식은 정형화되어 있으며 한계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은 교미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성과 짝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본능이 자신의 새끼에 대한 성적 학대로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생명의 근원은 결혼과 관계없는 쾌락과 매춘의 수준으로 전락되었으며 심지어는 악마적인 의식으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육육에 빠질 수도 있고 도덕률을 깨뜨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동물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더럽히면 모든 육체적 쾌락이 줄 가치보다 더 "격렬"하고 "견디기... 힘든"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교성 19:15) 엘마는 자신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나의 아들아, 내가 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일이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라고 말했습니다.

도덕률의 규범이 경전에서는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마서 41:10)라고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되므로 우리는 무한히 다양한 삶에 복음의 원리를 자유롭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찌어다"라고 이야기될 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곳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입니다. 이외의 다른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성취될 것이며 너희가 무슨 말을 하여도 소용이 없으리라"(엘마서 5:58)라고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부모의 척도

어두운 안개로 둘러싸인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 속에서 가족을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가장 위대한 일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며(해롤드 비 리, *엘사인*, 1973년 7월호, 98쪽) "가정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임프루브먼트 이라*, 1964년 6월호, 445쪽)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성공의 척도는 단지 자녀가 어떻게 변모될까에만 좌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가 이상적인 도덕적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만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한동안 그 부모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권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부모들은 반항적인 아들이나 딸들로 인해 번민하며, 부모로서 해야 할 바를

그토록 열심히 행해 왔는데도 왜 그렇게 속수무책인지 의아해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악한 영향력들이 언젠가는 다스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에게 인봉되고 신성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봉사함으로써 자신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는 없었습니다. 비록 양들의 일부가 길을 잃고 헤멜 수도 있으나 목자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며, 그들은 조만간 자신에게 뻗쳐 우리로 다시 모으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다음 세상에서든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보응하는 빛을 झा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찌면 가시밭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불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신뢰하십시오."(올슨 에프 휘트니, *대회 보고*, 1929년 4월호, 110쪽)

성전 결혼과 인봉 의식의 결봉의 가치와 그에 필요한 합당성의 표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성전의 제단에서 맺은 성약을 지킬 때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영원히 결봉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왕국의 회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로운 길을 택하고, 온 힘을 기울여 결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오직 선만을 행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한 명이거나 백 명이거나 관계없이 올바른 일을 행하고 신앙과 기도로써 그들을 주님께 묶는다면, 저는 그들의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부모에게 연결되며 지상의 어떠한 권세나 지옥의 어떠한 권세라도 그들을 부모로부터 영원히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숭상했던 셈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전3권, 조셉 필딩 스미스, 2:80)

회개

인생의 전투에서 악마는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망칠 방도를 몰라, 강제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죄악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모든 영혼들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악마는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열쇠는 회개라고 불리웁니다. 회개와 용서의 두 원리는 그 힘에 있어 악마의 엄청난 권세를 능가합니다.

도덕적 표준과 관계된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낙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처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42~43) 내가 다시 저희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회개의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0:16~17)

소돔과 고모라처럼 문명 사회들은 도덕률에 불순종함으로써 자멸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영이 늘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심이라.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때 속히 멸망이 이르나니."(나이 26:11; 창세기 6:3; 이터서 2:15; 교성 1:33; 모세서 8:17 참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심화되는 어둠의 안개로부터 우리의 도덕적인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로 그것의 균형에 불확실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아들이신 우리 구속주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선택된 세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이 ... 선택된 세대의 백성이며 거룩한 신권 소유자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신 특별한 백성 여러분 ... 저는 여러분에게 주변에 만연된 세상의 탐욕들을 버리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가슴 뿌듯한 경험을 몇 번 하였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하여 교회의 청소년들과 독신 성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이 전세계적인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나 됩니다.

몇 주 전 일요일 저녁에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 교정에서 가졌던 대규모의 노년의 모임에 참석하여 수많은 얼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 약 만팔천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밝은 눈동자를 하고 열심히 경청했으며, 시종 일관 열심히 집중해 들었고 또 모임이 끝난 후에는 감사의 표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저는 UCLA와 남가주 대학교 학생들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신학 연구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크고 중요한 삶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귀중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일요일에 모인 신앙심 깊은 젊은이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스위스 및 덴마크에서 이와 비슷한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을 한 곳마다 만난 청년들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만큼 훌륭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들이 저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어 복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고도 변함없는 감사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주일 전에는 남유타 대학 교정에서 가진 큰 대회에 참석했는데, 사망에 앉아 있는 회중들은 모두 젊은 이들로, 대부분은 그 학교 학생이었으며, 그들의 모습과 태도에서도 진전하고 영적으로 고양된 무엇인가가 엿보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밝은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고 해서 이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신앙이 흔들리는 젊은이도 있으며, 내면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럽지만 바람직한 도덕적인 행동을 탈선하여 큰 비극을 당하는 젊은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전체로써 볼 때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대한 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찬사를 드리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젊은이들 앞에 설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다음에 말씀하신 위대한 예언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저는 이보다 더 적절히 여러분을 묘사한 표현이 없으며, 또한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데 이보다 더 높은 이상을 여러분 앞에 제시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신문 편집인에게 보내 온,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구절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강, “물론들은 언제 그 유별난 것을 그만두고 미국의 주류에 동참할 것입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때에 제 책상 위에는 인디애나주 상원 의원인 덴 코츠씨가 쓴 연설문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츠 의원은 “교육계 및 정치, 의학, 실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에서 미국 청소년 문제를 다룬 연구 보고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긴급 구호 요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상원 의원의 연설문에 의하면, 그 보고서는 “미국의 십대 젊은이들이 그들 부모의 10대 시절보다 이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소외받으며 삶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라고 결론지어져 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제 자살은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950년대 이래 무려 300%나 증가하였습니다.

“10대 임신율은 1940년대 이래 621%가 증가하여,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소녀들이 임신하고 있으며, 이들 소녀들에게 임신을 시킨 10대 소년들 중 무려 85%가 결국 이 소녀들을 버립니다.

“10대들의 살인 행위도 1950년대에 비해 232%가 증가했으며, 현재 15세

부터 19세 사이의 소수 민족 청소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술, 담배 등의 중독도 해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반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술에 취하며, 마약을 처음으로 취하는 평균 연령이 13살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날 미국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과제는 그 근본 원인을 질병이나 경제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질병이나 비위생적인 빈민가가 문제가 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제는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근본 원인이 거의 자기 파괴 행위, 술, 마약, 폭력, 난잡한 성 행위, 행위와 믿음을 파괴하는 위험, 인격을 파괴하는 위험 등입니다.”(임프라이미스, 1991년 9월, 전 20권, 제9권, 1쪽)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만약 이것이 미국 청소년들의 주류라면,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흐름에서 멀어지도록 설득하고 격려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처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훌륭한 생활을 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전세계 곳곳에서 수백만의 청소년의 삶에 전염병처럼 미치고 있는 악 영향이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상실과 도덕적인 절대성 부재에서 오는 질병으로, 이들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지도자 없는 가정과 지도자 없는 학교 및 지도자 없는 사회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는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결정은 각 개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태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부모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잠언 22:6)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포기해 왔으며, 교육자들도 대부분의 경우 도덕 기준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대부분 그들의 능력보다 더 많은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때인데도 공공 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로 향해 난 문을 스스로 닫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일 확실한 도덕적 근원을 거부한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뉴욕에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디스코텍에 가기 위해 유타주 프로보에서 뉴욕으로 여행 온 한 가족으로부터 돈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족 중 한 아들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읽은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 비극은 그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로스엔젤레스에서는 4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다른 젊은이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대부분이 청소년 범죄 단체들의 싸움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권고하면서 베드로가 주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베드로전서 2:9)라는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청소년 여러분은 이 위대한 세대의 일원으로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열매를 취하고 그것을 생활에 선용한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락하고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으며, 과학과 탐구를 통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더 오래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세였는데, 지금은 75세가 넘습니다. 제가 살아온 아주 짧은 듯 보이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무려 4반세기나 길어졌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아 오는 그 짧은 동안 세상은 그 이전까지 전 인류 역사를 통한 것보다 더 많은 과학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처럼 축복받은 시기에 태어나도록 호의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풍부한 지식 위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어 더욱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어지는 크고 훌륭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옛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원리와 권세와 축복을 지상에 회복해 주셨으며, 확실하고 분명하며 명확한 계시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께서 살아 계신다는 지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지상에 오셔서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천사의 영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교리와 성약 13:1)를 베푸는 열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후, 불멸의 영광을 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성임을 받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실 때 그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라고 하시면서 친히 주셨던 그 신성한 권세를 지상에 회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과 빛과 진리의 위대한 출현의 일부로써 물문경이 주어졌습니다. 물문경은 성경과 동반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포함되어 있는, 오래 전에 서반구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예언자들이 자신들에게 계시된 지식을 담은 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살아 계신다는 간증을 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선택된 세대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상 이 훌륭한 시기에 지상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점점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침례한 요한이 행사하였던 것과 똑같은 신권을 받기 위해 안수를 받았습니까. 따라서

합당하게만 생활하신다면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로부터 위안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족이나 귀족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신권을 행사하시고, 그것에 합당하게 생활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국가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며 왕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하나의 거대한 회중을 의미합니다. 청남 청년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됨으로써 오는 권리와 특권과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 곧 "특별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되며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교리와 원리에 순종하는 한 다른 사람의 눈에 여러분은 더더욱 특별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가치관에 관해 배워 왔습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말씀할 때 주님이 돌판 위에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을 기초로 한 가치관에 관해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이 팔복과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그 밖의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야 할 윤리 규범과 가치관 및 여러분에게 익숙하면서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 성스러운 교리가 됩니다.

여기에 현대에 계시되고 있는 교훈과 계명이 계속 추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적인 권리와 율법과 계명이 조화되어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는 데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커다란



평화와 행복과 성장과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을 준수하지 못하는 만큼 그에 따른 열매가 실망과 슬픔과 불행이 될 것이며 심지어 비극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 이 선택된 세대의 백성이며 거룩한 신권 소유자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신 특별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워 온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무사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변에 만연된 세상의 탐욕들을 버리시도록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자제력을 앗아가는 맥주 및 기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세우신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약물을 취하거나 배포하기를 마치 끔찍한 질병을 피하듯 피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외설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부도덕한 일에 연루되거나 성에 대한 자제의 빗장을 풀어서도 안되었습니다. 소년들에게는 소녀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소녀들에게는 소년들이 매력있게 보이게 하는, 여러분 내부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억제하고 가라앉히며 잘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을 파멸시키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많은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일부 소녀들은 혼외의 자녀를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환상은 곧 사라지며, 심대의 임신은 단지 후회와 비참한 심정과 자기 멸시 및 불행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청남 청년들이 참다운 가치관을 이해하고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가게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풍부하고 활기차며 목적이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가르침과 원리들을 거스리는 일을 해서도 안되었습니다.

이 밖에 텔레비전에서 주로 방송되고 있는 경박하고 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을 청취하느라 오랜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도 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좀더 나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극심한 경쟁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사회에서 지워지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잠시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아래 왜 이곳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생명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며, 또한 여러분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밖에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서 맡게 될 기타 막중한 책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죽음의 문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으며, 살기 위해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아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이 “생명의 샘”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오후에 “죽음의 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다 생명의 요소들입니다.

최근에 저는 친구의 장례식에서 외과 의사 시절 동료였던 저명한 두 형제를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은 모두 사랑하는 반려자를 잃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면서 그들은 가장 힘든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죽음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외로움을 덜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그들의 누이와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를 위해 아침 식사를 요리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영과 육”(교리와 성약 88 : 15 참조)을 분리시키며, 이것은 남은 유족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고통은 참으로 큼니다. 어떤 죽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 슬픔의 정도가 나이와 관계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젊을수록 그 슬픔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 자비로운 구제를 받았을 때조차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 보낼 준비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명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애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도는 순수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으로, 주님께서 주신 다음 계명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 생활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을 흘리며”(교리와 성약 42 : 45)

더구나 지금 슬픈 이별이 없다면 우리는 후에 재회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은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시각

영원한 시각으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빌립보서 4 : 7)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훈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때, ...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보다 깊은 애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03쪽)

생명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의 자녀로 살았으며, 그곳에서 육체를 입고 지상에 와서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게 될 모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세의 생활은 시험의 생활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엘마서 12 : 24)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듯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인생의 여정 중에서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돌아올 수 있는 왕복표를 구매 놓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으며 살기 위해 죽음을 맞습니다.(고린도후서 6 : 9 참조)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 우리는 지상에서 자라기 시작하여 하늘 나라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

전도서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천하에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태어날 시기가 있고 죽을 시기가 있고”(전도서 3 : 1~2; 또한 엘마서 12 : 27 참조) 생각을 바꿔서, 만약 이 지상에 살았던 690억 인구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면 그 교통 지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책임있는 결정도 거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계획

경전은 죽음이 행복에 필수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보라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인 죽음을 모면하려 함은 온당하지 아니하니 그러한 일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겠음이라.(엘마서 42 : 8; 또한 이 9 : 6 참조) 죽음의 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열릴 때 우리가 장막 저편에서 재회를 목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제한된 시야가 넓혀질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시편 116 : 15)라고 쓴 시편의 시현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나 경전에는 영적인 죽음을 알려진 또 다른 형태의 분리가 있습니다.”(니파이서 9 : 12; 엘마서 12 : 16; 42 : 9; 힐라맨서 14 : 16, 18 참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소외 상태”(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3권, 솔트레이크 시티 : 북크래프트, 1954~56, 2 : 217)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될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로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로마서 8:13) 도덕적인 잘못을 고치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이 닦힌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쏘는 것은 죄”(고린도전서 15:56)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조차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회개하는 조건에서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생존이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13~14; 힐라멘서 14:18; 로마서 29:41~45 참조)



시련의 극복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시련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있고 오랜 고난의 날들을 견디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끝까지 견디라”는 그 신성한 계명의 의미를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4:13; 마가복음 13:13; 니파이일서 13:37; 22:31; 니파이서 31:16; 33:4; 옴나이 1:26; 니파이삼서 15:9; 교리와 성약 14:7; 18:22; 24:8; 등등)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것을 거듭해서 권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15, 14:6, 베드로전서 2:21, 니파이서 31:9, 16, 니파이삼서 18:16, 27:27 참조)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히브리서 5:8)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세익스피어도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역경을 이용해 보라, 얼마나 달콤한가

마치 두꺼비처럼 징그럽고 독을 품고 있지만, 머리 위에는 값진 보석을 쓰고 있다. (잠오실대로 하세요, 2막 1장)

주님은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교성 58:4)라고 더욱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의 생애

필멸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의 마음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알 수 없지만 많은 지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후 처음으로 가는 곳은 “낙원”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내게 알려주셨도되...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엘마서 40:11~12)

부활과 불사불멸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죽음 만큼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잡는 힘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끝났습니다. 낙원에서 기다리는 기간 역시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부활과 함께 끝납니다. 우리는 물론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낙원은 의로운 영들을 내어주며 무덤이 의로운 자들의 육체를 내어 놓으며 영과 육체가 다시 제것으로 회복되어 만민은 썩지 않을 것이 되며 불사불멸의 것이 되어”(니파이서 9:13)라고 배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스테이크 부장 내외는 교통 사고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에 있는 훌륭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다친 육체를 이 지상에서 살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율법이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는”(엘마서 40:23; 11:42~45 참조) 부활의 시기에 주님이 사용하실 똑같은 영원한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위로받았습니다. 첫번째 처소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그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현재 우리 몸안에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그때에도 여전히 사용될 것입니다. 몸 안에 살아있는 세포 각각에 있는 독특한 유전 코드가 부활 때 새로운 육체와 정신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를 이루는 데 여전히 사용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은 우리의 첫번째 처소에서 창조를 이루었던 기적과 똑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심판

부활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주님의 심판에 서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 같이 저들이 아버지께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약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나삼 27 : 14)

우리는 심지어 영원한 재판소의 문턱으로 나아오기 전에도 누가 손수 그 재판을 관리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시느니라. 주께서 그 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시매.

“누구든지 주께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로되.”(니파이서 9 : 41~42)

가족의 이어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죽음과 심판을 넘어 계속됩니다. 성전에서 인봉을 받음으로써 가족 관계는 계속됩니다. 그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조그만 쌍프로펠러 비행기를 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엔진 하나가 폭발하면서 불이 붙었으며, 불이 붙은 엔진의 프로펠러가

멈추었습니다. 비행기가 지상을 향하여 나선형으로 돌며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공포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행기가 급강하하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불이 꺼졌으며, 조종사가 다른 엔진을 시동함으로써 비행기를 안정시켜 우리를 안전하게 내려주었습니다.

그 악몽 중에 죽음이 다가옴을 알면서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 때 저는 제가 성전 의식을 해드린 조상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제가 영원히 인봉되었고 성약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 자라났음을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전 결혼이 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저에게 준 명에는 주님의 집에서 수행한 인봉이 주는 내적인 평화를 줄 수 없었습니다. 몇 분간에 지나지 않았던 그 악몽의 순간에 저의 전 생애가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빨리 제 인생을 회상했던 것으로 보아 저는 심판대 앞에 설 때 “명백히 기억하여” 라고 한 경전의 약속을 의심치 않습니다.(엘마서 1 : 18 ; 또한 11 : 43)

영생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생이 가능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해의 영광과 대동합니다.(고린도 전서 15 : 41 ; 교리와 성약 76 : 96 참조) 이를 위해 준비하는 자는 누구나 다 이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 필요 조건은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두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니파이서 31 : 20 ; 요한복음 17 : 3 참조)

준비하는 시간

한편,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할”(엘마서 34 : 32)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끝마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계속 뒤로 미루는 습관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좀 더 친절해지고 더욱 동정심을 갖고 감사는 빨리 하고 꾸중은 더디하고 더 많이 나눠 주고 기쁘게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니라(디모데후서 4 : 6~7)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신앙은 공포를 없애줍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옵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를지라도 두려워 말라 ; 이 세상에서 너희 기쁨은 가득하지 아니하나 내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교리와 성약 101 : 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요한복음 14 : 27)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또한 죽음의 장막이 매우 얇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신성한 것이지만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낯선 분들이 아님을 경험으로 압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간 이들이 죽음이라는 문으로 분리된 바로 옆방 만큼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의 순간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모사이야서 2 : 21 참조)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가능성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와질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행위와 욕망이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불사불멸과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희생의 축복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주님과 복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그 대상을 위해 얼마나 가까이 희생하느냐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영감적인 대회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아침에 하신 연설에서 회복된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도움을 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신 회생에 관한 쓰라린 경험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수레에 짐을 싣고 이동했던 용감하고 강인한 개척자들의 경험들을 상세히 듣는 동안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려진 영상과 제 가슴 속의 느낌이 지워지지 않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와이오밍의 높이 펼쳐진 벌판으로 생각이 자꾸만 되돌아갑니다. 저는 그 충실한 성도들의 고통을 그려 보며 오늘날 우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개척자들의 후손인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신앙을 축진시키는 그분들의 희생적인 모범에 영감을

받습니다. 저의 증조 할머니, 마가렛 맥네일 벨라드는 9살에서 11살 사이에 일어났던 개척자들의 회생에 대해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손수레 부대인 마틴 앤 윌리 부대에 속해 유타로 가기 위하여 서부로 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가 아버지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그들이 추운 날씨와 굶주림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후에 그 대열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 여행 대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 죽었다. “우리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일행들이 앞서 출발했다. 어머니는 내가 그 일행들과 함께 가기를 몹시 원했기 때문에 막내 남동생 제임스를 내 등에 “포대기”로 둘러 묶어 주셨다. 동생은 겨우 네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흥역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른 동생들을 돌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내가 제임스를 업고 갔다. 나는 서둘러 따라가 일행을 만났으며,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여행을 하였다. 그날 밤 한 친절한 아주머니가 동생을 내 등에서 내려 주셨다. 나는 동생을 포대기로 싸 무릎 위에 안고 앉아서 혼자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자 동생은 조금 더 나아졌다.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우리에게 아침에 먹을 베이컨 프라이와 빵을 조금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일 주일 쯤 여행한 후 나는 가족과 다시 만났다.”

저의 증조 할머니의 생애에 있었던 이 짧은 일화는 교회 초기에 우리 신앙의 개척자 선조들이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쳤음을 저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또한 극한 상황속에서 그들이 서로 돕고 보살피며 힘이 되어 주었고 아낌없이 나누었음을

가르쳐줍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인 것은 부족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주님과 복음에 대한 헌신은 무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그분들이 치른 희생과는 다르다 해도, 하나님 왕국에 대한 헌신은 우리의 충실한 선조들의 것에 필적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안락한 집으로부터 쫓겨나 가족과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다시 이루기 위하여 우마차라 손수레로 1,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여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의 회생에는 좀 더 미묘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선조들이 치른 희생보다 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희생과 고난 대신에 우리는 부정직, 부패, 마약과 알코올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으로 인한 질병과 같은 악과 파괴적인 세력 가운데서 복음의 원리에 진실하며 충실하게 남아있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모든 부도덕과 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텔레비전 쇼, 영화, 그리고 비디오에서 교활한 속임수를 쓰며 자주 나오는 외설과 폭력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풍성한 축복의 원천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1956년 봄에 홀리데이 7와드 회원들과 올림포스 산 가까이에 있는 언덕 위에서 함께 모였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지 칼로스 스미스 스테이크 부장의 인도하에 우리는 새로운 와드 건물 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와드가 탄생했을 당시에는 총 373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 중, 반 이상이 12살 이하였습니다. 저는 윌리엄 패트리지 감독의 제2보좌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하에 이 작은 무리의 사람들은 즉시 와드 건물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958년 와드가 나누어졌고 그래서 저는 홀리데이 12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지의 회원들이 새 건물 건축 비용의 50%를 지불했습니다. 교회 건물 헌납일이 되기 몇 주 전에 제 인생에서 지도자로서 겪은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날을 겨우 먹고



템플 스퀘어의 길매기 기념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꽃이 활짝 핀 나무들.

지내는 젊은 가족들로 구성된 우리 와드는 건축비 가운데 우리가 지불하여야 하는 몫 중 마지막 30,000달러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책무에 관해서 와드 회원들에게 무어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원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였고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돈과 개인적인 노동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마지막 30,000달러를 모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신권회 모임에 모였을 때, 저는 저의 할아버지 벨라드 형제가 사도로 성임되던 1919년 1월 7일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대한 간증을 읽어주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임을 압니다. 저는 제가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를 기억합니다. 이년 전 이맘때 쯤 저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레이맨들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포트 록 인디안 부락 지정 보류지”를 찾아가셨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따를 관례가 없었으므로 그저 주님에게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주님을 찾았던 그날 밤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시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곳... 이 방으로 이끌려 와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에게 주어질 또 다른 특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있다고 들은 방으로 인도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돋우어 올려진 연단 위에 제가 상상해 본 가장 큰 영광을 지닌 분이 앉아계신 것을 보았으며, 저는 앞으로 인도 되어가 그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그분은 미소를 띄우고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가 백만년을 산다해도 그 미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팔로 저를 감싸시며 제 볼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가슴에 안으시고는 저의 온 몸이 감동으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끝나자 저는 그분의 발에 쓰러졌는데, 그 발에서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온 몸을 통해 부풀어 오르는 깊은 기쁨으로 그 못자국에 입을 맞추었을 때 저는, 제가 참으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 80년이란 세월을 살아야 한다 해도 합당하게 살 수 있어서 이 생이 끝나고 그분의 면전에 돌아갔을 때,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앨빈 제이 벨라드... 의를 위한 전사, 솔트레이크 시티 : 북크래프트사, 65~66쪽)

주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켰으며, 이 충실한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 대한 더욱 큰 신앙으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가족들이 돈을 가지고 감독실로 와서, 감독인 제가 그들에게 부탁하였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개인적인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까지 와드 서기가 쓴 영수증은 30,000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희생은 참으로 우리 와드의

회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보다 더 위대한 희생을 바치고 단합이 잘 되며 서로를 보살피며 염려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하는 동안 우리 와드의 이쁜 사람들이 신권의 축복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으며, 청소년들은 의롭게 살 결심을 하였습니다. 젊은 형제들은 선교 사업을 하기에 온전히 합당하게 되도록 그들의 목표를 세웠고 그들 중 대부분이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젊은 자매들은 오로지 합당한 성전 결혼만을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봉사를 행하면서 큰 기쁨을 찾았고, 기쁨과 봉사의 영으로 매달 가정복을 교육과 방문 교육이 완전히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희생을 하는 가운데 우리 와드의 회원들은 사랑과 봉사라는 참된 복음의 영으로 함께 결속되었습니다.

희생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복음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그 대상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희생하느냐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랑의 지고한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그분의 생애와 성역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지고한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그분의 신성한 사명은 정점에 다달았습니다. 주님은 삶과 죽음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시고도 고통과 조롱과 고난을 받기로 택하셨으며,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으며 우리가 회개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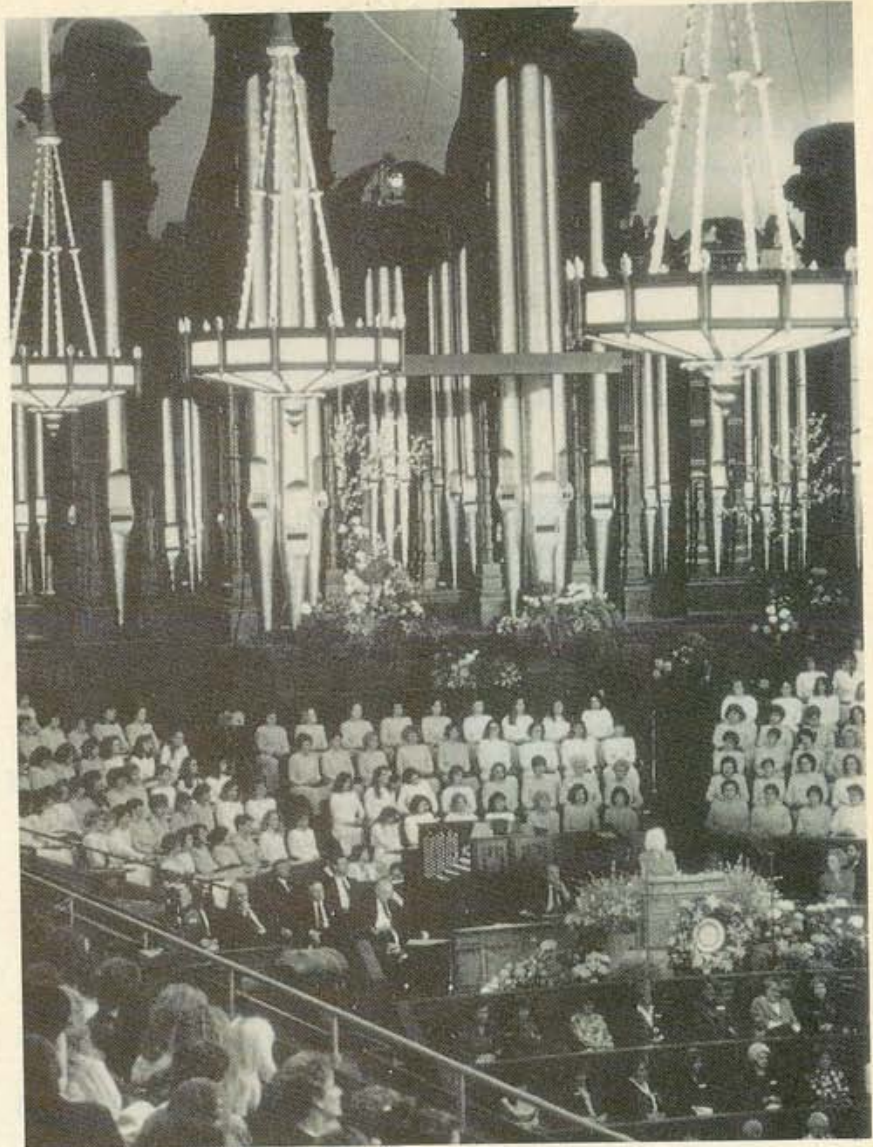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니파이삼서 9:20 참조)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과 재산에 대한 요구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바쳐야 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그리고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충실한 교회의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아들과 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바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위대한 봉사를 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같이 신앙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하여 희생의 율법을 생활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재정적인 부담이 경감되는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바쳐진 십일조가 신중하게 잘 관리되면서 교회 건축, 시설 유지 및 이전에는 추가 현금이 불가피했던 다른 많은 임무 수행 등을 위한 기금이 이제는 십일조에서 공급됩니다. 우리는 현금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됨으로서 더 높은 율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교리와 성약 58: 27~28)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손수레를 끌고 가던 개척자들이 보인 희생 정신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힘써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영원한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결케 된 영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해 오는 행복은 고난 속에서도 화평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일성도 가정에서는 희생의 원리가 가르쳐져야 하고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에 참된 예배의 영이 머물도록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일요일 예배 모임 일정에 대한 불평 불만이 일지 않도록 경계함으로써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현금을 관대하게 많이 바칠 수 있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정직한 십일조를 낼 수 있으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사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매일하고 잘 계획된 가정의 밤에서 매주 서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젊은 회원과 나이가 드신 회원 모두가 일찌기 준비를 시작하여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부름을 받도록 자신을 함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고 과부와 가난한 자 그리고 불우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닌 신권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함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보라치는 와이오밍의 벌판을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라는 요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화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산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각자 말일성도 생활 방식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일성도 생활 방식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기꺼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비이기적인 희생으로 그 욕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유일한 참된 교회인 그분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고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에 감사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의를 위한 위대한 힘

아테스 지 캡
본부 청년 회장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중심을 둘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와와의 애정어린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 가슴은 새로 부름 받은 청년 회장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인하여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함께 봉사했던 저의 보좌들과 청년 역원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 부름을 통해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주님에게 간구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영을 느꼈으며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손길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업을 인도하는 우리의 신권 지도자들의 지혜와 영감과 인도에 대해 간증을 드립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 핑클리 부대관장은 지금이야 말로 이 교회의 청년들이 선을 위해 위대한 힘을 발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도처에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이레에 살고 있는 15세의 청년은 "저는 하나님께 간구한 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곧 14살이 됩니다. 제가 학교 무도회에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할로인 무도회까지 답장이 없다면, 안가겠습니다. 저는 불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청년들 뒤에는 가르치고 사랑하고 손을 잡아주고 필요할 때에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꾸짖는 신성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과 충실한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지방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에서 티비아는 그의 딸들에게 "아나테브카에서는 우리 딸들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딸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리 바우크, *지방 위의 바이올린* 뉴욕, 썬빔 뮤직 : 1971)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마태복음 4:3)이라고 하며 악한 술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교리와 성약 6:21)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청년들도 그들의 신분을 선포하는 개인적인 성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믿는다."(*청녀 지침서*, 3쪽)

젊었거나 늙었거나 우리는 각자 침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몇 주일 전에 저는 교회 회원들이 비회원 친구들을 데리고 온 선교사들이 마련한 어느 노변의 밤에서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후에 그 소녀가 겨우 열두 살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소녀를 단상으로 올라오라고 청했습니다. 소녀는 연단 너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으나, 미리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훌륭한 느낌과 확신을 가지고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청녀 지침서* 3쪽)라며 청년 주제를 외워갔습니다. 그 소녀가 청년 주제를 끝까지 외우는 동안 청중들은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작은 '니과 종려나무' 옆으로 만든 오두막'에 사는 충실한 딸일성도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초라한 집에서, 14살 난 아름다운 청년은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절약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언젠가는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될 수 있는 성전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약을 맺고 우리의 위대한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집인 성전이 참으로 중요한 모든 것의 초점이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는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는 데, 그것들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서 영원한 가족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의 청년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청년 주제를 암송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중심을 둘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다음 노래 가사에서와 같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애정어린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왕 나의 목자는
결코 시들지 않는 선이이라
내가 그의 것이고
그가 영원히 내것이라면
난 부족함이 없어라
(헨리 더블류 베이커, "사랑의 왕",
종교서 모음집, 뉴욕: 허퍼, 1948, 78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에서 받는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재니트 시 헤일즈 회장
본부 청년 회장

"아마 성장에 관해 가장 힘든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계속 그 성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아레스 캡 자매님과 제인 맬런 자매님 그리고 최근 해임되신 임원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이 저에게 전화로 저의 보좌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저는 참으로 훌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대관장님은 "혼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 "자매님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되며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는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4년 전 제가 갑자기 미망인이 되고 다섯 자녀 가운데 막내가 선교사로 떠났을 때 저는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때 저는 참 많이 걸었는데, 어느 날 한 이웃에게 제가 청소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래요? 이유가 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제가

청소년들과 다시 일할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부드러워지며 더 많이 사랑할거예요." 또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도록 온 힘을 다해 격려해 줄 거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거나 버려졌다고 느낄 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변화함으로써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이사하거나 전학하거나 선교 사업을 나가거나 자녀를 낳거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거나 중병을 앓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혼자라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때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경전을 읽는 데 시간을 더 쓰십시오. 고요하고 조그만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느 낱말만 청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를 드리고 경전을 읽을 때는 좋은 느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 동안 경전을 읽고 기도를 드린 후 저는 매우 행복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언자 이노스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이노스서 1:9 참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혼자라는 느낌을 덜 갖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것은 여러분을 지원해 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장에게 보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돌보아 주고 관심을 보이는 가족과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한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네게 관심을 갖고 있단다. 네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실 너는 이미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네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란다. 변함이 없을 거야.”(조셉 위커, “귀한 말씀”, 시카고 트리뷴, 1991년 6월 3일)

우리에게는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어린 손으로 또다시 함성을 울리며 너를 맞이하리라.”(고리와 성약 121:9)노력이 없이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막내 딸애가 집에 와서 감동담이 자기더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아무래도 주일학교 교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딸 아이에게 “매리아, 지금은 그래도, 곧 익숙해질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성장은 우리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개개인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고 경험을 얻을 때 자신감이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솟아나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이 보는 앞에서 하는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작은 일들을 한테 합치면 그러한 일들은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몇 천 배 더 강한 것이 됩니다. 앨버트 슈바이처는 많은 사람이 보는 일을 작은 일에 비교할 때, 많은 사람이 보는 일들은 “깊은 바다 위의 파도에 일어나는 물거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앨버트 슈바이처, *내 삶과 생각 중에서*, 뉴욕: 에이지 홀트, 1949년, 90쪽) 이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기억해야 할 훌륭한 것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교회의 모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자질을 발전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생각하고 사랑의 봉사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와 진리를 위해 나아가면서 서로 도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나기 전에 준비되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록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회의 청년에게”, 여성 대회, 1986년 9월 28일)라고 하신 예언자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인 여러분,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의 이름을 외우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격려해 주십시오.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성장에 관해 가장 힘든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계속 그 성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인상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들이 자신의 낡은 생활 방법을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행복하게 나아올 때까지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며, 주님의 영광과 도움을 간구합니다. 니파이삼서에 보면,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니파이삼서 5:1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드리려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생애 동안 저는 많은 비참함과 슬픈 일과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저의 조국 대한민국은 제가 태어나서 온 생애 동안 살던 곳이며, 저의 사랑하는 부친과 모친, 그분들의 부모님, 저의 조부모님의 부친을 포함한 사랑하는 조상들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저의 다섯 자녀 중 넷이 지금 한국에 있으며 많은 가까운 친구들과 친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솔트레이크 시티에 올 때까지 한국을 떠나 살아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관장단은 저에게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먼저 주님의 제자인 총관리 역원이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더 계속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은 경어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저희 나라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 생애 동안 받은 그분의 사랑과 특별한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절망적인 어려운 시기였던 전시 동안 즉 저는 거의 제 삶의 비랑까지 방황했으며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배척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두 발로 서서 전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처와 양식이 이렇게 저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했으며, 결국 주님의 교회 지도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유서깊은 태버나클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훌륭한 저의 부모님과 그분들의 특별한 사랑과 제 생애에 미친 훌륭한 영향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초의 한국인 말일성도였던 김호직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가장 겸손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이 위대한 분은 가난에 찌들리고 거의 희망이 없어 보였던 몇몇 고난받는 한국인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주님의 대업을 위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주님의 사업의 기초를 놓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제 삶을 위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분처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번역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과 제 부친께서 영의 세계에서 이곳을 내려다 보시며 미소를 짓고 계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어 이 왕국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그 사랑에 감동되어 최초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리 대관장님, 킴볼 대관장님, 벤슨 대관장님, 헝클리 부대관장님, 몬슨 부대관장님 그리고 다른 많은 훌륭한 신도자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헝클리 부대관장님은 한국에서 여러 번 우셨으며 저희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가난한 동양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 한국의 저희 집을 떠나올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김포 공항에 나와서 저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네 자녀도 받은 영문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해 울며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저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 특별한 날, 아내와 함께 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서 우리의 손님들을 배웅했던 장소 맞은편 출국 라운지에서 서 있었습니다.

김포 공항, 저는 그곳을 잘 압니다. 저는 주로 방문자들을 모시러 가거나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해 수없이 갔습니다. 김포 공항에 갈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나 아내에게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저분들을 위해 심부름을 하고 운전하고 저분들을 위해 통역 등의 일을 할거야. 그래, 절대로 나는 아니야. 나는 한국에 남아 주일학교의 훌륭한 복음 교리반 교사가 될 거야."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저의 이기적인 속삭임을

들으셨습니다.

맥스웰 장로님! 장로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리아 하는 회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맥스웰 장로님은 “그 회생은 도매값이나 일시불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스도의 남자와 여자, 24쪽)

저는 그 교훈을 아주 속히 배워야 했으며 그 메시지의 권고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일본 동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동경에서 저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언어, 문화, 사회 제도 그리고 각 지역으로 어떻게 여행하는가도 배워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곳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가복음 8:3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여기 저기서 “지쳐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자신의 낡은 생활 방법을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행복하게 나올때까지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교회의 비활동이라는 병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치료해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신앙과 선행

스티븐 디 네이돌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인생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 돌진하게 되는 움직이는 대형 화면이 놓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도는데 쌍둥이 아담이 보였어요. 아담을 앞지를 수 있을거라고 달렸거든요.” 그런데 실은 아른은 거울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 돌진하게 되는 움직이는 대형 화면이 놓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철학자 포고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만나는데 그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윌트 켈리)

주님은 이것에 관하여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니라... 저들이 내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서 12:27)

우리의 연약함을 증거해 주는, 땅이 들이 들고 흠이 생긴 이마를 거울로 보면서 영혼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두가지 위대한 힘이 있음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경험한 일이 그 첫번째 힘을 증명해 줍니다. 한 스테이크 부장과 저는 조지아 아틀란타 근처에 사는 어느 젊은 여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9세인 그 자매는 교통 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자녀와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하는 고통에 화가 나있고 실망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자매는 쾌활했고 침착했으며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가 방문해 준 것에 감사했으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원의 계획을 믿고 있음을 형제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약속에 대해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구속의 회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팔로 감싸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예언자와 사도들이 회복의 진리를 가르쳐 왔던 이 연단에 저는 큰 기쁨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봉사하라는 이 부름에 감사하며 함께 지내는 총관리 직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저의 일곱 자녀들의 훌륭하고 능력있는 어머니이며 참으로 특별한 아내인 제 동반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스코트 장로가 하신 말을 인용한다면, 아내 마가렛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뛰어나습니다. 저는 아내를 매우 사랑합니다.

어린이들은 가끔 어른들이 놀랍고도 한편으로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재조명하게 해줍니다. 저희 자녀 가운데는 10살 된 일란성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을 구별하는 것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는데, 며칠 후 저는 쌍둥이 중 하나인 아른과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서 이마에 커다란 흠이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링컨 형한테 쫓기면서

우리는 그녀를 위로하고 강화시키려고
갔으나 오히려 겸손함과 영적인
고양감을 느끼고 그 자매의 훌륭한
신앙에 의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로 믿는 신앙, 그리고
구세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며 우리를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또한 이
신앙으로 인해 우리는 회개하며 계명을
지키며 회복된 교회와 합당한 신권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곳이나 또는 세상
여러 곳에서 주님의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
오는 "명과 흑들"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안정을 가져다 주는 두번째 위대한
힘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또 다른
한가지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대부분의 와드
회원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수영장 주변에서 와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와드의
새로운 회원 캐롤이라는 20대의 젊은
자매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캐롤은
갓났을 때부터 뇌에 손상을 입어 신경
조직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걷기가 매우 힘들었으며 손도
불구였습니다. 그녀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얼굴 또한 그녀의 말씨
만큼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캐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캐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저는
그녀로부터 위대한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키가 크고 잘생긴 검은 머리의
매우 건장한 청년이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약간 부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목을 움켜쥐고
수영장에서 나와 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캐롤이 불편한 몸으로
음식을 한 접시 담아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선행", 즉 순수한 봉사 행위였습니다.
캐롤의 선행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녀가 운전하는 차를 탄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언제나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주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캐롤과 함께 캐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창문에서 발코니에서 현관에서 "안녕
캐롤!", "어떻게 지내니, 캐롤", "잠깐
올라와 봐, 캐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안녕하세요, 감독님."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캐롤은 그녀의 선행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캐롤에 대한 가장 생생한 저의
기억은 그 해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와드에서는 스테이크에서
주최하는 신나는 5km 달리기엔 참
하기로 했습니다. 달리는 일이 신나는
일만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캐롤이 다른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캐롤에게는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은 결심했습니다. 캐롤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하여 매일 고된 훈련을
하였습니다.

경주의 끝인 지점은 경기장
안이었습니다. 이삼 백명이 끝인점 옆
관람석에 앉아서 주스를 마시거나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캐롤이

생각났습니다. 캐롤은 경주 코스 뒤에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 입구
밖으로 달려 나가 보니 숨을 헐떡이며
거우 걷는 그러나 경주를 끝내려는
결의에 찬 캐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끝인 지점으로 향하는 트랙으로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트랙 양편에
응원하는 수 백 명의 친구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캐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함께
달렸습니다. "위대한 선행"의 캐롤은
경주를 끝까지 해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지상 생활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이 끝날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고
도와 주었던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부터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연단에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의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선행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들어
올리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샘 케이 시마부부로 장로
칠십인 정원희

구세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각 있는 일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분을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걱정해 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시하신 그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전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았거나 받아보았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반응을 나타내 보였으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보이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니다. 독생자, 구세주, 세상의 구속주, 죄 없는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빛 등 수없이 많은 이름을 붙여 드렸으며, 그러한 이름을 들어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을 전할 때마다 가장 경건하게 또한 사랑을 가지고 간증을 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린도전서 12:3)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성령으로 확인된 것임을 아는 것 또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을 겸손하게 드려도 좋겠습니까?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심사 숙고할 가치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제가 지닌 제자로서의 신분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관명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어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과 관련된 주인공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삼년의 짧은 성역 기간 동안 행하신 가르침과 사업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미치는 심오한 영향력에 관해 우리의 생각과 간증이 따르는 그분의 신성과 사명과 성취를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무대의 중심에 둡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필멸의 생과 사후의 생에 영향을 주는 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대의 중앙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제자로서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측정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측정될 것이며, 이 반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본과 한국의 훌륭한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안부를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헌신적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서 그들의 생활에서 화평과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온정의 축복을 나누도록 전 세계의 수 십만 성도들 및 선교사들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관장단으로부터 이번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라는 지명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또한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만약 아내의 걱정과 염려가 연차 대회 말씀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면, 저는 확실히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보여 준 걱정과 염려는 저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 연단에서 전해진 그리고 전해질 모든 말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철십인 정원회의 회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업적을 따르는 선행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행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임을 증명하는 의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무엇을 하려는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분의 업적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이미 입증하셨으며, 품소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도록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셨고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초점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보여 주게 되는 데 이것은 곧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는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행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남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의미와 본질은 “...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 : 27)라고 하신 예수님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품을 지니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을 손길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던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복을 받아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니파이삼서 27 : 21, 22)라고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 : 15)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요한복음 8 : 31)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너희는 나를 따르라”(니파이서 31 : 10)라고 간단하지만 위엄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각있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것을 따르고 행함으로써 그분과 같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행하는 일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되며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대답과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진실로,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행함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사 불멸로 통하는 긴 도전의 여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은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온전히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와 의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변치않는 신앙을 통하여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

선을 추구함

조셉 비 워스틴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 회원들에게는 선을 추구하는 일이 하나의 높은 이상을 뛰어 넘어, 침례의 물 속에서 받아들이는 의무로서 지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드리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는 아마도 다섯 살 때부터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운데 줄 앞에서 세 번째 칸에 앉아 대회를 재미있게 지켜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보다 더 기쁘고 영적이었던 대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이번 대회가 가장 긴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회의 마지막 연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시카고 신문 편집자인 존 웬트워스의 요청에 의해 쓴 편지는 복음의 회복에 대한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웬트워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언자는 “말일성도의 발생과 성장, 박해 및 신앙에 대해 간략히 설명”(교회 정사 4 : 535)

하였는데, 이것은 예언자가 태어난 후 36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발간된 최초의 기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신앙개조는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을 간결하게 서술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모여 협의를 거쳐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한 사람이 이 주목할 만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은 요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부름을 받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교회 정사 4 : 535 참조)

신앙개조의 마지막 부분인 13조에는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것과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13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찾아서 나아가거나, 발견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연고자 노력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선조의... 축복을... 구하였(고)... 의를 쫓기에 더욱 큰 자가 되”(아브라함서 1 : 2) 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도 않고 무언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기를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는 것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것이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지 않고 선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할 수 있는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코 악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배우고 선택하고 자기 훈련과 능력과 친절을 키우고 매일, 매시간, 매순간 한번에 한 발자국씩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리차드 엘 에반스, 100일간의 사색, 4권 : 솔트레이크 시티 : 프레스 출판사, 1970년, 199쪽)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것들을

구한다면 분명히 그것들을 찾게 될 것이고, 반면에 악을 구한다면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시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있는 곳으로 피어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시되는 반역을 했고 쫓겨났으며, 따라서 우리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니파이서 2 : 18 참조)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사탄의 세상적인 거짓 메시지와는 반대가 될지 모릅니다.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좋으리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하고 남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매로 몇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니파이서 28 : 7 ~8)

우리는 세상에 살기는 하되 세상에 속해서는 안됩니다. 교회 회원들에게는 선을 추구하는 일이 높은 이상을 뛰어 넘어, 침례의 물 속에서 받아들이는 의무로서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리와 성약 1 : 31~32)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문제와 걱정으로부터 안전한 안식처를 만들어 가정에 화평과 행복이 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고 남을 존중하고 서로 서로 받쳐 주며 다툼과 불화를 피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끼리 대하는 것이 그저 아는 사이나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덜 예의 바르고 불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은 예의나 친절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사람들은 좋은 이웃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좋은 날이나 곳은 날 이따금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정한 우정을 쌓고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이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 주저하지 않고 돕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성탄절에 우리 이웃의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길을 본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뛰어나와 도왔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그다지 긴급하지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때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고 또한 급박한 상황이 없을 때라도 우리 이웃을 방문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구세주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

이 두 계명에 관하여 요한일서를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한일서 4:20~21)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당연히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두고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2:40, 주님의 방법으로 빼꽃, 솔트레이크 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90년, 3쪽)

최근에 제가 방문한 한 스테이크는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단합하여 후하게 금식 헌금을 바침으로써, 필수품이 없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기 보다는 자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고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식량, 의료 보호,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가 일부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부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야 하며, 사탄에게 굴복하여 실의에 빠지거나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해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벤슨 대관장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말일성도들은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며 결코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엔사인, 1986년 10월 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죄에 있다면,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앨마서 4:10)며 “잘못을 저지르고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뵈더라도 “그것은 불가능”(에즈라 태프트 벤슨, 뉴 이라, 1986년 6월호, 5쪽)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의로운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깨끗한 양심과 간사함이나 기만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질투와 시기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로움이 가져다 주는 평화를 우리의 가정에서 증진시키고 우리의 가슴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뜻과 일치하며 그분에게 용납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확실하게 알 때 오는 것입니다.(요셉 스미스; 신앙 강연, 솔트레이크 시티, 테저렛 출판사, 1985년, 3:5 참조) 결국,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은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덕, 의로움, 충실함,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등입니다.”(교회 정사, 5:134~135) 주님이 행복으로 인도할 선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생애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과 인쇄물이 더욱 자유롭게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잡지, 책, 그리고 다른 인쇄물 등 어느 것에서든지 깨끗하고 우리를 고양시키는 오락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것으로 판매되는 것들만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치와 합당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미국에서 있게 될 선거에서 우리는 고결하고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정부로 이끌어 갈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하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백성이 애통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직하며 현명한 자를 힘써 찾아 구하라. 선한 자와 현명한 자를 받들지어다.”(교리와 성약 98:9~10)

교회는 정치적으로 엄격한 중립을 취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선호하지 않지만, 모든 회원들은 정치적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표가 확실히 소문이 아닌 지식에 기초를 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권과 후보자들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도와 주시도록 주님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34편과 신앙개조 12조에 지상의 정부와 법에 관한 우리의 신조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신조와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굳건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 사업보다 더 영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휴 니블리 형제는 “성전은 우주의 작은 정밀한 모형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신비감은 다른 세계들과 이어져 있는데서 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질서를 지상에서 보여 주는 것이며 지상을 채우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니블리가 본 우주 속의 성전” 통찰력, 고대의 창문, 1992년 3월, 1쪽)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언제나 우리 내부에 있는 신성한 잠재력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의 시각을 제한된 세상적인 범위로 한정시켜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의로운 모든 교회 회원에게 변치않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성신을 구해야 합니다. 성신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진리를 나타내 보여 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고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신이 동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유혹해도 선을 추구하고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절하는 우리의 힘이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0 : 13 참조) 우리가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아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속주이심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신 예언자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으로부터 현재 우리의 대관장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 이르는 그의 후계자들 또한 하나님의 현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교회 회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리에 대한 가르침과 모범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지체없이 전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대표자 즉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복음 원리들을 가르치고 순결하게 살도록 가르치며,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 성스러운 봉사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하도록 도움으로써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나이 든 부부들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필수적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주 성전에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사업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영생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성전 사업이 그들에게 가치있고 유익한 만큼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치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집은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의 생을 볼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해주는 가르침과 성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감사드리는 곳이며 여러 부름과 직책을 맡아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 받은 모든 자가 교훈을 받는 집입니다. 또한 성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써 저들이 저희 성역과 이론과 원리와 교리를 이해함에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일에 있어서 온전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97 : 13~14)

정기적으로 성전 의식에 참여하면 영적인 강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내와 보호, 안전과 평화와 계시의 근원인 우리 일상 생활의

우리의 위대한 사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결국 ...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침과 모범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이틀은 너무나 훌륭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재음미하고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음악도 훌륭했습니다. 기도는 영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키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들었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훌륭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더욱 풍요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음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관장님이 93세의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어제와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미소와 손을 흔들여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모임을 마치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벤슨 대관장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이천 년 전에 한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모든 덕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범과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 유일하고 확실한 길인 그 위대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서 사후에 영과 육을 재결합하는 권세를 가졌던 최초의 유일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권세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율법에 따라 심판받기 위하여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날 살아계시고 머지 않은 장래에 승리로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생을 주시며 올바른 그분의 위치를 찾으시어 의로써 전 지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원수가 이렇게 하였고나, 솔트레이크 시티 : 팔리아먼트 퍼블리셔스사, 1969년 52~53쪽)

이것이 우리의 예언자이고 지도자이신 분의 간증입니다. 결국, 저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심을 모범과 교훈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사명임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신성함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베푸는 헌신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깊은 소망으로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분 후 이 태버나클을 떠나실 때 동쪽에 있는 성전의 침탑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건물의 가장 높은 탑 위에 있는 관석이 놓인 것은 내일로 꼭 100년째가 됩니다. 그 당시 총관리 역원들은 1893년 4월 6일에 성전을 헌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돈을 주님에게 바치도록 회원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과제를 달성했고 우리는 내년 이 시간에 이 장엄한 주님의 집 헌납 100 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의 회원들이 이를 수 없을 만큼 큰 목표는 없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벤슨 대관장님과 모든 총관리 역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어디에 계실지라도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미소를 보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로 무사히 돌아가시고 여러분에게 평화와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는 이 위대한 대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겸손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이 위대한 사업에 함께 하는 친구 및 동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엘레인 엘 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오늘은 사랑하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인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며 감사하는지 또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Willkommen in der
Frauenhilfsvereinigung Bienvenu. Ni men
hao. Bienvenidas.

오늘은 참으로 놀랄 만큼 많은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고 주님이 우리를 여성으로서 또 그분의 교회 회원으로서 축복해 주신 일에 대해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교성 25:13 참조)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이제 백 번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롭고도 떨리는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일본까지, 영국에서 뉴질랜드까지 파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세계 곳곳에 있는 자매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매들 개개인의 생활이나 환경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속한 나라와 문화만큼이나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만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여성이 된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헌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리는 형제님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며, 우리의 이해와 영성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선을 위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왔던 여성들입니다.

150년 전에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렀던 일리노이주 나부시의 자매들은 단체를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의 우리처럼 그들도 선을 위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시의 자매님들이 원하던 일은 나부 성전 건축을 돕고, 셔츠를 만들 바늘과 음식을 만드는 숟가락과 시를 쓰는 펜을 만들고 열병을 앓는 어린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물수건을 머리에 얹어 주는 일 등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역사적인 회복의 장소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작은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초기 나부에 살았던 자매님들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시시피강 뚝 위에는 성도들이 늪지대의 물을 빼내고 견고한 도시를 세워 정주하기를 원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가정과 비옥한 토지 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시온의 모형이었습니다. 훨씬 이전의 니파이 백성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모사야서 18:8)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안되는 여성들이 요셉 스미스의 붉은 벽돌집 가게에 모여서 힘을 합치기 위해 상호부조회를 탄생시킨 정신이었습니다. 초대 회장이었던 엠마 스미스 자매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비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태운 배가 급류에 휘말리면... 우리는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회와 긴요한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나부 여성 상호부조회 모임 기록, 1842년 3월 17일자)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매님들은 거꾸로 태어나는 아이를 받는 일에서부터 증기선을 타고 나부로 들어오는 가난한 개종자를 돕는 모든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확고하였으며 종종 아무것으로도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외로운 순간에도 마음과 손길을 나누어 주고 또한 물품과 기금을 모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에 나가 일하였으며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또 병자를 돌보고 거룩한 영감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으며 높은 곳에서 오는 권세를 받아 행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힘이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 3:27)라고 힘차게 대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심부름을 완수하였습니다.

최초의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했던 최연소자 중 밋세바 스미스라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제4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나부 시절 동안 잘 훈련받았으며 후에 “당신과 이 집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항상 가정 방문-사교적인 방문과 자선 방문 모두-을 마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성의 대표자**, 1910년 9월, 18쪽)

이 세상에는 많은 밋세바 스미스 즉, 평안을 말하고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 모토에 생명을 불어 넣어준 개척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 어떤 시대에는 상호부조회 여성들이 어려운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알치마에다 이삭을 주워 모아 그것을 곡물 창고에 쌓아 두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들은 병원을 세워 성도들의 건강을 도왔습니다. 오늘날에는 헌신적인 여성들이 말을 타거나 도보로 또는 버스나 자동차로 지명받은 가정을 계속 방문하면서 자매애에 바탕을 둔 지지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구세대와 신세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이상 여러 대륙에 걸쳐 여성들은 안락함과 개인적이 우선 순위를 초월하여 신앙과 종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 왔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굳건하며 항상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고린도 전서 15:58 참조) 자매님들은 또한 계명은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굳건”(고리와 성약 31:9)하십시오. - 항상 의롭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현명하고 친절하고 관대하여, 신중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온유하고 근면하며 정직하십시오. 우리 자매들은 그러한 깊이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도 갖고 있습니다. 시련과 세계적인 혼란과 유혹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가 있어도 계속 나아갈 힘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참되며,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잘 아시고 또한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그 계획을 실행하십시오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나무에서는 물론 교회의 모든 상호부조회에서 여성들이 겪은 경험은 여성들 개개인이 위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엘마는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며”(엘마서 37:6)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공헌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생활은 하루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학교를 방문하는 것, 집에서 통하는 농담을 하면서 웃는 것, 많은 일들, 자녀들과 기도하는 것,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는 것, 정원 손질, 음식 만들기, 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지역 사회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 자매 한명과 함께 배웠던 공과를 토론하는 간단하고 작은 일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간증을 강화시켜 주며,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무에서 상호부조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것은 더 좋은 날의 시작”(교회 정사, 6:607)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여성들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날들이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크든 작든, 시골이든 도시든 말일성도 여성들은 가정에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가정에서든 여성들은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새롭게 헌신하도록 해 줍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가족들을 격려하며 가르칩니다.

시온의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의 힘을 한층 더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매애가 일요일 모임과 가사 모임에서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중 누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손을 느끼지 못할까요? 어떤 자매님은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 도와 주고자 짧은 글을 써 보내거나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자매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서로의 감정을 느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1842년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에게 “우리는 서로 소중히 대하고 서로 돌보며 위로하고 가르침을 얻어서 하늘 나라에서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나무 여성 상호부조회 모임 기록, 1842년 3월 24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합쳐질 것이라는 그녀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으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년 전, 이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세계 각지의 회원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복음대로 사는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반응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진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 하나 종이에 싸여 있었으며 또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스크랩북 전체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진은 전문적으로 찍었으며 어떤 것들은 가정용 카메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에 자국어로 씌어진 짧은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라에 관계 없이 대부분 일본에서 보내온 다음 메시지와 비슷한 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완전한 자매애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또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의 촛불을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매애를 완성시키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자매들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으면 우리 자매들이 모든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손들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실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결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여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놀며 아기를 낳고 양육하며 꿈을 꾸며 울고 기도하고 웃으며 때로는 기뻐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필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교성 29: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복음 속에서 팔을 함께 잡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들을 가깝게 끌어당기십니다.

시온의 자매로서 우리는 여전히 절실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가족을 강화시키며 이웃을 축복하고 친구를 도우며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의 생활방식과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야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자매로서 우리는 앞으로 비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리노이주 나무에서 행해졌으며, 상호부조회 150주년 위상 방송의 일부로 제출된 것입니다. □

상호부조회의 사명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20 세기의 마지막 10년에 접어들어 1992년 3월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나라와, 언어와, 문화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며 모두 경탄을 하고, 아울러 통일된 목적과 단합된 자매애로 우리를 함께 결속시켜 주는 이 위대한 세계적인 단체가 보여 주는 그 힘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상호부조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의 여성들은 더욱 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삶이 향상되고 있으며 간증이 자람에 따라 주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들의 삶을 향상시켜 줍니다. 상호부조회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어떠한 결혼을 했든 안했든, 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그분이 자기에게 말을 건넌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으며 그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오랜 관습으로 인해 그녀는 예수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하시면서 그 여인이 깊이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신 것이 단순히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 자신에게 말을 건넌했을 때 우려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존재하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인습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시라고 권하셨을 때 새로운 이해력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14, 23 참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녀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후에 그들은 그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권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신 줄 앎이니라" (요한복음 4:42)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상호부조회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목표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사람이 그토록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구세주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더욱 온전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크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와 돌로 치려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그 여인을 책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청결케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11) 예수님의 권고는 분명했으며 행할 것인가의 선택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과거의 행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떠한 생활을 해왔든 상관없이 품위있는 생활과 봉사, 그리고 의로움과 기쁨에 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150년 전 그 시작과 더불어 상호부조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강화시키도록 도와 주는 방법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우리의 가족, 이웃 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때때로 상호부조회나 교회의 임무로부터 얻기도 하지만 자매 개개인들이 알아서 실행하고자 하는 소망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으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34 참조)

간증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들을 강화시키며 우리의 자매애에서 기쁨을 찾는 상호부조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봉사와 발전의 원리들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새로운 면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속죄하신 구세주의 의로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하신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범세계적인 자매애

가족을 강화함

오 대륙에서 온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짧막하게 전함.

개인적인 간증을 키움



짐바브웨의 무카이 마포사 자매

저는 한 이삼년 전에 물론경을 처음 읽었으며, 그후 오 개월 만에 가족과 함께 짐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책은 즐끈 저의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또한 이 책을 공부하려면 인도와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성령이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경을 공부한 후, 저는 또한 이 책의 참됨에 관하여 주님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저의 간증을 거실에 있는 식물에 비유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식물을 길러 왔는데 그것을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새순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친구들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는 이사를 할 적마다 그 식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규칙적으로 양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식물은 항상 푸르고 싱싱합니다. 저는 맑은 공기를 쬐고 햇빛을 받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간증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식물보다 더욱 가치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마음의 주파수를 성령에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시들지 않는" 사랑에 대한 따뜻한 느낌을 얻음으로써 간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식물이나 장식품들은 여기 이 지상에 남겨 두고 가지만 간증은 훨씬 더 가치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간증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강한 간증을 키우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입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일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예언자를 부르시며, 오늘날의 살아계신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간증을 강하게 유지한다면 언젠가 그분을 만날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호주의 레이 스타코브스키 자매

몇 년 전에 청년이 끔찍한 교통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가 교회로 다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과 감독의

보살핌으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오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장로로 성임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을 벗고 청년의 시신이 안치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루 위에 놓여 있는 그 청년의 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례가 왔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남편을 잘 내조하고 가족을 강화시키며 항상 가족을 사랑하라고 각별히 충고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마오리 여성은 아들이 간 곳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있는 그녀의 아들과 함께 단합시키도록 남은 가족과 친구들을 이해시키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사탄이 선하고 도덕적인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가족의 단합이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자매로서 우리는 딸이 되고 자매가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와 가정의 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듣고, 느끼며, 함께 지내는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를 확고하게 지탱해 줄 뿌리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내려 주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가족에게 세세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교리와 성약 68:28) 가르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을 키우고 실천함



한국의 김정숙 자매

여러분은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라는 경전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8:125 참조) 저는 이 구절이

기독교 봉사 정신을 통해 사랑을 키우고 실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사랑은 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동양 꽃꽂이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꽃꽂이 사범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약 10년 전에 저는 사범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의 기술과 저의 모든 지식을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주 금요일 상호부조회 활동의 하나로 교회에서 자매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발전하였으며, 저는 자매들이 저와 같이 꽃꽂이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매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자매들에게 좋아하는 성구를 하나씩 외워 와서 모임에서 발표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꽃꽂이 모임을 통해서 자매들은 서로에 대한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는 꽃꽂이를 통해서 조화를 배웠으며 더욱 더 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현재 사범이 된 자매들도 있으며 서울 성전의 꽃꽂이 장식도 그들 중 한 자매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꽃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꽃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흩어진 꽃들을 하나 하나 아름다운 꽃꽂이 작품 속으로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같이 흩어져 있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와드나 지부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매들이 보여 드리는 장엄한 예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8년 동안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키우고 실천할 수 있었던 특전을 누리온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꽃꽂이를 통해서 이 딸을 조그만 도구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여성 개개인을 축복함



멕시코의 마리아 데 아란다 자매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니서 10:4)

얼마나 훌륭한 성구이며 얼마나 참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제 가슴과 마음속에 깊이 와 닿습니다. 두 젊은 자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물론경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집을 방문해서 네 자녀와 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는 몇 년전에 죽은 아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으며 또한 저의 남은 자녀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결정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 결정을 한 순간부터 저는 늘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일년 반 후에 저의 남편이 당시의 모든 전통을 제쳐 놓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선한 사람이며 훌륭한 남편이고 또한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저는 손자녀가 일곱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는 듯 제 남편은 성전 인봉자이고 우리 스테이크이 축복사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있고 저는 상호부조회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복음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해주시며 저의 왕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저의 가슴속에 살아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 깊이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복음을 회복하였음을 압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물론경이라는 귀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독일의 도리스 세르텔
자매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 계시고 저를 사랑하시며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근본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후로 저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항상 그분을 따르도록 노력한다면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간증을 느끼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모르나이는 온유하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기록했습니다 (모로나이사서 7:44 참조)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간증과 결혼 생활과 가족, 그리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한 투쟁이 더욱 격해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투쟁에 휘말려 실망하고, 용기와 힘을 잃으며, 자포자기와 고독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정체를 잃고, 또는 퇴보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뻗치는 그 순간에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다시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길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은 우리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우리나와 서로 주고 받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안팎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살아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단합된 위대한 자매애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침과 진흙과 기가쭈꾸

지에꼬 엔 오까자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알로하! 여러분과 함께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이 문턱에 서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자매애를 실천하고 성도로서 곳곳이 생활하며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지난 150년의 세월을 기념하며 축하합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 우리의 자매들이 상호부조회 창립을 기념하며 "1992년은 천사들이 그 당시의 여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해였다."라는 회고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 당시의 여성이란 바로 우리들이며, 아시다시피 천사들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신 분은 요셉 스미스입니다. (교회정사, 4:605 참조) 저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영성을 증진시키고 강한 자매애로 단합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봉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본말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가쭈꾸입니다.

기가쭈꾸는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하고자 하는 내적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의 단체로서 위대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15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덴버에 있는 한 스테이크에서는 두껍고 따뜻하고 편안한 이불을 수십 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집이 없는 사람과 궁핍한 이들에게 기증할 것입니다. 둘째, 몇몇 자매들이 비공식으로 모여서도 위대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역원들은 장갑을 끼고 쓰레기로 어질러진 길을 자진하여 청소하였으며 그러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열의만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위대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식처가 될 진정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줄리아 마뎀벨다 자매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이고 조그만 봉사의 행동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운동 그리고 혁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행동을 낳게 하는 그것은 바로 개개인의 가슴속에 있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돛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아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사리(인도 여성이 두르는 것)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장을 입고 있습니까? 저의 말을 영어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갈로그어(필리핀 루손섬의 원주민 말)로 듣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가슴 속의 말을 들으십시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의 열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느껴 보십시오!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기가쭈꾸가 되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루를 쓸면서 "지에꼬, 기가쭈꾸 어린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요?"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얼른 뛰어가서 쓰레받기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의 위대한 경전 구절을 읽고 나서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음악 순서를 맡은 상호부조회 합창단.

개단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오직 훌륭한 대업에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지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너희에겐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58:27~28)

여러분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로써 많은 일을 행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구세주로부터 옵니다. 마음속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느껴 보십시오!

소경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나의 얼굴을] 씻으라”(요한복음 9:1~7 참조)라고 하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을 위한 봉사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그 소경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의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일상 생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개인의 필요 사항을 아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개인보다는 프로그램을 중시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즉시 그가 가진 자원 즉, 침과 진흙 그리고 돕고자 하는 열망만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편리한 의료 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지도 않으셨고 각막이식을 위한 수술 팀을 조직하지도 않았으며 마스크를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자가 아니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거나 나이가 충분히 들지 못했다거나 혹은 젊지 않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빈 손과 약간의 침과 약간의 흙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예수님은 단지 그 소경의 눈만을 고치시고 그냥 그 사람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소경이 스스로 병을 고치기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심으로써

그에게 신앙을 행사하고 그가 지닌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해야 할 길은 단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이 거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 자신의 기적에 그 소경을 참여시켰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 죄우명은 사랑입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옛 예언자들처럼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여호와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열왕기상 8:59)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와 같이... 되도록”(모로나아서 7:48)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위를 쳐다보고 전진함

엘레인 엘 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저희 아들 넷이 모두 집에 있을 때면 남편 조우와 저는 아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면서 여름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이킹을 가장 즐기는 장소는 높은 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여 오르는 도전과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의 정상에서 있는 듯한 유쾌한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지평선을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산과 계곡의 모습을 즐기곤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했던 모험은 산길을 따라 인접한 세 개의 산을 등반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등반은 역시 길고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곳에 따라 각각 다른 특유의 장엄함과 경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엄한 경치에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 위압감과 성취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정상에서 손에 손을 잡고 세계를 둘러서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서서 우리는 세계 135개의 국가와 영토에 뿌려진 신앙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풍요로운 사랑의 결실을 둘러봅니다. 간증을 쌓고 개개인이 축복받고 또 사랑을 키우고 행사하며 가족이 강화되는 것과 300만 이상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자매애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만족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곳은 실제로 산 정상일 수도 있고 초원의 야산이나 사막 가운데 있는 모래 언덕일 수도 있으며 혹은 좋아하는 해변가이거나 눈으로 덮인 언덕의 꼭대기나, 여러분 현관의 가장 높은 계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팔과 팔을 끼고 바라보기를 요청합니다. 함께 새로운 영적인 산으로 동반합시다. 이사가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이사야 2:3)고 하신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여행을 함께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까지와는 견줄 수 없는 영적인 수준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더 큰 이해력과 강한 마음을 구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들 각자에게 중대한 의미를 주는 모토로 삼읍시다. 그것 때문에 전세계가 상호부조회의 자매이자 하나님의 딸들이 우리로 인해 축복받을 것입니다.

일찌기 방송매체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시온의 여성들이 이렇게 가깝게 연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대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나아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소녀시절 캐나다의 록키 산맥 구릉 지대에서 자랐던 저는 종종 멀리 보이는 산의 정상을 오르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세계의 대륙을 가로질러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제가 보았던 산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의 재림을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이 지상에 살도록 축복받은 성약의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언제나 기뻐하기 바랍니다. 저는 야곱이 "나의 영육은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하여 기뻐하며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우심을 기뻐하며 주의 권세를 기뻐하며 자비로써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으로 하여 기뻐하며"(니파이서 11:5)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성약의 여성이 되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한 부름입니다. 우리의 성약은 우리를 고결하게 만들며 영감과 의욕을 불어 넣어 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맺은 성약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위대한 영적인 축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인 우리는 "저를 볼 것이며, 우리가 저와 같이 되는"(모로니서 7:48)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훌륭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리하이를 따라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던 새라이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양식"(니파이일서 2:4)을 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며 "주 하나님께 감사"(니파이일서 2:7)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기도"(니파이일서 5:1~2)합니다. 또 어떤 때는 친어머니건 아니건 상관없이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권고"(니파이일서 8:37)하기도 하고 또 힘써 일합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 신앙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니파이일서 17:20 참조) 그러나 새라이아와 같이 우리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인 승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가족이 여행하던 동안 니파이가 활을 부러뜨린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한 음식을 얻기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니파이 일서 16:30) 저는 그가 정상에 올랐을 때 제가 그런 높은 곳에서 종종 그랬던 것처럼 그와 가족이 얼마나 멀리 왔으며 또 앞으로

계속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보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선 곳에서 여러분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얼마나 멀리 동반해 왔으며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성취해 왔는지도 압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도 또한 구세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직접 "나는 너희 앞에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주리라"(교성 84 : 88)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통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영적인 고도에 오를 것입니다.

어느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 자매들이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매들에게 이야기해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한 지역 봉사자가 한 대답에 대해 최근에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회장은 교회 내의 각 상호부조회 조직이 그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000개의 상호부조회 조직이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말씀이세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위대한 고지에 이르는 이 여행은 새라이아의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느 평범한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행은 자신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보다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기억하여 승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영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한번에 한 발자국씩 성실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제겐 오랫동안 저의 심각한 고민거리를 함께 이야기해 왔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확신이 안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녀는 늘 제게 의욕적으로 "야, 굉장한데! 엘레인, 난 이걸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또 한 가정씩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독신이건 기혼이건 젊은 자매이건 나이든 자매이건 자녀가 있건 없건 우리는 초기의 영감받은 상호부조회 지도자였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의 다음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되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적은 자매는 없습니다."(여성의 대표자, 1873년 9월 15일, 62쪽) 우리는 혼자 살든 대기족으로 살든 신앙의 빛으로 가정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부모 형제 그리고 가족으로 여길 만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동료 향해자로 생각하십시오.

훌륭한 신앙을 지닌 어떤 여성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멀리까지 떠나 갔지만 신앙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그녀는 정년 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은 평생의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팔로 감싸 안아 그들이 함께 모이도록 했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신앙을 지니게 되었는 지 묻자 그녀는 "문제에 등을 돌리고 빛을 찾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할 때 특히 가정과 가족 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빛을 가족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세상의 문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고 꾸준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르십시오. 인생을 살다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신앙의 햇살을 쬐서 밤이 길고 여행이 힘들지라도 계속 밝게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용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용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주 용기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 홍수로 파괴된 집을 재건하기도 하며, 학교도 가고 때로는 피곤해서 즐기기도 합니다. 적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생계를 꾸려 가는 분도 계시며, 죽음에 직면하기도 하고, 가뭄에서 살아남기도 하며, 이혼한 후에야 용서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개합니다. 옛습관을 버리고 대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삽니다. 자녀의 신발이 필요할 때도 십일조를 냅니다. 따뜻한 옷 하나 없이 겨울을 지냅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교회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불완전하다고 느낄지라도 자신을 신뢰할만하게 일합니다. 여러분을 돕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뻗칩니다. 고질적인 가족 분쟁을 해결합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둡니다. 용기를 키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잘 살도록 도와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모세는 미지의 새로운 땅으로

상호부조회의 정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신명기 31 : 6)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발전할 때 기뻐할 것이며, 마음속으로는 이사야의 다음 말씀을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라”(이사야 55 : 12)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영적인 이해력을 통해 자신을 감사의 영으로 채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시온의 자매들은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현재 살아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앞으로써 평안을 느끼십시오.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의 결실로 무한히 큰 기쁨을 내게 주셨다”(엘마서 36 : 25)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받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 : 13)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마음에 기억하셨으며 내가 심히 기쁘도다”(모로나이사 8 : 2)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팔과 팔을 끼고 손에 손을 잡고 모래나 바위 또는 집의 계단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원인 자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생을 구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자각을 통해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시며 위를 쳐다보고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모든 가정과 나라에서 “저는 살아 계시다”(교성 76 : 22)라고 하신 말씀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몇 해 전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 파이오니아 스테이크의 제6와드 주일학교 교실에 걸려 있는 사진 한 장을 본 기억이 납니다. 1905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의 제일 앞 줄에는 벨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머리를 땅은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된 벨 스미스 스페포드 자매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성들이 오늘날보다 세상에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기회의 문이 지금처럼 넓게 열렸던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성에게 있어 참여와 흥분과 도전과 능력이 요구되며, 균형을 잘 잡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우며 우선 순위를 현명하게 정한다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린도후서 3 : 6)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정신이 오늘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용솨음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회복의 속삭임을 들으며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주시합니다.

처치 뉴스에서 성 페테르부르크(러시아)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아이린 막시모바 자매는 교회에 들어온 후 변화되는 여성들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더 큰 동정심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매들은 경전을 읽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러시아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7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가치있는 것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호 처치 뉴스에는 구 소련에 곧 3개의 새로운 선교부가 세워질 것이라는 극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지부가 조직될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영감받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상호부조회의 자매 여러분께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안부를 전해 드립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파드에서 특별히 마련한 유선 방송으로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지켜 보고 계십니다. 외국에 출장중이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과 교회의 모든 총관리 직원들의 인사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내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엘레인 잭 회장님, 지에코 오까자끼자매님 에일린 클라이드 자매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신 여러분의 청소년 지도자들과 여러분의 훌륭한 어머니와 교사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색다른 표현을 빌려 보겠습니다.

한 소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귀한 모든 여성도 한때 소녀였지요.

것이며 준비된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증가될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이 되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신중히 고려하여 문맹퇴치라는 주제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읽고 또 쓸 줄 아는 우리는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을 방해하고 지성을 무디게 하며 희망을 흐리게 하는 어두운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절망의 구름을 걷어 버리고 자매들의 머리 위로 비치는 하늘의 신성한 빛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루이지애나주 몬로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어느 사랑스러운 흑인 회원이 밝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저는 교회에 들어와 상호부조회 회원이 되기 이전에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모두 가난한 소작인들이었습니다. 부대관장님, 그런데 저희 백인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백인 자매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저는 그 자매가 성경을 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 : 28~30)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느꼈을 그 큰 기쁨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몬로에서의 그날, 저는 여러분의 승고한 목표에 대해 영을 통해 새로운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성들의 공과 과정을 준비할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확고히 따릅니다.

1. 모든 여성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자신의 특수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개성과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았다.
2. 신권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유익을 준다. 여성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권으로 인해 남성들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가정은 개개인이 주님 앞으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기본적인 조직이다.

4. 자선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여성 프로그램을 조직한 기본 목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네 가지 목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둘째 : 여러분의 남편을

지지하십시오.

셋째 :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하십시오.

넷째 :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미혼이건 기혼이건, 연령에 상관없이 배우고 발전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지식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나누는 것이

곧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은 오히려 잃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지지하십시오.

남편과 아내 쌍방이 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발에 짓밟히도록 남자의 발에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되도록 옆구리에서 취해졌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팔 아래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서 취해졌습니다. "인내하고, 상냥하고, 사랑하고, 사려깊고, 이해하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을 지지하십시오. 자녀들은 종종 여러분의 애정이 필요치 않을 만큼 성장해 있을 수도 있지만 남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호부조회 회원들 가운데는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결혼할 기회가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사는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서 인생의 진로를 가르쳐 주시고 외롭고 동정이 필요한 그 적막한 순간에 평온함과 확신을 안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하십시오.

거룩한 장소인 가정이란 주님의 영이 거하시니 천국이라 불리는 안식처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집에서 교육과 모범을 통해 진리를 배운 자녀들은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녀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환영받으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받으며,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으며,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는 사랑의 산물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봉사하게 됩니다. 제임스 러셀 로웰은 그의 대작인 *론팔 경의 시현*에서 이것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건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주는 사람이 없는 선물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을 모두 합쳐도 단 한번 행한 사랑이 더 비중이 나가기 때문이다.” 외로운 자 실망한 자를 기쁘게 하고 흐느끼는 자 피곤한 자를 위로하며 살며서 친절을 베풀라. 오, 오늘은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라

상호부조회를 나타내는 신조 중 하나인 자선 봉사의 핵심은 자신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반지와 ... 보석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물이란 자신의 일부를 주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 네 가지 목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2) 여러분의 남편을 지지하십시오, 3)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4)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하늘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특이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웃 연맹의 물론 관계 국장인 포크맨 디 브라운 형제가 뉴질랜드 선교부를 방문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제가 곧 그곳으로 떠날 것을 알고 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암으로 쓰러진 누이 벨바 존스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녀가 멀리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녀의 외아들에게 어떻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할지”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바램, 이를테면 그녀가 간구하는 것은 아들이 선교 지역에서 충실히 끝까지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아들의 반응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인 라이언 존스 장로는 바로 일년 전에 똑같은 무서운 병으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존스 장로에게 어머니의 병에 대해 알리고 또 그가 선교 사업 기간을 마칠 때까지 뉴질랜드에 남아 봉사하라는 그녀의 소망을 전하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뉴질랜드 성전 가까이에서 열린 선교사 모임을 마치고 저는 존스 장로를 만나서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존스 장로만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악수를 한 후 그는 “어머니께 제가 계속 봉사하며 또 기도하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다호의 로스트 리버 스테이크 대회에 맞추어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번즈 빌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예배당의 동편으로 제 시선이 이끌렸는데 거기에는 아침

햇살이 앞 줄에 앉은 어느 참석자를 비추는 듯이 보였습니다. 빌 스테이크 부장은 그 자매가 벨바 존스 자매라고 소개하면서 “그녀의 아들은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매우 악화되어서 축복을 요청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벨바 존스 자매가 어디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많은 스테이크 중 다른 스테이크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헌신적인 상호부조회 회원의 신앙의 기도를 그분의 방법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그 자매와 함께 아주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들 라이언의 반응과 결정에 대해 낱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벨바 존스 자매가 라이언을 다시 볼 때까지 살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존스 자매는 실제로 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라이언은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한 달 전에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하였습니다.

로스트 리버 스테이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겸손한 자매님이 신앙을 통해 이루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햇빛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벨바 존스 자매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분이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 다음에는 아들이 신권의 부름을 수행하도록 지지했으며 가장인 남편이 없을 때에도 가정을 강화했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봉사했으며 상호부조회의 정신을 본보기로 보여 준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 신앙을 연료로 삼아서 영감을 통해 다음 150년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150주년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여러분]께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민수기 6 : 24-26) 기원하며 평강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2년 4월 4~5일에 개최된 제162차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선택된 세대입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상 이 훌륭한 시기에 지상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점점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우리에게는 화평스러운 가족과

이웃과 지역 사회를 기초로 형성되는 더 평화스러운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평화를 얻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친구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우리 각자가 당면하는 독특한 문제를 이해한다면, 저는 우리가 더 큰 사랑과 인내와 관용과 보살핌으로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셉 비 위스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순종하고 의로운 모든 교회 회원에게 번치않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성신을 구해야 합니다. 성신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고 또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신이 동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젊은이 여러분들은 아무리 재미있고 여흥적인 것이라 해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하등의 가치도 없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단순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사와 재능에 대해 받들도록 감사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교회 회위 부모 및 교사가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도표는 1992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과 관련된 199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1992년 열기세례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연사
2	안셀 아브레아; 샘 케이 시마부꾸로
5	로버트 디 헤일즈
6	닐 에이 맥스웰
8	엘 톰 페리
9	조셉 비 워스런; 한인상
11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13	알렉산더 비 모리슨
14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달린 에이치 우스
15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6	보이드 케이 패커; 엘 알든 포터
18	제임즈 이 파우스트
2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메리온 디 랭스
21	요시히코 기꾸찌
22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4	마빈 제이 에쉬튼
25	에드니 와이 고마프; 스티븐 디 나이들드
26	제임즈 이 파우스트
27	본 제이 페더스톤
28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9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30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92년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영적인 생활	
공과	연사
1	달린 에이치 우스
2	닐 에이 맥스웰
3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6	러셀 엠 넬슨
7	메리온 디 랭스
10	데이비드 비 헤이트
11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조셉 비 워스런
12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13	고든 비 힝클리(토요일 오전 모임)
14	안셀 아브레아
15	엠 러셀 벨라드
17	데이비드 비 헤이트
18	러셀 엠 넬슨, 본 제이 페더스톤
가정 및 가족 교육	
공과	연사
6	마빈 제이 에쉬튼; 리차드 지 스코트
8	보이드 케이 패커
10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자선 봉사/사회 관계	
공과	연사
1	엘 톰 페리; 본 제이 페더스톤; 엘 알든 포터
5	요시히코 기꾸찌; 에드니 와이 고마프; 알렉산더 비 모리슨
9	제임즈 이 파우스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방문 교육
성도의 첫 연차 대회 특집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실리지 않는다.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후에 방문 교사들은 대관장단의 일원이 행한 연차
대회 말씀을 선택하여 그 달의 메시지로 사용한다.

1992년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물문경	
공과	연사
12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14	조셉 비 워스런;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15	닐 에이 맥스웰
17	메리온 디 랭스
19	엘 톰 페리
20	칼로스 이 애이시
22	달린 에이치 우스
23	안셀 아브레아; 엘 알든 포터
24	본 제이 페더스톤; 요시히코 기꾸찌
25	제임즈 이 파우스트
26	로버트 디 헤일즈
27	보이드 케이 패커
28	러셀 엠 넬슨
3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칼로스 이 애이시
31	요시히코 기꾸찌
34	엠 러셀 벨라드; 한인상
35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메리온 디 랭스
36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37	데이비드 비 헤이트; 알렉산더 비 모리슨
38	조셉 비 워스런; 샘 케이 시마부꾸로
4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2	하워드 더블류 헌터; 스티븐 디 나이들드
43	마빈 제이 에쉬튼
44	데이비드 비 헤이트

1992년 초등협회 정의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2	마빈 제이 에쉬튼

28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마빈 제이 에쉬튼
32	메리온 디 랭스
36	조셉 비 워스런
39	메리온 디 랭스

정의반 제2과정	
공과	연사
29	마빈 제이 에쉬튼
36	메리온 디 랭스

용기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4	엘 톰 페리
15	하워드 더블류 헌터
17	마빈 제이 에쉬튼
28	스티븐 디 나이들드
33	메리온 디 랭스
34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35	마빈 제이 에쉬튼
39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용기반 제2과정	
공과	연사
33	요시히코 기꾸찌
35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불꽃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19	엘 톰 페리; 엘 알든 포터
22	데이비드 비 헤이트
23	안셀 아브레아; 스티븐 디 나이들드
25	조셉 비 워스런
27	칼로스 이 애이시
37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38	닐 에이 맥스웰

여포리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8	엘 톰 페리
21	데이비드 비 헤이트
22	안셀 아브레아; 스티븐 디 나이들드
27	메리온 디 랭스
28	조셉 비 워스런
33	샘 케이 시마부꾸로
39	닐 에이 맥스웰
40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여포리반 제2과정/불꽃반 제2과정/ 주일학교 제11반	
공과	연사
15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16	칼로스 이 애이시
22	스티븐 디 나이들드
29	칼로스 이 애이시
36	마빈 제이 에쉬튼



솔트레이크 성전.

1992년 주일학교 제12반	
공과	연사
14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21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2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3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칼로스 이 에이시
24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7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매리온 디 행스; 샘 케이 시마부꾸로
29	마빈 제이 에쉬튼
40	러셀 엠 넬슨
42	스티븐 디 내이들드

주일학교 제12반	
공과	연사
15	칼로스 이 에이시
17	제임즈 이 파우스트; 안셀 아브레아
19	제임즈 이 파우스트
20	엘 톰 페리; 알렉산더 비 모리슨; 엘 알든 포터
2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아테스 지 캡
2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칼로스 이 에이시
24	엘 톰 페리; 엘 알든 포터
25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칼로스 이 에이시
31	알렉산더 비 모리슨
32	스티븐 디 내이들드
36	마빈 제이 에쉬튼
3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8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4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42	제임즈 이 파우스트; 안셀 아브레아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연사
6	닐 에이 맥스웰
7	닐 에이 맥스웰
12	스티븐 디 내이들드
14	엘 톰 페리; 엘 알든 포터
17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매리온 디 행스
1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칼로스 이 에이시
20	요시히코 기꾸찌
21	러셀 엠 넬슨
23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4	제임즈 이 파우스트; 안셀 아브레아
25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로버트 디 헤일즈
26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매리온 디 행스
2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29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33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36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37	제임즈 이 파우스트; 안셀 아브레아
39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40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엘 러셀 벨라드; 매리온 디 행스
41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연사
14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조셉 비 위스틴
1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17	보이드 케이 패커

18	매리온 디 행스; 샘 케이 시마부꾸로
27	닐 에이 맥스웰
28	델린 에이치 옥스
30	스티븐 디 내이들드
35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38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4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매리온 디 행스
42	엘 러셀 벨라드
43	러셀 엠 넬슨

주일학교 제16반	
공과	연사
12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닐 에이 맥스웰
16	스티븐 디 내이들드
2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조셉 비 위스틴; 칼로스 이 에이시
30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2	하워드 더블류 헌터; 요시히코 기꾸찌
3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매리온 디 행스
37	보이드 케이 패커
38	제임즈 이 파우스트; 안셀 아브레아
40	데이비드 비 헤이트
44	데이비드 비 헤이트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연사
11	엘 러셀 벨라드
12	데이비드 비 헤이트
15	보이드 케이 패커; 칼로스 이 에이시
16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1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1	하워드 더블류 헌터
24	보이드 케이 패커
27	데이비드 비 헤이트
28	보이드 케이 패커
29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3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조셉 비 위스틴; 칼로스 이 에이시
35	칼로스 이 에이시
39	제임즈 이 파우스트; 안셀 아브레아
4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매리온 디 행스
4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한인상; 로버트 디 헤일즈

꽃별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제임즈 이 파우스트
5	델린 에이치 옥스
6	델린 에이치 옥스
10	마빈 제이 에쉬튼
12	델린 에이치 옥스
14	아테스 지 캡
15	데이비드 비 헤이트
19	요시히코 기꾸찌
24	엘 러셀 벨라드; 한인상
25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26	요시히코 기꾸찌
27	매리온 디 행스; 스티븐 디 내이들드
29	보이드 케이 패커
37	스티븐 디 내이들드
39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마빈 제이 에쉬튼

장미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	로버트 디 헤일즈
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후 모임);

3	스티븐 디 내이들드
4	매리온 디 행스; 샘 케이 시마부꾸로
5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위스틴
7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8	보이드 케이 패커; 델린 에이치 옥스
1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하워드 더블류 헌터
14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델린 에이치 옥스
17	데이비드 비 헤이트; 아테스 지 캡
18	에드니 와이 고마프
1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요시히코 기꾸찌
20	엘 러셀 벨라드
21	리차드 지 스크트
23	제임즈 이 파우스트
24	한인상
25	알렉산더 비 모리슨; 로버트 디 헤일즈
2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알렉산더 비 모리슨
2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9	하워드 더블류 헌터; 매리온 디 행스
30	보이드 케이 패커
31	조셉 비 위스틴
32	마빈 제이 에쉬튼
33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칼로스 이 에이시
3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3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로버트 디 헤일즈
39	로버트 디 헤일즈
40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월계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매리온 디 행스; 샘 케이 시마부꾸로
3	조셉 비 위스틴
4	델린 에이치 옥스
5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6	델린 에이치 옥스
7	조셉 비 위스틴; 아테스 지 캡
8	토마스 에스 몬슨(토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9	마빈 제이 에쉬튼
13	델린 에이치 옥스
1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1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7	데이비드 비 헤이트; 아테스 지 캡
20	엘 톰 페리
21	요시히코 기꾸찌
22	제임즈 이 파우스트
23	안셀 아브레아; 스티븐 디 내이들드
24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2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6	제임즈 이 파우스트; 로버트 디 헤일즈
27	에드니 와이 고마프
28	엘 러셀 벨라드
30	알렉산더 비 모리슨
31	매리온 디 행스; 알렉산더 비 모리슨
33	보이드 케이 패커
36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38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조셉 비 위스틴
39	제임즈 이 파우스트
4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로버트 디 헤일즈; 아테스 지 캡
44	로버트 디 헤일즈
45	마빈 제이 에쉬튼; 매리온 디 행스
46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단이 부름받음

재 니트 시 헤일즈 자매와 전 본부 청년 회장단의 다른 역권들과 임원들은 송별 모임을 가졌다. 가까운 관계를 맺어 왔던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서 그들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

곧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으로 부름받게 될 헤일즈 자매는 “전 정말 폐쇄적인 서클을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조용하게 소견을 말하였다.

누군가가 “밀실 공포증을 갖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다.

“아뇨, 전 다만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헤일즈 자매에게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치는 것은 중요하다. 헤일즈 자매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항상 제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기 때문이죠.”라고 말한다.

사실 말 그대로 11살 난 재니트를 팔로 감싸 주고 그녀를 침대로 이끌어 준 사람은 유타주 스페니쉬 포크의 초등학교 회장이었다. 재니트는 이웃의 어린이들과 함께 가끔씩 초등학교에 참석하곤 했으나, 몇 년 동안 아무도 재니트가 회원이 아니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재니트는 비록 어려서 복음에 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므로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비회원이었으며 어머니는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지요. 부모님은 항상 가정에서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분들은 제게 친절하고 성직하며 상냥하게 되도록 가르쳐 주셨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라고 헤일즈 자매는 회상한다.

1933년 6월 7일에 토마스 엘 캘리스트와 한나 캐릭 캘리스트 사이에서 태어난 재니트 헤일즈 자매는 이미 생애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해 왔다. 1955년에 로버트 에이치 헤일즈와

결혼한 헤일즈 자매가 가장 잘 “성취”한 것 가운데 몇 가지는 바로 다섯 자녀인 앤 헤일즈 네버스, 토마스 시 헤일즈, 제인 헤일즈 릭스, 그리고 카렌과 메리 헤일즈이다.

또한 헤일즈 자매는 본부 초등학교 임원으로, 와드 초등학교 회장과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유타 주 의회에서 일하였다. 지난 2년 동안은 본부 청년 회장단의 제2보좌로 봉사해 왔다.

“그것은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청년 프로그램과 주제 및 가치관은 청년과 그의 가족과 청년 지도자들의 생활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호소력 있고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가치를 심어 주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라고 헤일즈 자매는 말한다.

헤일즈 자매는 4년 전 남편이 암으로 죽었을 때,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다.

“전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가 항상 그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있어 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한 안전함이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자마자 즉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헤일즈 자매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살며 사랑하는 데에는 위험한 일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인생은 공허하죠. 완전한 안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은 대략 사십 팔만 명의 전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이끄는 헤일즈 자매의 새로운 부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헤일즈 자매는 말한다. “복음과 교회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사는 와드나 지부 안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하며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헤일즈 자매가 관리하는 청년 프로그램에서는 폐쇄된 집단이 전혀 없을 것이 명백하다.

헤일즈 자매의 제1보좌인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도 그러한 소망을 똑같이 표현하였다. 자유와 신뢰와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피어스 자매는 그러한 요소들이 어린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저는 유년기에 제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라고 피어스 자매는 회고한다. 1945년 2월 8일에 고든 비 힐클리와 매조리 페이 힐클리의 가운데 자녀로 태어난 그녀는 부모에게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저의 부모님들은 모범으로 가르치셨어요. 집안의 규칙은 실제로 토의된 적이 없었으나, 그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의 한 경험이 피어스 자매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여 준다. 이웃 어린이들이 어느 집의 지붕에다 돌맹이를 계속 던지고 있었는데 버지니아도 열심히 던졌다. 다른 애들보다 더 어리고 더 작았던 버지니아는 집주인이 누워 자고 있는 침실 창문에다 똑바로 던져 버렸다.

그 집주인은 잠에서 깨어났으며 어린 버지니아의 행동을 나무랐던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피어스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분은 제가 만일 그분의 딸이라면 하루종일 부엌 의자 위에 앉혀 놓을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종일 저희 부엌의 의자 위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의논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인이 제가 온종일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피어스 자매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신다고 느꼈지만 십대일 때는 그분께 더욱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었다.

“15살 때였어요. 그 나이에는 자신이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실제로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어려운 시기죠.”라며 그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웃으며 이야기한다. “저는 일종의 고립감을 느꼈지만 복음 속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의식적으로 했던 것이 기억나 전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피어스 자매는 남편인 제임스 알 엠 피어스 형제를 다른 사람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그들은 즉시 친구가 되었지만 일 년이 지날 때까지 데이트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1965년에 결혼해서 현재 다섯 딸인 로즈마리 울슨, 에밀리 폭스, 로라 켄킨스, 하디 켄슨, 그리고 에이미와 아들인 제임스를 두고 있다.

피어스 자매는 남의 말을 경청해 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경청하고 사랑함으로써 자료를 얻는 능력을 통해 그녀는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도 잘 계획함으로써 훌륭하게 봉사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말을 듣게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흥분돼요.”라고 피어스 자매는 말한다. “사춘기는 자신이 누군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식하는 시기죠. 청녀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들이 직면한 도전이 어떤 것인지 또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요. 전 그들로부터 듣고 배울 거예요.”

패트리시아 피 피네가 자매도 제2보좌로서 청녀 조직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다. 세상과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는 피네가 자매는 십대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고등 학생 시절에 저는 진정으로 영적인 자각을 느꼈습니다.”라고 피네가 자매는 회상한다. “전 항상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열 여덟 살이 되어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네가 자매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는 항상 있었다고 말한다. 1937년 2월 3일에 로렌스 피터슨과 와비 윌리엄스 피터슨 사이에서 태어난 패트리시아는 19살 때 에드 피네가를 만나 결혼하였다. 피네가 자매는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얻었는데 8자녀인 캐리 부쉬넬, 스티븐, 켈리 헤저메이어, 크리스틴 구블러, 브렛, 코리, 트레이시 그리고 트리시아를 키우면서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

“저는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 계속 성장하고 능력을 키워 나가며 계속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저는 언제나 네라고 말하고 성장하며 신뢰하겠다는' 소망과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족하거나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서 우리가 성공하도록 그 나머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피네가 자매는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배우도록 도와 왔다. 남편이 영국 런던 남선교부의 선교부장과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봉사할 때 그녀는 선교사들이 네라고 말하며 순종하도록 권고했다.

그녀가 선교사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또 다른 하나는 경전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피네가 자매는 이것도 모범으로 가르쳤다. “전 그들에게 매일 매일 경전을 읽고 바로 그날,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성구 개념이나 원리를 찾아보도록 목표를 주었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했지요. 저는 매일 사무실 문 밖에 성구 한 개와 그 성구를 개인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적힌 카드를 붙여 두었습니다. 경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를 강화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네가 자매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이 새로운 기회를 받고 보니 가슴이 떨리는군요.” 며칠 전에는 청녀 주제를 집으로 가져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전에도 그것을 듣고 말했었지만 마치 처음으로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녀들에게 이 주제를 말하고 이해하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강한 의미를 내포한 글귀는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청녀들이 이 말씀을 따른다면 그들은 인생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방패 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전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모로나이서 6:4)



부 활하신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신 지 약 4백년 후,
 예언자 모로나이(표지 인물)는 그의 백성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땅에 묻었다. 모로나이와 그의 부친
 몰몬(위)은 이 기록을 충실히 작성하여 보존하였으며, 이들은
 언젠가 그 기록이 다시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몰몬서 5:14)
 믿게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주님이 택하신 종들이
 이번 호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이러한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